

The Mæssage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의 허계영 번역 version)

시편



여기에 실린 그림들은 '허계영의 성경의 맥과 핵 세미나' 교재용으로
허설영(저희 큰언니)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것입니다. 무단 복제를 삼가주세요

제1권

1편

1 하나님이 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

‘범죄 살롱’이라면 얼씬도 않고,
패망의 길에 은근슬쩍 발을 들여 놓지도 않고,
‘자백 대학’에 입학해 다니지도 않는 너를...?

2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전율하고

밤낮으로 성경을 되새김질하는 너를?

3 년 에덴동산에 다시 심겨진 나무야.

매달 새 열매를 맺는 나무,
결코 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 (마지막 잎새^^)
사시사철 꽃이 만발한 나무라구.

4 악인들과는 전혀 다른 너....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하지.

5 법정에서 변호는 커녕

결백한 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해.

6 네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악인들이 가는 길의 끝은 인생막장 우범지대란다.

2편

1-6 나라들아, 너희 왜 이리 소란스럽니?
민족들아,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세상의 지도자들이 권력 쟁취에 혈안이 돼 있구나.
선동가들과 각국 대표들이 정상회담을 갖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의 외침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메시아로부터 자유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

그들의 착각을 비웃으신 주님이

이내 분노를 터뜨리시는구나.

불 같이 진노하시며 그들 입을 막으시는구나.

“시온에 왕이 계심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분의 대관식이 열리는 걸 모르느냐?”

7-9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

“우리 아들!

오늘이 네 생일이란다.

생일선물(생선^^)로 뭘 줄까? 뭐든 말만 해!

선물로 나라들을 줄까? 포상으로 5대양 6대주를 줄까?

그들이 네 앞에서 춤추게 하다가

내일 그들을 쓰레기통에 처넣어도 된단다.”

10-12 그러니 너희 반란군 왕들아, 머리 좀 쓰렴!

애송이 재판관들아, 교훈 좀 얻으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렴!

떨리는 경외심으로 찬양하렴! 메시아께 입맞추렴!

너희 모두 파리 목숨이라는 건 알고 있지?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 직전이거든....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어. 하나님께 달려가렴!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어서!

3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났을 때 쓴 다윗의 시

1-2 하나님, 여기 좀 보세요!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적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절 에워싸고 조롱을 퍼부어요.

“헐...! 하나님이 재를 도와주신다고? 웃기는 소리!”

3-4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사방에서 절 방패로 막아 주시죠.

제 발을 굳게 세우시고, 머리를 당당히 들게 해 주시죠.

제가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외칠 때

거룩한 산에서 천둥소리로 대답하시죠.

5-6 저는 두 다리 쪽 뻗고 꿀잠을 잔답니다.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 가뿐히 일어난답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떼로 몰려와도

담대히 그들을 맞서죠.

7 하나님, 일어나세요!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의 얼굴을 후려쳐 주세요.

처음엔 이쪽 뺨, 그 다음엔 저쪽 뺨을,

그들 이빨을 주먹으로 세계 날려 주세요. (강냉이 털린다^^)

8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요.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축복의 옷을 입혀 주시니까요.

4편

다윗의 시

1 제가 부를 때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세요!
전에 제가 궁지에 몰렸을 때도 절 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곤경에 처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2 너희 오합지졸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 조롱을 참아야 하니?
너희는 언제까지 거짓말만 늘어놓을 작정이니?
언제까지 환상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거니?

3 잘 봐.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는지! (바로 나!-날 좀 보소^^)
주님은 내가 외치는 즉시 들어주시거든?

4-5 불평하고 싶으면 하렘, 빈정대지 말고....
굳이 소리낼 것 없이 마음으로 애길 해 봐.
하나님께 네 사정을 아뢰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려 봐.

6-7 왜 모두들 계속 배고프다고 난리지? (히당크? I'm still hungry.^^)
다들 이러잖아. "더 줘! 더 줘! 더 달란 말야!"
내게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는데,
매일의 일상 속에 넘치는 기쁨을 주셨는데?

7-8 그들이 한 트럭 쇼핑한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루를 마무리짓고 폭 잘 수 있는 건
주님이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5편

다윗의 시

1-3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저 좀 바라보세요!

제가 비록 횡설수설하곤 있지만
제 신음소리와 부르짖음, 주님은 다 이해하실 수 있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
주님은 이 소리를 반복해서 듣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마다
주님 제단 위에 제 자신을 각떠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길 기다릴 테니까요.

4-6 악인들과는 상종도 앓으시고
악은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시는 주님,
잘난 체하는 자들을 쓰러뜨리시고
건방진 자들을 향해 고개를 저으시는 주님,
거짓말쟁이들을 무너뜨리시고
살인자들과 위증자들을 역겨워하시는 하나님!

7-8 그런데 저는 주님의 귀빈으로 초청받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집에 왔어요.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와 엎드려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적진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9-10 그들의 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그들의 숨결에선 독가스 대방출 (방독면 준비!^^)
그들의 목구멍은 짝 벌어진 무덤문
그들의 혀는 진흙비탈처럼 매끄럽지요.
하나님, 저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려주세요!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들을 쫓아내 주세요! 기회를 주실 만큼 주셨잖아요?

11-12 하지만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해주세요.
우리가 피할 곳을 찾아 주님께 달려갈 때
밤새 환영파티를 열어 주세요.
맘놓고 기뻐하도록 호위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환영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시니....
기쁨으로 우릴 단장해 주시니.... (철보단장보다 더하다는 기쁨단장^^)

6편

다윗의 시

1-2 오 하나님, 제발 저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제게서 회초리를 거둬주세요.
주님 사랑에 굶주렸으니
이젠 그만하시고 따뜻이 대해주세요.

2-3 제가 뻗속까지, 영혼까지 흠씬 두들겨 맞아
시퍼렇게 멍든 게 안 보이시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언제나 멈추실 건가요?

4-5 제발 개입하셔서 이 싸움 좀 끝내주세요.
절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기서 절 좀 꺼내주세요.
제가 죽으면 주님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요?
제가 무덤에 묻히고 나면 주님의 찬양대에서 노래할 수도 없잖아요?

6-7 아, 정말 지친다, 지쳐! 완전 탈진이야!
눈물이 흘러 흘러 이론 홍수 위로
침대가 떠다닌 게 무려 40일!

질척질척 눈물 젖은 매트리스
블랙홀처럼 폭 꺼진 두 눈두덩
눈 뜬 장님처럼 더듬더듬, 보이질 않네.

8-9 마귀의 줄개들아,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마침내 내 흐느낌을 들으셨거든?
드디어 내 호소를 들으셨거든?
결국 내 기도에 응답하셨거든?

10 원수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는구나.
망신 툭툭 당하고 공기 빠지게 달아나는구나.

7편

다윗의 시

1-2 하나님! 하나님! 제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절 쫓아오는 자들의 기세가 너무 맹렬합니다.
그들에게 잡혔다가는 전 끝입니다.
그들이 사자떼처럼 사납게 달려들어 저를 갈기갈기 찢은 후
누구 하나 찾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도록
숲으로 끌고 가 버려 둘 기세입니다.

3-5 하나님, 만약 저들 말대로
제가 친구를 배신하고
원수를 벗겨 먹었다면,
제 손이 정말 그렇게 더럽다면,
그들에게 붙잡히게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짓밟혀 진창에 처박히게 하셔도 할 말이 없다구요.

6-8 하나님, 일어나세요! 미쳐 날뛰는 제 원수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진노를 쏟아내세요.

하나님, 깨어나세요! 심판의 때가 되었잖아요!
저를 고발한 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단 말예요.
심판석에 자리잡고 앉으셔서 판결의 망치를 집어드세요.
그리고 제게 뒤집어 씌운 엉터리 혐의를 벗겨 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무죄!'라고 판결해 주실 것어요.

9-11 하나님, 악인들의 소행을 끝장내세요.
우릴 위해 주님의 명령을 반포하세요.
우리 삶을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약점을 조사하신 후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는 주님
주님 안에선 아늑함과 안전함이 느껴져요.
주님 품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바로 이거죠! (그래, 이 맞아야!^^)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은 매사를 의롭게 처리하시는 분
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극도로 까칠하신 분

11-13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지.
하나님이 이미 행동에 돌입하셨거든요!
숫돌에 날카롭게 간 주님의 검
당장이라도 날아갈 듯 장착된 활
주님 손에 들린 치명적 무기
불붙는 미사일을 방불케 하는 화살 (패트리엇 미사일^^)

14 저 사람 좀 보세요!
죄와 동침해
악을 임신한 저 사람을!
오, 보세요! 저자가 낳은 아기를!
태어난 아기는 다름아닌 '거짓'!

15-16 저 사람 좀 봐!
하루가 멀다 하고 삼질하는 저자를!
곤게 뺀 외길 아래 땅을 판 후

‘인간 생포용 땃’을 숨기고 있구나.
하지만 돌아가 다시 살펴보니
그가 거꾸로 처박혀 허공에 다리만 흔들리네.
맞아, 세상사 그렇게 돌아가지.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남에게 가한 폭력,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17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늘까지 명성 높으신 하나님을!

8편

다윗의 시

1 하나님, 찬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 너무나 유명합니다.

2 젖먹이 갓난애도 흥얼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아장아장 걸음마 아기도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그 소리에 원수들 목소리가 묻히네요.
무신론자들 역시 꿀 먹은 벙어리네요.

3-4 주님의 거대한 하늘-어둡고 광대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
달과 별들을 제 자리에 박아넣으셨네요.
그러다가 작디 작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네요.
주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한테 신경을 쓰시나요?
우리가 뭐라고 이토록 우리 길을 보살펴 주시나요?

5-8 하지만 신들보다 조금 못한 우리에게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주님 손수 만드신 세상을 우리 손에 맡기셨죠.

주님의 창조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죠.
양떼 소떼 집짐승뿐 아니라
들에 사는 들짐승들까지,
하늘을 나는 새,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대양 깊은 데서 노래하는 고래들까지 저희 수하에 두셨지요.

9 하나님, 찬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메아리치네요!

9편

다윗의 시

1-2 하나님, 온 맘 다해 주님께 감사해요.
전 지금 주님의 경이로우심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 휘파람 불고, 웃음을 터뜨리고, 갹충갹충 뛰면서....
높으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4 내 원수들이 꼬리 내리고 허둥지둥 도망치던 날 (꺾꺾^^)
그들이 주님 발에 걸려 고꾸라졌죠.
모든 걸 넘겨받아 바로잡아 주신 주님
제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거기 계신 주님

5-6 불경건한 나라들을 향해 호루라기를 부시고 (옐로우카드^^)
반칙하는 선수들을 시합에서 퇴장시키시며 (레드카드^^)
선수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제명시키시는 주님 (영구제명^^)
원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들 명성이 사정없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명예의 전당'에서 그들 이름이 지워지고 있어요.

7-8 높은 곳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땅에 사는 우릴 위해 옳은 결정을 하시고
각자에게 딱 맞게 보상해 주시는 주님!

9-10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안전가옥
환난당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금자리
도착하자 마자 마음이 놓이고
언제든 노크해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네.

11-12 노래를 올려 드리거라,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살인자는 끝까지 추적하시지만
우리들은 끝내 지키시는 주님
않는 소리, 신음소리 하나 안 놓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13-14 절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하나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얻어 맞은 이 몸을....
죽음의 문턱에서
제 목숨 건져 주신 주님!
제가 '할렐루야'라는 책을 쓰겠습니다.
 시내 한복판, 명동 거리에서
야외 집회를 열겠습니다. (출판기념 버스킹^^)
제가 찬양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중을 채우겠습니다, 구원의 노래로!

15-16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렸구나.
자신이 설치한 그물에
자기 발이 빠졌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잘 알려져 있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인들
자기가 만든 날카로운 기계에
자기 손이 잘려 나가게 하시네.

17-20 악인들이 지옥행 차표를 샀구나.
편도행 열차표를 샀구나.
가난한 이들, 이제 무시당할 일 없겠구나.
비천한 이들, 더 이상 모욕당할 일 없겠구나.
일어나세요, 하나님!
저들의 떠벌림에 질리지도 않으셨나요?
저들을 벌벌 떨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세요.

10편

1-2 하나님, 설마 절 피하시는 건 아니죠?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지금 전 주님이 필요한데....
악인들이 거만한 태도로
가난한 이들을 맹렬히 뒤쫓고 있는 이 때, 대관절 어디 계신가요?
악인들을 넘어뜨려 주세요.
자기들이 짜 놓은 교활한 음모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세요.

3-4 허풍이나 떨어대는 악인들,
사기꾼들 입에서 악취가 진동하네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네요.
그들이 벽에 휘갈겨 쓴 낙서
"잡을 테면 잡아 봐!"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한 니체는 죽었다...라고 낙서한 놈, 나한테 죽었다! - 청소 아줌마^^)

5-6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일말의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에게 방해가 된다 싶으면 곧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제단엔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못될 리 없어. 올해 운수대통이야!" (토정비결^^)

7-8 저들은 입안 가득 저주를 머금고
혀에서는 독사의 독을 내뿜고 있어요.
선량한 사람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쳐 사람을 해쳐요.

9 불운한 이를 표적으로 삼아
사냥꾼처럼 숨어 기다리다가
불쌍한 이가 다가와 서성대면
'이때다' 하면서 등에 비수를 꼽지요.

10-11 어리석고 무력한 자를 걷어차 땅에 쓰러뜨리고
불운한 희생자에게 잔인한 도끼질을 해댑니다. (깁데또까 상^^)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고난엔 관심 없으시다 믿으면서....

12-13 하나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빨리 손써 주세요!
불운한 자들이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악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도 멀쩡히 잘 사는지
왜 사악한 자들이 그렇게 오만불손한데도
전혀 제제를 받지 않는지....

14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사정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받는 모욕과 학대를....
저는 믿습니다.
언젠간 불운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한번 고아라고 영원히 고아는 아니라는 것을....

15-16 악한 자들의 오른팔을 부러뜨려 주세요.
모든 악인의 왼팔을 꺾어 주세요.
범죄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철저히 찾아내 무너뜨려 주세요. (매의 눈^^)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패배하리라, 불경건한 무신론자들!

17-18 희생자의 미약한 맥박 되살아나고
절망자의 심장에서 뜨거운 피 요동침은
주님이 그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기 때문
고아에게 부모가 생기고
노숙자에게 집이 생겼네.
공포시대가 끝이 났다네.
폭군들 통치가 종결됐다네.

11편

다윗의 시

1-3 필사적으로

하나님 품 향해 달려간 이 몸
이제 와서 어찌 주님 품을 떠날까?
너희가 아무리 지껄여도 소용없어.

“산으로 도망가야 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사악자가 화살을 겨누고 있잖아?

하나님께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

어둠 속 화살이 겨냥하고 있다구!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인들이라고 살 수 있겠냐구?”

4-6 하지만 하나님은 산으로 이주하지 않으셨는 걸?

주님의 거룩한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았는 걸? (시온주민센터 왈^^)

항상 그랬듯 여전히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의 눈이 빈틈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걸?

눈 한번 깜빡이지 않으시고

아담(사람-역자 주)의 살과 피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걸?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시험을 치르시고
컨닝하는 자 적발되면 진노하시는 걸?
시험에 낙방하면 그걸로 아웃!
밖으로 내쫓겨 불벼락을 맞게 되는 걸?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 마시지만
거기엔 사막의 뜨거운 바람만 들어있는 걸?

7 하나님의 주업무: 일을 바로잡으시는 것
주님의 취미: 굵은 걸 곧게 만드시는 것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우뚝 세워주셔서
주님과 눈을 맞추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걸?

12편

다윗의 시

1-2 빨리요, 하나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경건한 사람마저 넘어졌어요!
제가 의지하던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모두가 입만 열면 거짓말
개기름 질질 흐르는 입술에서 거짓말이 미끄러져 나와요.
그들은 혀가 두 갈래로 갈라졌나 봐요. 여기에선 이 말, 저기에선 저 말....

3-4 그들 얼굴에서 입술을 도려내 버리세요!
그들 입에서 허풍 떠는 혀를 뽑아 버리세요!
저들의 이런 말에 신물이 나요. "우리 말 한 마디면 다 돼!
우린 입술로 세상을 쥐락펴락한다고!"

5 빈민촌 오두막을 향해,
어두운 거리, 집 없는 자들 신음하는 곳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더는 못 견디겠구나. 내가 이미 길을 나섰단다.
가련한 자들의 마음 속 아픔을 치유하러...."

6-8 하나님의 말씀은 맑고 순수해요.
불가마에
일곱 번 제련한 순은처럼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처럼 순수하죠.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세요.
저들의 거짓으로부터,
사기로 우릴 낚으려는 악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거짓말로 명성이 자자한 악당들로부터....

13편

다윗의 시

1-2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오래 저를 무시하셨으면 됐지 않나요?
저는 주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부터....
무거운 고난을 등에 지고 살아온 나날
끔찍한 고통을 뱃속에 품고 지내온 세월
오만불손한 원수들의 무시와 조롱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3-4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절 좀 봐 주세요.
눈 똑바로 뜨고 살고 싶어요.
제 원수가 절 노략하지 못하도록
제가 쓰러졌을 때 비웃지 못하도록

5-6 제가 주님 품에 달려가 와락 안김은
절 구해 주심이 너무 기뻐서랍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목청껏 노래함은
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랍니다.

14편

다윗의 시

1 악만 남은 채 오만을 떠는 자들이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들의 말은 독가스 (화생방 경보!^^)

맹독으로 공기를 오염시키네.

강물에도, 하늘에도 그 독이 퍼지니

그들이 거둘 수확은 가시덤불뿐....

2 하나님이 하늘에서

고개 내밀고 둘러보시네.

혹여라도 지혜로운 자 있는지 찾아보시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남자를

하나님 위해 준비된 한 여자를

3 하지만 한 명도 못 찾으셨네.

어느 하나 쓸모가 없네.

진정한 목자 없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자기들이 목자인 양 흉내낸다네.

99명이 따라가네.

자기랑 다를 것 없는 동료 하나를....

4 이 약탈자들은 모르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사람들을 덩석덩석 먹어 치우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는 생략

그리고도 무사히 넘어갈 거라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5-6 그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은 악자 편에 서 주신다네.

너희가 짓밟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난한 이들의 꿈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 꿈을 실현시켜 주시는 걸?

7 여기 누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이 있나요?
그래,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인생역전 야곱이 폴짝폴짝 뛰노는구나.
인생반전 이스라엘이 깔깔거리며 노래하는구나.

15편

다윗의 시

1 하나님, 주님 집에 초청받아
만찬에 참여할 이 누구인가요?
어떡하면 주님의 초청장을 받을 수 있나요? (멤버십 약관 좀~!^^)

2 "똑바로 걷거라.
올바로 행동하거라.
진실만을 말하거라.

3-4 친구를 해치지 말거라.
이웃을 욕하지 말거라.
비열한 자를 상대치 말거라.

5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꼭 지키거라.
진실되게 살거라.
뇌물은 절대 받지 말거라.

이렇게만 산다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일은 결코 없을 거란다."

16편

다윗의 노래

1-2 오 하나님, 절 지켜주세요!

필사적으로 주님께 달려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주님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어요.

3 여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멋진 친구들인가요!

4 우상을 사러 쇼핑 다니지 마세요.

신(神)은 사고파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맹세합니다. 무슨 상표 붙이듯

신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겠다고....

5-6 하나님, 전 주님을 택했어요. 최우선으로, 유일한 선택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 주님이 절 택하신 거였군요!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지으신 후

상속자로 절 지명하셨다니...! (상속세도 면제^^)

7-8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조언이

잠자리에 들 때도 내 마음 확고히 해 주네요.

밤이든 낮이든 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래요.

내가 받은 축복 하나도 놓치지 않을래요.

9-10 내 마음이 이토록 행복하다니!

내 삶이 이토록 확고하다니!

주님이 내 지옥행 열차표를 취소하셨으니

이제 내 종착역은 지옥이 아니랍니다.

11 내 발을 굳게 세워주신 생명의 길

주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찬란한 빛이 그 길을 가득 메우네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 이후
전 줄곧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17편

다윗의 기도

1-2 하나님! 제 사정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주님이 지금껏 들어 보신 기도 중에 가장 정직한 기도일 테니....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의 결백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의 무죄를!

3 저를 살살이 살피보세요, 어서요!
한밤중에 느닷없이 저를 조사해 보세요. (불시검문^^)
그럼 아시게 될 거예요, 제 언행일치의 삶을....
말만 번드르르하지 않은 제 성품을....

4-5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제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전 주님의 길을 걸을 거예요.
한 발, 한 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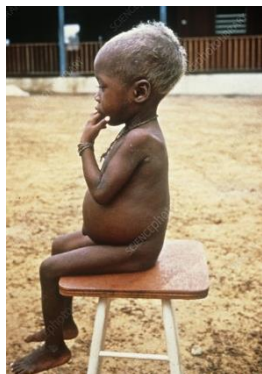
6-7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실 걸 확신하기에....
그러니 응답해주세요! 귀담아 들어주세요! 한 마디도 놓치지 말고....
담장마다 은혜의 글을 써 주세요.
주님 품에 받아주세요.
동네 강패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주님께 곧장 달려가는 겁에 질린 아이들을....

8-9 제게서 눈을 떼지 말아 주세요.
주님의 시원한 날개깃털 그늘 아래 절 숨겨 주세요.
절 잡으려 나온 사악한 인간들로부터
점점 다가오는 살벌한 원수들로부터

10-14 그들의 마음은 대못처럼 단단하고
그들의 입은 허풍만 떨어대죠.
절 쓰러뜨리려 작정한 그들이
절 뒤쫓아와 제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려 해요.
사자들이 절 물어뜯으려 으르렁거려요.
젊은 사자들이 당장이라도 덤벼들 기세예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사자 갈기를 움켜 잡고 그들을 쳐부숴 주세요.
그들 손아귀에서 절 해방시켜 주세요, 주님의 검으로....
하나님, 주님은 맨주먹으로 물리치실 수 있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자들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을....

그들이 굶주리다 못해
배가 부풀어오르는 걸 보고 싶어요. (영양학 전문용어로 kwashiorkor^^)
씨를 뿌려도 잡초만 거두게 해주세요.
궁여지책으로 구운 공갈빵을 자신부터 먹은 후
남은 걸 자녀들에게 주고
부스러기는 갓난쟁이들에게 먹이게 해주세요.



극심한 영양불량 kwashiorkor로 부풀어오른 배
출처: Science Photo Library

15 하지만 저는요? 저는 주님 얼굴을 직접 뵈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모습 온전히 바라보고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거예요.

18편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건짐 받은 후 하나님께 바친 노래

1-2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는 주님!
주님은 내가 딛고 설 반석
내가 거하는 성
날 구해주시는 기사(奇士 knight)
나의 하나님은 높은 바위
목숨이 위태로울 때 피할 높은 바위
그 큼직한 바위 뒤에 내가 숨네
화강암 은신처 속에 안전하게 거하네

3 높으신 하나님께 노래하니, 나의 주님을 찬양하니,
어느새 내가 안전하게 구출되었음을 깨닫게 되는구나.

4-5 사형집행자가 올가미로 내 목을 조이고
마귀가 내 위로 물살을 쏟는구나.
지옥 밧줄에 단단히 묶인 이 몸
죽음의 덫에 갇혀 빠져나갈 길 없구나.

6 이 무시무시한 세상! 난 하나님을 부르네.
하나님께 외치네, 살려달라고!
궁정에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
나의 외침이 날 주님께 데려다 주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해 주네.

7-15 어, 왜 이리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지?
 왜 큰 산이 나뭇잎처럼,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지?
 오, 주님의 진노 때문이구나.
 주님의 콧구멍에 연기가 나오고
 주님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네.
 불의 혀가 화살처럼 들락날락
 하늘을 낮추시고
 주님 내려오시네.
 발 아래 무저갱이 열리지만
 날개 달린 생물을 타고,
 바람날개를 타고 쏜살같이 날아오르시네.
 시커먼 먹구름이 코트처럼
 주님 몸을 감싸도
 주님의 밝은 빛 구름 뚫고 흘러나오네.
 우박과 불덩이가 비처럼 쏟아지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보내시니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렁차게 고함치시니
 우박과 불덩이가 비처럼 쏟아지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니 순식간에 아수라장!
 주님께서 번개를 던지시니 온세상이 요란법석!
 주님께서 거세게 포효하시며
 진노의 폭풍을 보내시니
 깊은 바닷속 숨겨진 샘들이 폭발하고
 땅속 깊이 감춰진 뚜껑이 열리네. (뚜껑 열려^^)

16-19 하지만 나는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네.
 하늘에서 바다로 손을 뻗어 건져주셨다네.
 증오의 바다에서, 원수들의 아비규환에서,
 내가 빠져들던 공허에서 건져주셨다네.
 내가 넘어지자 그들은 날 걷어차지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탁 트인 넓은 들에 날 세워주셨네.

그렇게 구조받아, 그 사랑에 감격해 서 있었네.

20-24 주님 앞에 내 온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지.

내 행실을 바로잡았을 때

주님은 날 새출발하게 해 주셨지.

이제 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네.

더 이상 하나님을 본체만체 하지 않고....

매일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 묵상하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다네.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발걸음 주의하며 걷고 있다네.

하나님께 내 마음 열어드리니

주님이 내 인생 책 다시 써 주셨네.

25-27 선한 사람이 주님의 선함을 맛보고

건재한 사람이 주님의 건재함을 맛보며

진실한 사람이 주님의 진실함을 맛보는 법.

하지만 악한 사람은 주님을 결코 이해 못해.

주님은... 눌린 자 편은 들어주셔도

우쭐대는 자의 콧대는 꺾으시니까....

28-29 하나님, 주께서 제 삶에 빛을 쏟아부어 주시니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가 빛이 납니다.

그 덕에 제가 폭력배들을 쳐부수고

엄청 높은 담장도 거뜰히 뛰어넘습니다. (쿵푸 마스터^^)

30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길은 탄탄대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길, 도로 테스트 완료!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 누구나

반드시 주님께 이르게 돼 있지.

31-42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또 있을까?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릴 세우신 하나님 같은 신이?
 날 든든히 무장시키신 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이제 난 사슴처럼 달릴 수 있어.
 이제 난 숲의 왕이 되었어.
 주님이 친히 전술전략 가르쳐 주시니
 청동활이라도 거뜬히 쓸 수 있어.
 구원의 갑옷으로 날 무장시켜 주시고
 내 손을 껍약 잡아 주시는 주님
 부드러운 손길로 날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발 딛고 선 곳을 정비하셔서
 내 입지를 견고케 해 주시는 주님
 내가 원수들을 쫓아가 사로잡았다네.
 살려서 돌려보낸 자 하나도 없었지.
 그들을 잡아 완전히 쓰러뜨린 후
 철저히 밟아 뭉개 버렸다네.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날 무장시켜 주신 주님
 거만한 자들을 초전박살내신 주님
 내 적들을 공지 빠지게 달아나게 하셔서
 날 미워하던 자들을 쓸어버리신 주님
 그들이 살려달라며 '아저씨'를 불렀지만 (나의 아저씨^^)
 그들의 '아저씨'는 코빠기도 안 보였어.
 그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도 찾았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어.
 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흩날려 버렸어.
 시궁창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어.

43-45 주님은 절 싸움닭들 속에서 구출하셔서
 많은 나라들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죠.
 저랑 일면식도 없는 민족이 저를 섬기고
 소문으로만 제 얘길 들은 자들이 제 말을 듣네요.
 이방 원수들이 투항하고 나오네요.

은신처에 숨어있다 속속 기어 나오네요.

46-48 살아 계신 하나님! 우뚝 솟은 나의 반석에서 축복이 흘러내리네요.

내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로우신 하나님!

날 위해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분노한 원수에게서 날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날 꺼내주신 주님

건달들로부터 날 구해주신 주님

49-50 이것이 바로 내가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3행시를 지어 부르는 이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우승컵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사랑을 받네.

그게 누구냐고?

바로 다윗과 그 후손들이지! 영원무궁토록...!

19편

다윗의 시

1-2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운행하고
하나님의 작품이 수평선에 전시돼 있구나.

'낮' 부인이 매일 아침 수업을 열고

'밤' 교수가 매일 밤 강의를 하는구나.

3-4 자연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자연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지만

그 고요함으로 온 땅을 채우면서

말이 아닌 진리를 도처에 선포하네.

4-5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지붕,
태양을 위해 만드신 대규모 덮개!
아침해가 새신랑처럼
신혼방에서 튀어나오고
새벽해가 육상선수처럼
결승전을 향해 달리는구나.

6 그렇게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나님 말씀이 하늘을 가로지르누나.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냉랭한 마음에 믿음의 불을 지피누나.

7-9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표지판은 명확해서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한다네.
하나님의 인생설계도는
기쁨에 이르는 길 정확히 제시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은
쉽고 단순해 누구든 알아본다네.
하나님의 명성? 순도 100% 정금!
보증기간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결정? 너무 정확해.
정확도는? N단계! 즉 무한단계!

10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해.
에머랄드로 세팅한 다이아몬드보다 귀하지.
아마 봄철 딸기보다 더 좋아하게 될 걸?
탐스럽게 잘 익은 빠알간 딸기보다...?

11-14 그런데 그게 다가 아냐. 하나님 말씀은 위험을 경고하는 안전수칙!
숨겨진 보화로 인도하는 보물섬 지도

그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겠어?
 우리가 뻔짓 하는 걸 어찌 깨닫겠어?
 하나님, 우리의 오점을 지워주세요! 새로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세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 말예요.
 그래야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으로 씻기운 새로운 하루를,
 죄악의 묵은 때 말끔히 씻긴 새로운 오늘을....
 이게 바로 제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온종일 음미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제가 이걸 아침제단에 올려 놓으니
 주님, 부디 받아주세요.
 오 하나님, 내 제단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제단의 제사장이신 하나님!

20편

다윗의 시

1-4 당신이 처절히 깨지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신 주님이 당신을 가해자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죠.
 거룩한 산에서 지원군을 파송하시고
 시온산에서 새로운 보급품을 보내주신답니다.
 하나님, 주께 드리는 제물에 감탄해주세요!
 주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을 기뻐해주세요!
 그리고 마음껏 제게 복을 내려 주세요.
 절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주세요.

5 그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우린 깃발을 들고
 지붕 들썩이도록 화려한 퍼레이드를 인도하리.
 그대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6 소원이 성취되었네. 도움이 오고 있다네.

응답이 길을 나섰네.
이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리.

7-8 전차를 닦아 반짝반짝 광을 내는 사람들을 보라지?
말을 손질하며 다듬는 자들을 보라구!
하지만 우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드릴 화환을 만들고 있단다.
결국 전차들은 녹슬게 되겠지.
언젠가 말들은 다리를 절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두 발 굳게 딛고 당당히 일어설 거야.

9 하나님, 왕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해주세요.

21편

다윗의 시

1-7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곧 국왕의 능력입니다.
왕이 주님의 도움을 받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님은 왕이 원하는 걸 정확히 주시는 분
게다가 줬다 빼앗지도 않으시죠.
왕의 품에 선물을 가득 안겨주신 주님
국왕의 품위에 걸맞게 환영해 주시는 주님 (국민 대접^^)
복된 삶을 원한 왕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보너스로 장수까지 누리게 해 주신 주님
높은 하늘 구름처럼 왕을 들어올리신 후
무지갯빛 왕복을 입혀 주셨네.
왕의 머리 위에 축복을 수복이 쌓아 주시고
주님 미소에 왕도 함께 기뻐하게 해 주셨지.
그러니 왕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최고이신 분을 떠날 수 있을까?

8-12 한 손엔 원수들을
 다른 한 손엔 대적들을 쥐고 흔드시는 주님!
 주님 용광로에서 찬란한 주의 광채 흘러나오니
 원수들이 그 앞에서 기를 못 펴네.
 용광로가 그들을 통째로 골꺾
 불길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네.
 주님이 그 후손의 땅 쓸어버리시고
 세상을 말끔히 치우시네.
 그들이 도모한 권모술수, 그들이 꾸며낸 중상모략
 모두 다 흐지부지, 말짱 도루묵!
 주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니
 그들은 두 번 다시 주님 얼굴 뵈 수 없네.

13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밖에 나가 기쁜 소식 외치며 노래할 수 있도록....

22편

다윗의 시

1-2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아무도 없는 이 외딴곳에...?
 극심한 고통에 하나님을 부르지만
 온종일 불러보지만... 아무 응답이 없으신 주님
 이 몸은 고통에 겨워 밤새도록 뒤척이건만....
 한 마디 말씀도 안 하시다뇨?

3-5 하늘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찬양을 쿠션 삼아
 편안히 등을 기대신 채 무심히 계신 건가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셨던 주님
 그들이 도와달라 울부짖을 때 기꺼이 도와주셨던 주님

그 덕에 그들은 주님만 믿고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6-8 저 여기 있어요, 주님! 버려지 같은 제가,
이리저리 밟혀 이지러질 제가....

모두들 절 조롱하고

고개를 저으며 놀려대요.

“하나님이 애한테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엘 엄청 좋아하신다지? 어디 도와주시나 한번 보자구!”

9-11 제가 태어날 때 저를 받아

우리 엄마 젖가슴에 안겨주신 주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저를 꼬옥 안아주신 주님!

그때부터 주님은 줄곧 제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머나먼 곳에 이사가시고

고난이 제 옆집으로 이사왔네요.

전 진정한 이웃이 필요한데....

12-13 소떼가 절 향해 돌진해 와요.

성난 소들이 제게 덤벼들어요.

이동하는 한 무리 버팔로처럼

뿔을 들이대고 콧구멍을 벌름거려요.

14-15 이리저리 걷어차여 엎질러진 양동이처럼

온몸 마디마디 삭신이 쑤셔요.

춧농이 뚝뚝 흘러내리듯

내 안의 심장도 눈물 뚝뚝 흘려요.

제 몸은 해골처럼 말랐고

제 혀는 검게 부풀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때려눕혀

땅속 깊은 곳에 묻으려 해요.

16-18 들개들이 제게 떼로 몰려오고

강패들이 저를 향해 달려와요.

꼼짝 못하게 손발 못 박은 후
우리 안에 저를 가둬 뒀어요.
뼈만 앙상하게 갇힌 이 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구경했지요.
지갑도 털어가고, 걸친 옷도 벗겨갔어요.
그리고 주사위로 결정하네요. 누가 제 옷을 차지할 지....

19-21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절 구해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요! (8282-8282 콜센터^^)
저들이 제 목을 베지 못하도록
저 못된 것들이 절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주님, 당장 와 주세요.
안 그러면 전 끝장이에요.
황소에게 짓밟히고 사자에게 먹힐 거예요.

22-24 제 친구들이 예배하러 올 때 이 애길 들려줄게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들려줄게요.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아, 할렐루야를 외쳐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주님을 경배하여라!
단 한번도 너희를 주저앉힌 적 없으신 주님
너희가 이리저리 걷어차일 때
단 한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
단 한번도 당신 백성을 내쫓은 적 없으신 주님
바로 거기서 귀 기울여 들어주신 주님

25-26 예배하러 모인 이 거대한 무리 속에서
나, 찬양의 삶을 발견했네.
나, 반드시 지키리.
예배자들 앞, 바로 이곳에서 한 약속을....
낙망한 자, 소외된 자
주님 식탁에 앉아 배불리 먹고 마시네.
하나님을 따르는 자 여기 모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네.
"마음껏 누려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기하지 말거라, 절대로!"

27-28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네.
정신차린 그들이 달려오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네.
오랫동안 떠나 있던 가족들
주님 앞에 나아와 엎드리네. (홈커밍데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최고결정권자이신 주님께....

29 권세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역시
예배하네!
존재감 없이 투명인간 취급받던 이들 또한
예배하네!

30-31 우리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함께 예배하게 되리.
자자손손 자손만대
말씀이 전해지리.
아직 잉태되지 않은 아기들조차
복된 소식 듣게 되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23편

다윗의 시

1-3 내 목자, 하나님!

전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푸른 풀밭에 제 잠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물 마시게 해 주시니까요.
진실하신 주님 말씀대로
제가 쉼을 가진 후
바른 길 찾아가게 해 주시니까요.

4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조차

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제 곁에서 함께 걸어 주시니까요.
주님의 믿음직한 목자용 지팡이가
절 안심시켜 주니까요.

5 제 원수들의 목전에서

풀코스 만찬으로 절 접대해 주시고
고개 뚝군 제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제 잔이 축복으로 넘쳐흐르네요.

6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매일의 제 삶 가운데 늘 따라다니네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나,
평생 이곳에서 살아갈 거예요.

24편

다윗의 시

1-2 지구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소유
깊은 바다의 기초 위에 세상을 세우신 분도,
강물의 대들보 위에 세상을 놓으신 분도 바로 주님

3-4 누가 '하나님'이라는 산에 오를 수 있을까?
누가 그 산의 거룩한 북쪽벽을 탈 수 있을까?
손이 깨끗한 자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속임수를 쓰지 않는 남자들만이,
끼 부리며 유혹하지 않는 여자들만이 오를 수 있지. (암벽등반 자격증 취득^^)

5-6 하나님이 바로 그들 편이시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은 해낼 거야.
야곱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기는 일이란다.

7 일어나라, 이 잠꾸러기 도성아!
깨어나라, 이 늦잠꾸러기 백성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단다!

8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완전무장 전투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이시란다.

9 일어나라, 이 잠꾸러기 도성아!
깨어나라, 이 늦잠꾸러기 백성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단다!

10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
바로 천군천사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시란다.

25편

다윗의 시

1-2 하나님, 제가 고개를 높이 듭니다.
하나님, 목을 길게 빼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학수고대^^)
비열한 자가 제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3 저는 하나님께 베풀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거죠, 하나님?
설마 원수들이 절 이기게 하실 건 아니죠?
주님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리
우리 중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망신당해야 하는 건 배신자들이니까요.

4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5 제 손 부여잡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주님은 제 구원자! 맞죠?

6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이정표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오래된 표지판을 다시 세워주세요.

7 제가 소시적에 뺄짓 했던 건 잊어 주시고
제게 주님 사랑의 마크를 새겨 주세요. (온몸에 문신^^)
절 위한 최선의 계획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8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 바로잡아
올바른 길 가게 하시네.

9 왕따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네.

10 지금부터 당신이 걷는 모든 길
하나님께 인도해 줄 거야.
언약의 표지판만 따라간다면,
제시된 안내문만 잘 읽는다면.... (매뉴얼 준수!^^)

11 하나님, 저의 악한 삶을 용서해주세요.
주님의 명예를 위해...!
제가 비록 못되게 살아왔지만....

12 저의 질문: 하나님의 예배자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대답: 하나님의 과녁을 정확히 겨누는 화살!

13 그들은 약속의 땅에 안주하지요.
자녀들도 풍요로운 땅을 물려받고요.

14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위한 선물은? 하나님의 우정!
주님은 그들과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네.

15 하나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는 한
발 헛디딜 일 결코 없어.

16 절 좀 봐 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큰 곤경에 처한 저, 제 곁에 아무도 없단 말예요!

17 제 마음과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 내전을 잠식시켜 주세요.

18 제 삶의 무거운 짐 살살이 찾아내
수억 톤의 죄악을 거두어 주세요.

19 주님은 아시나요?
제게 양심 품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절 얼마나 혐오하는지...?

20 저 좀 봐주세요. 이 곤경에서 구해주세요.
주님께 달려가는 절 실망시키지 마세요.

21 주님의 숨씨 총동원해 절 빚어 주세요.
완성될 제 모습이 너무 기대가 돼요.

22 하나님, 주님의 백성 좀 살살 다뤄주세요.
이 불운의 연속에서 부디 해방시켜 주세요.

26편

다윗의 시

1 제게서 오명을 벗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직을 모토로 살아왔잖아요.
전 주님께 운명을 걸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꼼쩍도 안 할 거라구요! (복지부동 伏地不動^^)

2 저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테스트해 보세요.
꼼꼼히 살펴보세요.
주님 맘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는지....

3 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봐 왔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따랐어요, (박치 아님^^)
주님과의 동행을!

4-5 제가 난봉꾼들이랑 어울리지 않잖아요.
건달들이랑 사귀지도 않고요.
제가 깡패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사기꾼들이랑은 말도 안 섞는다구요!

6-7 100% 항균 물비누로 제 손을 씻은 후 (코로나도 예방^^)
사람들과 함께 커다란 원 이루어
주의 제단을 돌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8-10 저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정말 좋아요, 하나님!
주님의 집이 주의 영광으로 빛나네요. (자가발전^^)
새봄맞이 대청소날에도 저만큼은 쓸어버리지 마세요.
돌팔이와 사기꾼들은 쓸어버리셔도,
더러운 속임수 쓰는 남자들은 쓸어버리셔도,
뇌물로 주머니 불린 여자들은 쓸어버리셔도.... (사과박스^^)

11-12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껏 주님 기대에 부응해 살아온 거....
그러니 이제 제 기대에도 부응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 기대에 부응해
기회 닿는 대로 주님을 송축할 거예요.

27편

다윗의 시

1 빛, 우주, 열정!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네!

그런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난 겁나지 않아.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2 오랑캐들이 날 산 채로 삼키려

말을 타고 내려오지만,

그 불량배들과 건달들

바닥에 얼굴 처박고 고꾸라질 거야.

3 적들이 날 욕여싼다 해도

난 엄마 품 아기처럼 평온해.

지옥문이 열려 아수라장이 된다 해도

난 여전히 침착하고 평안해.

4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한다면,

딱 한 가지 소원을 아뢴다면,

그건 바로 주님 집에서

평생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주님 발치에서 주님께 배우는 것

5 그것만이 이 시끄러운 세상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길, 조용하고 안전한 길,

이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완벽한 은신처

6 날 끌어내리려는 자들 위로

하나님이 내 머리와 어깨 들어올리시니

주님 계신 곳 향해 찬양을 올려 드려요.
지붕이 들썩이도록
하나님 노래 부르며
하나님 귀에 멜로디 들려 드려요.

7-9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부디 응답해주세요!'라고 부르짖으니....
맘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렴!'이란 속삭임 들릴 때
전 혼신을 다해 응답해요.
"지금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숨어 계시지 말고 제발 얼굴 좀 보여 주세요!

9-10 늘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절 외면하지 마세요.
절 내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언제나 제게 문을 활짝 열어 주신 주님!
부모조차 날 버리고 떠났을 때
날 받아 주신 주님!

11-12 주님의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불이 환하게 켜진 도로로 절 인도해주세요.
제 원수들에게 보여 주세요. 주님이 과연 누구 편이신지....
절 던지지 마세요, 저 개들에게,
절 잡으러 나온 저 거짓말쟁이들에게,
백하면 협박이나 해대는 저들에게....

13-14 난 반드시 보게 될 거야.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돼!
용기를 내, 포기하지 마!
한번 더 말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 절대로!

28편

다윗의 시

1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부를 때
귀를 틀어막지 마세요.
주님이 귀먹은 듯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걸 보느니
차라리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는 게 더 나으니까요.

2 저의 필요를 이렇게 아뢰잖아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지성소를 향해....

3-4 저 사기꾼들의 감방에
절 억지로 밀어 넣지 마세요. (불구속 수사^^)
풀타임 행악자들
악을 직업으로 삼은 그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남몰래 마귀를 섬기는 자들
밥 먹듯 나쁜 짓을 저지른 그들
그 소행대로 갚아주세요.
마귀의 작업실에서 오래 일한 기간만큼
보너스까지 듬뿍 얹어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세요. (장기근속 수당^^)

5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1도 모르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풍비박산 내신 후
그 폐허의 현장에서 걸어 나오시리.

6-7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주님이 내 편이시란 걸 입증해 주신 주님!

전 제 모든 걸 주님께 걸었어요. (울인^^)

나, 기뻐 뛰네.

소리치고 노래하며 주님께 감사하네.

8-9 주님의 백성에게 수퍼파워가 돼 주시는 하나님
택하신 지도자들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돼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주세요.

주님의 유산에 복 내려주세요.

그들을 돌봐 주세요.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세요.

29편

다윗의 시

1-2 브라보, 하나님, 브라보!

신들아, 천사들아, '앵콜!'을 외쳐라. (컹쿨^^)

주님의 영광 앞에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눈부신 능력에 감탄해라.

영광스러운 주님께 걸맞는 예복을 갖춰 입어라. (드레스코드^^)

일동 차렷!

3 물 가운데 천둥처럼 질주하시고

폭우 속 번개로 가로질러 오시는 하나님

찬란한 빛 속 명쾌한 주님 목소리, 빛나는 주님 얼굴

4 고막을 울리는 하나님의 천둥소리

심포니처럼 연주하는 주님의 벼락소리

5 하나님의 천둥소리에 백향목이 넘어지네.
북쪽나라 삼나무를 주님이 쓰러뜨리시네.

6 봄철 놀란 망아지처럼 산맥들이 뛰어오르고
야생 염소처럼 산등성이 펄쩍 뛰네.

7-8 하나님의 천둥이 불을 뿜네.
하나님의 벼락에 광야가 흔들흔들
주님 호통에 가데스광야가 후덜덜덜

9 하나님의 천둥소리에 떡갈나무가 춤을 추네.
요란한 춤사위, 소용돌이치며 흔들리네. 거센 빗줄기에 나뭇잎을 떨구네.
무릎 꿇은 우리, 큰소리로 외치네. "영광!"

10 범람하는 물결 위 하나님 보좌는
권능의 원천
그곳에서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네.

11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네.

30편

다윗의 시

1 하나님, 모든 게 다 주님 덕입니다.
주님이 절 이 난장판에서 구해 주셨네요.
제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2-3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도와달라 부르짖을 때
절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제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무덤에서 절 고집어 내
다시 한번 살려주셨죠.

4-5 너희 모든 성도들아!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 앞에 나아와 감사드려라!
때때로 진노도 하시지만
그 이면엔 평생 가는 사랑이 가득
두 눈 가득 흘러나온 눈물의 밤이
웃음 뿜 낯에게 길을 내주누나.

6-7 모든 게 술술 잘 풀릴 때
제가 소리쳤죠. "성공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주님이 날 산의 왕으로 만드셨어."
하지만 주님이 눈길을 거두시니
제 삶이 뽕각나고 말았네요.

8-10 주께 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 제 사정을 갖고 나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절 팔아 넘기신다 한들,
공동묘지 앞에서 절 경매에 붙이신다 한들,
'흠에서 온 저, 흠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제 노래와 이야기를 파신다 한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절 좀 봐 주세요!
부디 절 여기서 구해주세요!"

11-12 주님이 해 주셨잖아요.
복받치는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셨잖아요.
제게서 장례식 검은 완장 벗기시고
아름다운 들꽃으로 꾸며 주셨잖아요.
제 가슴에서 노래가 터져 나와요.
도저히 입다물고 있지 못하겠어요, 주님께 대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한 주님!

31편

다윗의 시

1-2 하나님, 제가 주께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제발 절 받아주세요.

여기로 내려오셔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지체치 말아 주세요!

단단한 화강암 주님의 동굴은 나의 은신처

높은 절벽 주님의 등지는 나의 안식처

3-5 내가 들어가 숨을 동굴,

내가 올라가 피할 절벽이신 주님

주님, 저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세요.

저의 믿을 만한 산행가이드가 되어 주세요.

감춰진 뗏으로부터 절 지켜주세요.

저는 주님 안에 숨고 싶어요.

제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절 떨어뜨리지 않으시리라 믿고,

절 쓰러뜨리지 않으시리라 믿고....

6-13 이따위 우스꽝스러운 종교행위라면 다 신물이 나요.

오직 하나님, 주님만 믿어요.

주님 사랑의 반경 안에서 제가 기뻐 뛰며 노래해요.

주님이 제 고통을 보시고

절 고문하는 자들을 꺾으셨기에,

절 그들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숨 돌릴 수 있게 해 주셨기에....

절 친절히 대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다시 고난에 빠졌어요. 깊고 깊은 고난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알이 빠져나온 듯
 속이 험한 느낌입니다.
 제 생명이 주르르 새나가고 있어요. 계속되는 신음소리와 함께....
 제 목숨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어요. 끊임없는 한숨소리와 함께....
 제게 닥친 어려움으로 제가 녹초가 되었고
 제가 만난 고난으로 제 뼈가 으스러졌어요.
 제 원수들이 저를 괴물 보듯 하고
 제 이웃들이 저를 놀려대요.
 제 친구들이 절 보고 겁에 질리고
 제 벗들이 절 피해 달아나요.
 그들은 절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나 봐요.
 무덤 속 시체처럼 절 잊고 싶은지
 깨진 접시처럼 절 내버리네요.
 절 두고 입방아 찧는 자들 때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아요.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음모를 꾸며요.
 어떡하면 저를 영원히 파멸시킬지....

14-18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안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한 순간, 한 순간, 매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를 잡으려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절 건져 주세요.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주세요. 전 주님의 종이잖아요.
 저를 구해주세요. 주님 절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악인들을 불러 세워 톡톡이 망신을 주세요.
 그들이 지옥으로 떠내려갈 때
 자기들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고개 젓게 해주세요.
 주님을 추종하는 절 비웃은 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게 야유와 조롱을 퍼부은 자들,

그 허풍선이 떠벌이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19-22 주님 쌓아 놓으신 복, 얼마나 많은지...!

주님 예배자들을 위해 쟁여 놓으셨네.

이 험악한 세상 피해

주님께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려 쌓아 놓고 기다리시네.

그들을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숨겨 주시는 주님

개기름 질질 흐르는 얼굴로 조롱해대는

그들 면전에서 문을 콧 담으시고

독소를 뿜어내는 그들 입을 막으시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사랑은 이 세상 최고의 불가사의!

포위당해 갇힌 채로 전 겁에 질려 말했죠.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하지만 주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

마음 다해 제 애기를 경청해 주셨죠.

23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곁에 머무는 이는 돌봐 주시지만

제 잘난 맛에 사는 거만한 자들에겐

따끔한 맛을 보여주시니까요. (제 잘난 맛=따끔한 맛^^)

24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곧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32편

다윗의 시

1 생각해 봐, 네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네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네 과거가 깨끗이 지워졌잖아?

네가 이제 새출발하게 됐잖아?

2 생각해 봐, 네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뭐든 다 털어놓아도
널 조금도 꾸짖지 않으시잖아?

3 모든 걸 속에 꼭꼭 쌓아 뒀을 땐
내 뼈가 으스러지고
입만 열면 신음소리가 새나왔는데....

4 스트레스 만땅에
진액이 다 빠져 탈진됐는데....

5 하지만 모든 걸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실패를 만회해 주실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압박감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며
내 모든 죄 깨끗이 없어졌잖아?

6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해.
지옥문 열리고 댐이 무너져도
우린 털끝 하나 안 상한 채, 높은 곳에 안전하게 머물 거야.

7 하나님은 날 숨겨 주시는 외딴섬
위험을 바다 저 멀리 쫓아내시고
내 목에 찬양의 화환 걸어 주시네.

8 내가 기가 막힌 충고 하나 해 줄까?
네 눈을 응시하며
시원한 한 마디 던져줄까? (사이다 조연^^)

9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워야만 말을 듣는
말이나 당나귀처럼

고집부리지 마!”

10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늘 문제에 빠져 살지.
하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굽이굽이 인생길마다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단다.

11 하나님을 찬양하자꾸나!
우리 함께 노래하자꾸나!
진실한 마음으로, 지붕이 들썩이도록!

33편

1-3 선한 백성이여, 하나님을 환호합시다!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여, 아름답게 찬양합시다!
기타 연주에 할렐루야 소리 도드라지도록,
그랜드피아노 선율에 찬양소리 어우러지도록!
새로 지은 노래 주님께 올려드리며
트럼펫 팡파르를 올려봅시다!

4-5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 짝 찬 과일 같고
하나님의 작품은 안팎으로 튼실하구나.
만사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주님,
세상이 다림줄처럼 정직하게 돌아가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이
온 땅을 흠뻑 적시누나.

6-7 하늘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졌고
별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튀어나왔지.
바닷물을 당신 주전자에 퍼 담으시고
5대양을 당신 드럼통에 퍼 넣으신 주님

8-9 하나님께 절하여라, 땅의 피조물들아!
무릎 꿇고 엎드려라, 이 세상 거주민들아!
주님 명령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이
주님 지시대로 제자리를 찾았으니....

10-12 바벨의 허풍? 하나님이 바람 빼시고
세상 패권의 계략? 하나님이 격추시키시네.
세상 향한 하나님 계획, 견고히 서고
주님이 손수 하신 설계, 영구히 지속되네.
복이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축복받았구나, 하나님의 상속자인 백성은...!

13-15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둘러보시네.
아담의 자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네.
주님 앉아 계신 하늘에서
땅에 사는 우릴 바라보시네.
사람들을 하나하나 손수 빚으신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시하시네.

16-17 제아무리 군대가 많은 왕도 승전할 수 없어.
제아무리 힘 좋은 전사도 이길 수 없지.
제아무리 군마가 많아도 답이 안 나와.
제아무리 근육질 몸이라도 종이 호랑이일 뿐.

18-19 잘 봐! 하나님의 눈은 주님 경외하는 자를 향하신단다.
주님 사랑 찾는 자를 바라보신단다.
그들이 고난당할 때 당장 출동하시려,
그들이 궁핍할 때 몸과 맘을 지켜주시려....

20-22 우리는 의지할 거야, 하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분, 주님!
뭐가 더 필요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겉로 삼아
마음에 이토록 기쁨이 넘쳐나는데...?

하나님, 온 맘 다해 우릴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의지할 건 주님 사랑뿐이니....

34편

다윗이 아비멜렉을 속였다가 쫓겨난 후 쓴 시

1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해요.
허파가 하나님 찬양으로 부풀어 오르도록....

2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을 호흡해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나요? 이 찬양을 듣고 힘을 내세요!

3 저와 함께 이 소식을 전파해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전해요!

4 하나님이 달려나오셔서 날 만나 주셨어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5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세요.
당신의 감정, 하나도 주님께 숨기지 마세요.

6 내가 절망에 빠져 부르짖을 때
날 곤경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7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릴 둘러싸 보호막을 설치하죠.

8 입을 벌리고 한번 맛보세요. 눈을 뜨고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주님께 달려가는 그대, 정말 복이 터졌네요.

9 최고를 원하나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예배로 그 선하심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요.

10 젊은 사자라도 배가 고파 먹이를 찾아 나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으로 늘 배가 부르죠.

11 아이들아, 이리 오렴. 이리 와 자세히 들어 보렴.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12 거기 누구 없나요, 생명을 사모하는 이...?
그대, 간절히 원하나요, 매일 마주칠 아름다움을...?

13 혀를 조심스레 놀리세요, 욕설을 내뱉지 않게!
입을 다무세요, 이 사이로 거짓말이 나오지 않게!

14 죄악을 떠나 선을 행하세요.
화평을 끌어안고, 놓치지 마세요.

15 하나님은 친구에게서 눈길을 안 떼시고
고통소리,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16 하지만 반역자들은 용납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려내 쫓아내시죠.

17 도와달라 울부짖는 이 있나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구출작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세요.

18 그대, 마음이 찢어지나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대, 마음이 주저앉나요? 한숨 놓을 수 있게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19 주님 제자들이 빈번히 고난당하는 곳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세요.

20 하나님은 그대의 보디가드, 뼈마디 하나하나를 감싸주시죠.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21 선한 사람 미워하는 데 세월을 보내는 자들
그런 악인들은 서서히 자멸하게 돼 있죠.

22 노예의 몸값을 빠짐없이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달려가는 자, 결코 손해볼 리 없습니다.

35편

다윗의 시

1-3 하나님, 이 망할 놈들을 혼내 주세요!
그들의 면전에 주먹을 날려주세요!
무기가 될 만한 것 뭐든 거머쥐시고
절 위해, 저를 위해 일어나 주세요!
창을 던지세요, 단창을 겨누세요.
절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
'내가 널 구해주마!'라고 말씀해주세요.
절 안심시켜 주세요.

4-8 제 등에 비수를 꽂으려는 강패들 수작을
바보천치 짓거리로 만들어 주세요.
저를 몰락시키려는 자들의 음모를
말짱 도루묵이 되게 해주세요.
용광로 불 지피는 천사를 통해
그들을 강풍에 흩날리는 잣더미로 만드세요.
그들이 가는 길 천사의 추격받아
칠흑 같이 어두운 진창길 걷게 하세요.
무고한 저를 욕하며 함정을 판 자들
이유 없이 제 길에 구덩이를 판 그들

주님이 매복했다가 급습해주세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해주세요.
절 망하게 하려던 계획을 스스로 뒤집어쓰게 해주세요.

9-10 하지만 저는 자유로이 달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내 몸의 모든 뼈들 노래하며 뛰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악당들로부터 악자를 보호하시는 주님!”

11-12 적의를 품은 고발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득달같이 달려들어 괴롭힙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들이
제 영혼을 탈탈 털어갑니다.

13-14 그들이 병들었을 때 저는
검은 옷을 입고 금식기도까지 해 줬건만....
내 절친, 내 형제를 잃은 듯
납덩이에 눌린 가슴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건만....
엄마 없는 아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어깨 축 늘어뜨리고 서성였건만....

15-16 하지만 제가 쓰러지자, 그들은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벌였죠!
마을의 이름없는 부랑자들 떼거지로 몰려와
저를 모욕하는 주문을 외웠죠.
성소를 모독하는 야만인처럼
그들이 제 이름에 먹칠을 했죠.

17-18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계실 건가요?
그들의 잔혹행위에서 절 구해주세요.

제가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있단 말예요!

모두가 예배하러 모일 때

주님의 신실하심 선포할게요.

사람들이 대거 모여들 때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칠게요.

19-21 이 거짓말쟁이들, 내 원수들이
나로 인해 파티를 벌이지 못하게 하세요.

이유 없이 날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윈크하며 눈짓하지 못하게 하세요.

저 따위 인간들,

선한 게 전혀 없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이 혈뜰으며

귀한 세월 허투루 낭비하지요.

저들이 기분 나쁜 미소 지으며

입을 크게 벌려 조롱하네요.

“하하, 하하, 어딜 빠져나가려고?”

넌 독 안에 든 쥐야!”

22 저들의 소행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저들을 그냥 빠져나가게 놔두진 않으실 거죠, 주님?

아무런 조치 없이

저들을 놓아주진 않으실 거죠, 주님?

23-26 제발 일어나세요, 잠에서 깨어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요!

주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들이 나로 인해 ‘신난다, 좋아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이렇게 혼잣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얼씨구,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됐구나.”

저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저자의 단물만 빼먹고 뺏았구나.”

저로 인해

흥청망청 즐기는 저들에게
당나귀 귀를 달아
되려 웃음거리로 만들어 주세요.
잘난 척, 센 척하는 저들에게
당나귀 꼬리를 달아주세요.

27-28 하지만 절 축복하는 이들은
기쁨의 환성을 외치게 해주세요!
그들이 최후에 기쁨의 탄성을 외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치게 해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네!”
저, 알리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신 분인지....
저, 외치립니다. 날마다, 온종일 할렐루야를!

36편

다윗의 시

1-4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폭동에 가담하네.
그들 귀는 온통 죄악된 말에만 쏠리지.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라곤 전혀 없이
주님 앞에 무례하게 나서지.
자기의 사악함이
들키지 않을 거라 믿으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인다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더러운 구정물
그가 점잖은 행동을 한 게 언젠지
기억조차 할 수 없구나.
잠자리에 들 때마다

또 다른 사악한 음모를 꾸미니
그가 길거리를 헤집고 다니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
재미삼아 하는 불장난에
누가 다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5-6 하나님의 사랑은 찬란하고
주님의 신실함은 끝이 없어.
그분의 목적은 웅장하고
주님의 평결은 광대하지.
그 광활함 속에서도
뭐 하나 놓치시는 법 없어.
단 한 사람도, 생쥐 한 마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7-9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고상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열망하는지요, 주님 날개 아래로 달려가길....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는지요, 에덴동산 샘물로 우리의 물통을 채우시며
주님 베푸신 연회에서 배불리 먹길....
폭포처럼 쏟아지는 빛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 그 빛 보게 하시는 주님!

10-12 주님의 친구들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주님 환영하는 이들 통해 일해 주세요.
악당들이 절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부도덕한 자들이 절 때려눕히지 못하게 하세요.
무례하고 비열한 자들을 흘으셔서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게 하세요.

37편

다윗의 시

1-2 그대, 허풍 떨며 거들먹거리는 자에게 관심 갖지 말게나.

악인들처럼 성공하길 바라지도 말고....

그들은 잔디깎이에 잘린 풀처럼 곧 쇠하고

햇빛 아래 꺾인 꽃처럼 얼마 못 가 시들고 마니....

3-4 자네의 보험은 하나님! 그러니 선한 일을 하게나.

마지막 순간까지 차분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게나.

5-6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 털어놓게나.

주님이 필요한 조치 다 취해 주실 테니....

청명한 빛 가운데 그대의 삶 인정해 주시고

환한 대낮에 승인도장 찍어 주실 테니....

7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보게나.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게나.

정상에 오르려고 안간힘 쓰는 자들? 그거 별거 아냐.

8-9 화내기를 멈추고 분노를 식이게나.

사사건건 열불을 내면 사태는 악화될 뿐....

악인들은 머잖아 파산하지만

하나님께 투자한 자들은 기업 오너가 될 거야.

10-11 악인들은 순식간에 망하고 말 거야.

한때 그렇게 요란했던 그들 자리? 삼시간에 사라지고 말 거야.

겸손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그들이야말로 엄청난 대박을 맞게 될 거야.

12-13 선인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 나
마음에 늘 앙심을 품고 사는 악인들
하나님이 코웃음을 치시는구나.
실속 없이 빈 껍데기인 그들을 향해....

14-15 악당들이 허세 떨며 칼 휘두르고
활을 당겨 화살을 쏘대는구나.
무고한 자들을 때려 눕히고
개 끌고 산책하는 선량한 사람 위협하는구나.
그러다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고꾸라지니
'도덕 서커스'의 익살꾼 신세로구나.

16-17 적은 것은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은 적은 것이라네. (뭔가 심오한^^)
한 사람의 의인이 악인 50명을 이기는 건,
악인들은 도덕적으로 허약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으로 강인하기 때문이라네.

18-19 선인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네.
그들은 곤경에 처해도 당당히 고개 들고
냉장고가 비어도 늘 배가 부르지.

20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호된 벌을 받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끝장나고 말아.
추수철 포도나무처럼 탈탈 털린 채
허공 속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아.

21-22 악인들은 꾸고 또 꾸고
의인들은 주고 또 주지.
결국엔 베푸는 자가 모든 걸 차지하고
종래는 인색한 자가 모든 걸 잃고 말지.

23-24 성도의 가는 길 하나님과의 동행길
하나님이 그의 길 밝히시니 마냥 행복해.
잠시 비틀거리긴 해도 오래 주저앉진 않아.
하나님이 그 손 붙잡고 계시니까....

25-26 한때 이팔청춘이었던 내가 백발노인이 되도록,
평생토록, 성도가 버림받는 걸 본 적 없어.
성도의 자녀가 방황하는 것 또한 한번도 본 적 없지.
날마다 주고, 주고, 또 주는 사람은
자녀들도 자랑스럽게 성장하니까....

27-28 악은 돌아보지도 말게나.
선을 위해 일하되 포기하지 말게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사랑하시고
절대 친구를 저버리지 않으시니까....

28-29 선하게 사는 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싹수가 노란 자는 뽑히고 말겠지만....
선하게 사는 이, 좋은 땅에 심겨져
깊이 뿌리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거야.

30-31 개가 종일토록 뼈다귀를 핥듯, 의인들은 온종일 지혜를 음미하지.
아이가 즐겁게 사탕을 빨아먹듯, 의인들은 기쁨으로 미덕을 즐긴다네.
고동치는 심장 온 몸에 피를 보내듯, 의인의 심장에선 하나님 말씀 박동치니
그의 발은 고양이처럼 흔들림이 없다네.

32-33 악인은 의인을 염탐하며
죽일 틈을 찾지만
하나님 역시 철통감시 하시니
악인이 의인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34 하나님을 기다리게나, 열정을 잃지 말고....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말게나, 주님의 길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공식석상에 앉아
악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꼴 지켜보게 되리니....

35-36 악인들이 허풍 떨더군. 뽕뽕하게 부풀린 두꺼비 몸처럼....
그들이 헛소리를 늘어놓더군. 어불성설, 말 같잖은 소리를.... (말인지, 막걸리인지^^)
하지만 다음 순간 다 사라져 버렸지.
터진 물풍선처럼 축 늘어지고 말았지.

37-38 건전한 사람을 주시하며
그의 올곧은 삶 관찰하게나.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곳,
거기에 밝은 미래 있지만,
완고한 자 버려져 쓰레기 신세
건방진 자 가는 곳, 막다른 골목

39-40 드넓고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그런 삶은 안전하게 보호받게 돼 있다네.
주님 품에 달려갈 때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릴 악에서 건지신다네.

38편

다윗의 시

1-2 하나님, 심호흡 한번 하시고 진정하세요.
회초리 드시는 것 좀 참아주세요.
날카로운 화살, 주님의 책망의 화살에 피가 줄줄 나고
주님의 징계에 등이 따끔거려요.

3-4 주님의 책망을 받아
두 달 만에 10kg이 빠졌어요. (저절로 다이어트^^)
제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아요, 마른 막대기처럼....

다 제 죄 때문이죠.
전 나쁜 행동에 빠진 후
줄곧 죄책감에 짓눌려왔어요.

5-8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우글거려요.
그동안 제가 너무 나빴기 때문이죠.
지금 전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쓰러져 있어요.
온종일 슬픔에 빠져 지내죠.
속이 불붙는 듯
온몸이 말이 아니에요.
기진맥진,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요.
내 삶이 토해내는 건 오직 신음뿐....

9-16 주님, 제 소원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신음을 토한 게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당장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아요.
완전 탈진됐다구요!
백내장으로 눈이 흐려져 하나님도, 선(善)도 볼 수가 없어요.
오래된 친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보듯 절 피해요.
친척들도 절 찾는 이 없고
이웃들도 제 등에 칼을 꽂아요.
제 경쟁자들이 제게 누명을 씌우면서
제 파멸을 위해 기도하네요.
하지만 저는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된 듯
귀도 막히고 입도 닫혔어요.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하지만 전 그들 말을 듣지 않아요.
한 마디도 대꾸하지 않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이 절 비웃지 못하게 해달라고,
제가 비틀거릴 때 저들이 거들먹거리며 지나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17-20 정말 미칠 것만 같아요.

오장육부가 불타는 듯 고통스러워요.
전 지금 제 잘못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죄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원수들이 기세등등, 행동에 돌입했어요.
폭도들이 다가와 제 목을 조르려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건만,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네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못 견디니까요.

21-22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 절 바람맞히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어서요!
탁 트인 곳, 드넓은 곳으로 제 삶을 인도해주세요.

39편

다윗의 시

1-3 저는 발걸음도, 입놀림도 조심하기로 했어요.
악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그들이 제 곁에 있는 한
허를 함부로 놀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입 꼭 다물고 있자'라며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제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태는 더 악화되었죠.
울화가 치밀어 올라
참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 토로하고 말았죠.

4-6 하나님! 이게 무슨 영문인지요?
제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나요?
저의 죽을 날을 알려 주세요.
주님이 제 수명 단축하셨으니

구원받기엔 제 목숨줄이 너무 짧네요.

오, 우리는 그저 한 줌의 공기

오, 우리는 한낱 모닥불 그림자

오, 우리는 그냥 한 줄기 바람

애써 쌓은 걸 다 놓고 떠나야 한다네.

7-11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뭘까요, 주님?

기대! 그것밖에 제가 더 할 게 있을까요?

이 패역한 삶에서 절 구해주시길,

저 바보들의 비웃음에서 절 구해주시길....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이제 입다물고 있을게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것 같군요.

주님이 우리 죄 씻어주시려

우릴 불 가운데 세우실 때

우리가 그토록 아끼던 우상들은 한낱 연기가 되어 피어오를 것을!

우리 역시 그저 한 줄기 연기에 불과한 것을...!

12-13 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 눈물을 봐 주세요.

냉담하게 굴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저는 나그네,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방랑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 좀 쉬게 해주세요. 숨통 좀 트이게 해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40편

다윗의 시

1-3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주님이 보시고 내 부르짖음 들어주셨네.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셨네.

나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네.

최신곡으로 주님 노래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 알려주셨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비의 세계로 들어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네.

4-5 세상이 보장하는 것들을 뒤로 한 채,

세상이 숭배하는 것들을 무시한 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대들은 복받은 자들이어라!

하나님의 경이로움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가득 찬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주님께 건줄 수 없어요!

제가 주님께 대한 얘기를 시작하지만, 주님께 대해 아는 바를 얘기하지만,

곧 말문이 막혀 버리고 만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숫자로도,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요.

6 주님 위해 뭔가를 하는 것? 주님께 뭔가 갖다 드리는 것?

그런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종교인이 되는 것? 경건한 척 품잡는 것?

그 역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제 귀를 열어주신 덕에

전 이제 또렷이 들을 수 있습니다.

7-8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갑니다.

주님이 저에 대해 쓰신 편지를 제가 읽고
주님이 절 위해 여신 파티에 참석하러 갑니다.”

그때 제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지요.

9-10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온 공동체 앞에서 제가 주님에 대해 설교했던 걸,

아무 숨김없이 주님 전했던 걸....

제가 '주님의 길'에 대한 뉴스를 비밀에 붙이지 않았던 걸, (언론의 자유^^)

저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던 걸,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광고대행사^^)

주님의 사랑과 진리, 하나도 남김없이 말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사려 깊은 분인지

온 공동체에게

이 모든 이야기 다 들려줬잖아요.

11-12 그러니 하나님, 제게 숨기지 마세요.

주님의 열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저를 지탱하게 해 주는 건

오직 주님의 사랑과 진리뿐이니깐요.

제게 고난이 닥칠 때

제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전 죄책감에 눌러

어둠 속을 헤맸어요.

내 마음의 죄악이 머리칼보다 많아 (대머리는 더 심할 듯^^)

무거운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지요.

13-15 하나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절 좀 도와주세요.

빨리 오셔서 도와주세요.

제 영혼 채가려는 자들이

낮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게 해주세요.

절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자들이,
제가 망신과 수치를 당하고
파멸에 이르길 기도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롱과 야유를 당하게 해주세요.

16-17 하지만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
오, 그들은 기뻐하며 노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그들
주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세상에 전하게 해주세요.
완전 영광인 저,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저,
그런 저를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주세요! (이왕이면 '핵인싸'로 ^^)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빨리요!

41편

다윗의 시

1-3 불행에 처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세요.
그럼 그대도 행복해질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돌봐 주시고
우리 삶을 안정되게 해 주시죠.
원수에 대해 걱정할 필요없게 하시니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행복이죠.
우리가 앓아 누웠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간병인 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봐주세요.

4-7 제가 이렇게 아뢰었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절 회복시켜 주세요.
죄악이 절 갈갈이 찢어 놓았어요."
내 원수들은 내가 폭망하길 바라며

저의 죽을 날을 놓고 내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마다
영혼없는, 입에 발린 말만 늘어놓네요.
저잣거리 사람들 귀 즐겁게 해 줄
제 험담거리나 찾고 있네요.
저를 미워하는, 소위 '친구'라는 작자들이
저를 중상모략하는 말을 동네방네 퍼뜨리고 있어요.
절 불행에 빠뜨리려 작심한
조직까지 결성했다는군요.

8-9 마침내 이런 소문까지 났다네요.
"저 사람이 더러운 병, 죽을 병에 걸렸대.
의사도 포기했다는군."
내 모든 걸 털어놓던 나의 절친조차
-항상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던 그 친구가-
내 손을 물어뜯을 줄이야...!

10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절 좀 일으켜 주세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11-12 하나님이 제 편이심을 믿습니다.
아직 적진에서 승전고가 울리지 않았잖아요?
저를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절 붙들어 주시는 주님,
저를 주님 앞에 우뚝 세우셔서
주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는 주님!

13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늘,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아무렴,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제2권

42편

고라 자손의 시

1-3 흰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하나님을 마시고 싶어요.

하나님을 깊이 들이키고 싶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목이 말라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마신다는 게...?”

저는 지금 눈물로 끼니를 때우고 있어요.

아침 메뉴도 눈물, 저녁 메뉴도 눈물.... (원푸드 다이어트^^)

온종일 사람들이

우리집 문을 두드리며

성가시게 굴어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4 내 삶의 주머니 비우면서

끊임없이 묵상해 봅니다.

제가 늘 선봉에 서서 예배했던 것을,

무리의 맨 앞줄에 서서 예배하던 것을,

빨리 가서 예배하고파

모두를 이끌던 것을,

큰소리로 찬양하고, 감사로 노래하던 것을,

다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던 것을....

5 내 영혼아, 너는 왜 진창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 거니?

왜 슬픔에 빠져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니?

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봐!

그럼 머잖아 다시 찬양하게 될 테니....

주님은 날 미소 짓게 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니까....

6-8 내 영혼이 진창에 빠질 때마다

전 주님께 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목상한답니다.

저 깊은 요단강부터 저 높은 헤르몬산까지

아, 미살산도 빼놓을 수 없죠.

혼돈이 혼돈을 부릅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는 급류의 곡조에 맞춰....

부서지는 파도, 귀청 찢어질 듯한 천둥소리에 제가 부서집니다.

제가 산산이 깨집니다.

다음 순간,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언제나 절 사랑하시겠다고....

밤새도록 찬양하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곧 나의 삶이니....

9-10 때때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주님, 왜 저를 쓰러뜨리셨나요?

제가 왜 원수들에게 괴롭힘 당하며

눈물바다 속을 휘젓고 다녀야 하는 거죠?”

원수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살기등등해 다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조롱을 해댑니다.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11 내 영혼아, 너는 왜 진창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 거니?

왜 슬픔에 빠져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니?

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봐!

그럼 머잖아 다시 찬양하게 될 거야.

주님은 날 미소 짓게 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니까....

43편

1-2 제 오명을 벗겨 주세요, 하나님!

절 대신해 이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을 맞서 주세요.

절 여기서 꺼내 주세요.

이 사기꾼 강패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주님을 믿었건만

주님은 왜 절 버리고 떠나셨나요?

왜 저를 이 무법자들 손에

끌려다니게 하시나요?

3-4 제게 주님의 랜턴과 나침반을 주세요.

지도도 함께 주세요.

거룩한 산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계신 곳 찾아갈 수 있도록

예배당에 들어가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프를 연주하며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도록

5 내 영혼아, 너는 왜 진창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 거니?

왜 슬픔에 빠져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니?

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봐!

그럼 머잖아 다시 찬양하게 될 거야.

주님은 날 미소 짓게 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니까....

44편

고라 자손의 시

1-3 하나님, 우린 평생토록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그들 조상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 땅의 불경건한 자들을 단칼에 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몰아내셨는지,
그리고 이곳에 우리를 어떻게 심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새출발하게 해 주셨는지....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죠.
아무 것도 안 한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죠! (빨대뽑기^^)
이 땅은 주님이 주신 거라구요!
주님이 함박웃음 가득 지으시면서,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하시면서....

4-8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
야곱에게 승리를 명해주세요!
주님의 도움으로 우린 적군을 무찌를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린 그들을 짓밟을 거예요.
최첨단 무기? 전 그딴 거 안 믿어요!
스텔스 전투기? 그게 절 구해주는 게 아니죠.
적군에게서 저를 구해 주실 분은 주님,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제대로 망신 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온종일 하나님 찬양의 퍼레이드를 펼치며
주님 이름에 감사, 감사한답니다.

9-12 그러던 주님이 우릴 떠나시다니...!
우릴 위해 싸우시기는커녕 도리어 우리에게 치욕을 주시다니...!
이렇게 모냥빠지게 도주하게 하시다니...!
우릴 미워하는 자들에게 박살나게 하시다니...!
도살장에 양들을 넘기시듯 우릴 넘기시고

우릴 사방으로 쫓아내다니...!
주님의 백성을 혈값에 팔아 버리시다니...!
우릴 공짜로 넘겨 주시다니...!

13-16 주님의 백성을 거리로 내모셔서
우릴 알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게 하시다니...!
우리가 불경건한 자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다니...!
저속한 자들 사이에 오가는 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다니...!
너무 수치스러워 단 하루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뒷담화와 조롱이 사방에 가득하고
절 잡으러 나온 사람들로 거리가 넘쳐나는 걸요?

17-19 이 모든 일이 저희에게 닥치다니...!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는 단 한번도 주님과 의 언약을 배신한 적 없고
우리 마음은 늘 진실했으며, 우리 발은 한번도 주의 길을 벗어난 적 없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늑대소굴에서 고문을 당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블랙홀에 갇혀야 하나요?

20-22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잊은 적이 있다면,
가게에서 파는 우상에게 미혹당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가 없죠.
주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걸요.
그런데도 주님이 절 순교자로 삼으시고
상번제 희생양으로 지목하시다니...!

23-26 일어나세요, 하나님! 하루 종일 주무시고 계실 건가요?
깨어나세요! 주님은 우리한테 닥친 일에 일말의 관심도 없으신가요?
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계시나요?
왜 우리가 무탈한 것처럼 행동하시나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진창에 얼굴 처박고 쓰러진 채,
적의 군화발에 목덜미가 짓밟힌 채....

일어나세요, 오셔서 저희를 구해주세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릴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45편

고라 자손의 결혼축가

1 아름다움과 선함이

내 마음의 강둑까지 차올라 흘러 넘치네.
그걸 시에 담아 나의 왕께 드리네.
나의 시가 강물 되어 흘러 넘치네.

* * *

2-4 세상에서 가장 흰칠하신 우리 임금님

전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마다 은혜로군요.
하나님께서 전하께 복을 주셨네요. 이리도 많은 복을 주셨네요.
용감한 전사시여! 옆구리에 칼을 차세요!
환호를 받으며, 마땅한 영예를 받으세요!
위풍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진리의 편에 서세요!
정의와 온유 편에 서서 달리세요!

4-5 전하의 가르침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전하가 쏜신 예리한 화살
적의 심장을 뚫습니다.
전하의 적들이 맥없이 진흙탕에 쓰러집니다.

6-7 전하의 왕좌는 하나님의 왕좌

영원무궁토록!
전하의 통치의 হল은
올바른 삶의 기준

전하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전하의 하나님이
전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지요.
전하의 친한 벗들 가운데
전하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지요.

8-9 숲내음에 흠뻑 젖은 전하의 옷
살랑이는 바람에 향기를 발하고
왕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전하의 흥을 돋우어 춤추게 하네요.
전하의 딸들이 왕궁에서 시종들고
전하의 신부는 칠보단장으로 환히 빛나네요.

* * *

10-12 잘 듣거라, 딸아, 한 마디도 놓치지 말고!
이제 네 고국은 잊거라, 고향은 뒤로 하거라. (출가외인^^)
전하가 널 애타게 기다리시는 이곳
이제부터 전하가 네 주인이니, 전하만을 사랑하거라.
두로에서부터 결혼 선물이 쏟아져 들어오는구나.
부유한 하객들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구나.

13-15 (아, 눈부셔라, 신부의 웨딩드레스!
장인들이 금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았네.
신부의 드레스와 예복 일체를
온통 금실로 만들었네.
이제 신부를 임금님께 데려가니
신부의 처녀친구들도 따라가네. (결혼식 하객룩^^)
환희와 웃음의 행렬!
왕궁으로의 화려한 입장!)

16-17 이제부터 전하는 아들들에게만 마음 쓰세요.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는 연연해하지 마세요.
전하의 아드님들을 왕자로 세워야 하니....
온 세상 다스리는 제후로 세워야 하니....
전하를 유명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
전하를 장안의 화제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아주 오랫동안....

46편

고라 자손의 노래

1-3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울 준비 되어 계시지.
죽음의 벼랑 끝에서도 두려움 없이 서 있고,
폭풍과 지진 가운데,
포효하며 돌진해 오는 파도 앞에,
흔들리며 요동치는 산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그건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릴 위해 싸우시고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우릴 보호하시기 때문....

4-6 강과 샘에서 솟아난 기쁨
하나님의 도성-지존자의 거룩한 처소를 시원케 하네.
하나님이 사시는 이곳, 모든 거리마다 안전해.
새벽 동틀녘부터 우릴 도와주시는 하나님
불경건한 나라들이 제아무리 위협해도, 왕들과 나라들이 협박하며 겁을 줘도
세상은 주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걸?

7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 우릴 위해 싸우시며
천군천사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네.

8-10 일동 주목!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세요!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신 주님

북극부터 남극까지 전쟁을 금하시니
주님의 무릎 아래 무기들이 박살나네.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보거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네 하나님을 살피거라.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11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 우릴 위해 싸우시며
천군천사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네.

47편

고라 자손의 시

1-9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브라보! 최고최고!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존자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육지와 바다를 활보하시네.
원수의 무리들을 쳐부수시고
대적하는 나라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리시네.
우리를 선봉에 세우시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야곱에게 상을 주시네.
하나님이 산을 오르실 때 환호성이 귀를 찢르고
숫양 뿔나팔 소리 산꼭대기에서 울려 퍼지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우리 왕께 찬송을 올려드려라!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불경건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산들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지.
온 세상 왕들이 모여드네.
그들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라네.
땅의 권세들도 다 하나님의 것
온 세상 위에 우뚝 서 계시는 주님

48편

고라 자손의 시

1-3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이 넘쳐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성 안에...!
주님의 거룩한 산은 이 땅의 기쁨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주님의 산
북쪽에 높이 솟은 시온산은
온 세상 왕이신 주님의 도성
높은 성채에 계신 하나님을 당할 자
그 어디 있을까?

4-6 왕들이 동맹을 맺고 물려왔지만,
연합군을 조직해 들이닥쳤지만,
슬쩍만 보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갔다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휩싸인 채로....

7-8 주님이 동쪽에서 돌풍을 일으키시니
다시스의 배들이 박살났구나.
소문으로만 듣던 걸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됐구나.
천군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그 견고한 기반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 안에서....

9-10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서
행동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할렐루야 기차'가 달려옵니다, 하나님.

온세상에 울려퍼지는 기적소리
주님의 팔에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선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11 기뻐해라, 시온산아!
춤 추어라, 유다의 딸들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단다!

12-14 시온의 둘레를 재 보자구나.
시온의 망대들을 세어 보자구나.
경사진 방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요새 꼭대기에 오르자구나.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자구나.
디테일을 살려 생생하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얘기를....

49편

고라 자손의 시

1-2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지구촌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다 함께 들어보세요.

3-4 내가 여러분 앞에 확실한 지혜를 두었어요.
삶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현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제가
하프를 뜯으며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릴게요.

5-6 사악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도,

못된 불량배에게 에워싸여도,
오만한 부자들에게 갑질을 당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난 전혀 두렵지 않아요.

7-9 맞아요! 스스로 구원할 길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 잡아올려도 아무 소용없듯....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설사 비용을 지불한다 해도 구조되리란 보장이 없어요.
블랙홀에서 우리를 건져 줄
영원한 생명보험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10-11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자들도 언젠간 죽기 마련
죽음 앞에선 우매한 자와 다를 바 없지.
그렇게 자랑하던 재능도 아무 소용없어.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었다 해도
그들이 이사할 집은 무덤 속 관,
그들의 영원한 주소지는 공동묘지!

12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의 삶은 결코 오래가지 않아.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처럼 우리 역시 늙고 약해져 죽고 마는 걸...?

13-15 이게 바로, 순간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벌어질 일
제 한 몸 챙기다 맞게 될 운명
양떼를 모는 목자처럼 죽음이 그들을 지옥으로 모네.
무덤이 그들을 삼키고 마네.
점점 약해지다 결국 무(無)로 돌아갈 뿐....
그들이 남긴 거라곤 무덤가 묘비가 전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죽음의 손아귀에서 날 낚아채신 후
손을 뻗어 잡아 건져 주시지.

16-19 그러니 부자들을 보고 경탄할 것 없어.
명성이나 재산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
그들은 이런 걸 하나도 못 가져가.

명예도 재물도 다 두고 떠나야 해.
마침내 뭘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들 업적 찬양하는 순간,
가족 묘지에 들어간 그들
다시는 빛조차 못 보는 신세

20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의 삶은 결코 오래가지 않아.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처럼 우리 역시 늙고 약해져 죽게 되는 걸...?

50편

아삽의 시

1-3 신들의 신, 하나님이 '지구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네.
동쪽에선 태양에게 환영인사를 건네시고
서쪽에선 그에게 작별을 고하시네.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온산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입장하시네.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시네.
화려한 불꽃놀이, 주님의 입장을 환영하네.

4-5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임명하시고
주의 백성을 법정으로 데려오신 후 하시는 말씀
"성경책에 손을 얹은 성도들,
내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은 다 모여라!"

6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이 법정,
온 우주가 공정함을 증언한다네.

7-15 "사랑하는 백성아, 듣고 있니? 내가 이제 연설을 시작하마.
이스라엘아, 듣고 있니? 내가 이제 너희를 재판하마."

이분이 바로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네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란다.
 “너의 예배에서 잘못을 찾을 수 없구나.
 네가 자주 드리는 번제에서도 오점을 발견할 수 없구나.
 그런데 내가 왜 극상품 수소를 원하겠니?
 내가 왜 네 가축떼 중 더 많은 염소를 원하겠니?
 숲 속 피조물이 다 내 것인데,
 산속 야생동물이 다 내 소유인데....
 산에 사는 새들 이름 내가 다 알고
 쫓르륵 달려가는 들쥐도 내 친구인데....
 내가 배고프다며 네게 구걸하겠니?
 모든 창조물, 그 현상금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사슴고기나 먹으며 잔치할 것 같아?
 염소 피나 마시며 축제를 벌일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건 찬양의 잔치
 나의 신실함에 대한 기쁨의 향연
 너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는 외침
 나의 도움에 대해 너희가 내게 돌리는 영광!”

16-21 그 다음 하나님이 악인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 율법을 들먹여가며 뭘 하는 게야?
 우리가 무슨 친한 친구인 양 말하다니...?
 내가 너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한번도 열어주지 않더니?
 내 얘기를 쓰레기 취급할 때는 언제고...?
 너희는 도둑을 알게 되면 친구로 삼고
 간음하는 자 데려다가 벅삼았잖아?
 너희 입에서 오물이 줄줄 흘러나오는구나.
 거짓말을 무슨 행위예술인 양 진지하게 하고 있구나.
 형제의 등에 비수를 꽂고
 어린 누이의 가축을 벗겨 먹는구나.
 그동안 이런 짓을 해도 내가 잠자코 있었더니
 마치 내가 너희 장난에 동조한 것처럼 착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포토라인으로 불러내
너희 악행을 온천하에 공개하련다. (하나님의 기자회견^^)

22-23 이제 더 이상 나랑
밀땅할 생각은 말거라.
내가 선고 내릴 준비가 되었건만
너희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구나.
나를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찬양의 삶을 살거라.
찬양의 길에 네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의 구원이 비로소 눈에 들어올 테니...."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원나잇'을 한 후 예언자 나단의 질책을 듣고 쓴 시

1-3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 제 더러운 과거를 지워주세요.
저의 죄목들을 박박 문질러 씻어주세요.
저의 죄악들을 주님 세탁기에 빨아주세요. (이왕이면 드럼세탁기로^^)
제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죄가 늘 저를 노려보고 있으니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대!^^)

4-6 제가 죄를 지은 대상은 바로 주님이며
저의 사악함을 빠짐없이 지켜보신 분도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증거자료 갖고 계시니 (뽀박^^)
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셔도 공정합니다.
전 오랫동안 주님 길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
제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진실된 삶을 잉태해주세요.

7-15 저를 주님의 빨래통에 꼭 담가주세요. (락스도 첨가^^) 깨끗한 모습 되도록!

저를 때밀이타올로 박박 문질러 주세요. 눈처럼 깨끗한 삶 되도록!

부러진 제 뼈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의, 하나님^^)

탭댄스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도록

제게서 흠을 찾지 마세요.

제게 깨끗한 건강검진표를 주세요. (마음내시경 포함^^)

하나님, 제 안에서 새로이 시작해주세요.

혼돈에 빠진 제 삶에 '새로운 창조의 한 주간'을 허락해주세요.

절 쓰레기처럼 버리지 마시고

제게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세요.

어둠 속 포로지에서 절 데려와

순풍에 돛 단 듯 항해시켜 주세요.

반역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길 잃은 자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제게 내려진 사형선고를 거두어 주세요. (대통령 특별사면^^)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주의 길에 대해 찬송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주세요!

주님 향한 찬양을 쏟아낼 수 있도록....

16-17 마지 못해 드리는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그게 아무리 '완벽한 쇼'라 해도....

제 교만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에야 비로소

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 삶

그거야 말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죠.

18-19 주님, 시온을 기뻐해주세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주세요.

그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

크고 작은 예배를 드릴게요.

주님의 제단에 올릴

모든 수소들과 함께....

52편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일켰을 때 다윗이 쓴 시

1-4 '잘난 자'여! 그대는 왜 악행을 자랑하는가?

결국엔 하나님의 자비가 승리할 텐데?

재앙을 도모하며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혀를 놀려대는 그대

진정 거짓의 달인이구나.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흰 걸 보고 검다 하고

악의적인 험담하길 좋아하는 그 입

더럽기가 한이 없구나.

5 하나님이 당신을 능지처참하실 거야.

흔적도 없이 당신을 쓸어버리실 거야.

생명의 땅에서 당신을

뿌리째 뽑아내실 거야.

6-7 선한 이들이 그걸 보고 주님을 경배할 거야.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음지을 거야.

"잘난 자가 엉뚱한 말에 돈을 걸었군.

거액을 베팅했다가

파멸을 자초했구먼."

8 하지만 나는?

하나님 집에서 푸르게 자라나는 올리브나무

내가 믿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9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이 손써 주심에 감사드려요.

저, 이곳에 머물 거예요.
주님의 신실한 벗들과 함께....
주님의 선한 이름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기에....

53편

다윗의 시

1-2 저들이 교만하게 뺑을 치네.
“신은 죽었다.”
허풍의 독가스로
자신을 속이고
강과 하늘에 독을 탄 그들
수확물로 엉겨쥔 거두는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고개 내미시고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펴보시네.
어리석지 않은 자 어디 없는지 두리번두리번 찾고 계시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남자,
주님 위해 준비된 한 여자를 찾고 계시네.

3 하지만 빈손으로 올라오시네.
허탕만 친 채 올라오시네.
쓸모없는 양들, 목자 잃은 양들,
너나할 것 없이 목자 행세하는 그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멋에 취해 길을 가누나.

4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걸까?
이 모든 포식자들은?
사람이 무슨 패스트푸드나 되는 양
허겁지겁 기도도 안 하고 먹어치우네.
정말 모르고 저러는 걸까?

이러다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5 밤이 오면 그들에게 악몽이 닥치리.
결코 깨지 못할 악몽에 시달리게 되리.
하나님이 이 무단침입자들 몰아내시리니,
영원토록 그들을 쫓아내시리니....

6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은 누구일까?
바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덕에 인생이 바뀐 야곱, 기뻐하며 폴짝 뛰네.
주님 덕에 인생반전 맞은 이스라엘, 웃으며 노래하네.

54편

십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있는 곳에 숨어있다'고 보고했을 때 다윗이 쓴 시

1-2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향력으로 절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 너무 절박해요.
하나님, 너무 바빠서 제 기도를 못 들으시는 건 아니지요...?

3 무법자들이 저를 잡으러 나왔어요.
암살자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그 어떤 것도 저들을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경도 안 쓰니까요.

4-5 오, 잘 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걸,
하나님 내 편이신 걸,
재앙이 내 원수를 향해 달려가는 걸...!
하나님, 저들을 봐주지 마세요. 그냥 끝장내 버리세요!

6-7 주님께 예배합니다. 온 맘 다해....
감사드려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나를 온갖 역경에서 구해 주셨네.
결국 난 목격했다네. 내 원수들이 곤경에 처하는 걸....

55편

다윗의 시

1-3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저의 기도....
못 들은 척 마세요, 제가 문 두드리는 걸....
가까이 오셔서 속삭여 주세요. 주님 대답 들려주세요.
전 주님이 필요해요, 간절히....
그들의 비열한 목소리에 몸서리치며
그들의 사악한 눈초리에 무너지는 저....
그들의 죄악이 산더미 같기에,
분노에 찬 모락이 하늘 높이 쌓였기에,

4-8 제 속이 다 뒤틀려요.
제가 죽음의 유령에 짓눌려요.
두려움에 떨다 못해
몸서리가 쳐져요.
제가 물었죠. "누가 나한테 날개를 달아줄까?
비둘기 같은 날개를?"
비둘기 날개에 이 몸 실어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작은 평화와 고요함뿐이니....
숲속 오두막에 살며
한가로이 시골길 거니는 것뿐이니....
간절히, 간절히 원해요.
부디 이 사나운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길....

9-11 주님, 힘차게 내려오세요. 그들의 혀를 짓이겨 주세요.

그들이 이 도성을 갈라
뒷골목 강패들에게 나눠준 걸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밤낮으로 씹박질이나 해대는 그들로 말미암아
거리는 쓰레기더미로 변해가고
상인들은 백주대낮부터
속임수로 사람들을 등쳐 먹네요.

12-14 날 조롱하는 건 동네 강패가 아니야.
동네 강패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어.
독설을 내뿜는 건 낯선 악마가 아니야.
그거 역시 큰 문제가 안 되니까....
하지만 어릴 적 함께 자란 친구인 네가 어떻게,
나의 가장 친한 벗인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팔짱 끼고 거닐던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잖아....

15 절 배신한 자들을 산 채로 지옥에 보내주세요.
끔찍한 공포로 몸서리치게 해주세요.
저주받은 삶의 진면목을 생생히 느끼게 해주세요.

16-19 하나님이 분명 날 도와주실 거야.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으니....
저녁이든, 새벽이든, 한낮이든 내가 탄식할 때
그 깊은 탄식 들으시고, 구출해 주실 거야.
내가 위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수천 명이 내게 맞서
득달같이 달려들 때에도,
내 삶은 안전하고 흔들림 없어.
판사석에 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 들으시고
저들이 마땅히 받을 형벌 내려 주시니까....
굳어질 대로 굳어진 저들의 삶은
하나님겐 일말의 관심조차 없으니까....

20-21 내 절친이 가장 친한 벗을 배신하다니!
행동으로 자기 언약을 저버리다니! (말 따로 행동 따로^^)
내 평생 그의 말에 매료되어
그가 배신하리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는데....
내 귀에 음악 같던 그의 말소리
이제는 비수 되어 내 심장을 찌르는구나.

22-23 그대의 무거운 짐 벗어 하나님 어깨에 올려 놓으세요.
주님이 그대의 짐 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그대를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은 결단코 선량한 이들을
파멸에 이르게 놔두시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악인들은 진흙탕에 던지셔서
암살자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고
반역자의 수명을 단축시켜 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 쓴 시

1-4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세요.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 몸,
하루라도 얻어맞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그들은 마치 절 쓰러뜨리는 게
자기네 의무인 줄 아나 봐요.
두려움이 닥쳐 어쩔 줄 몰라하다가
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달려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의 자랑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한날 유한한 인간들이 제게 뭘 할 수 있겠어요?

5-6 그들은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
제 평판을 더럽히고
절 파멸시키려 음모를 꾸며요.
때를 지어 슬그머니
골목으로 빠져나와
느닷없이 절 덮치려
호시탐탐 노리네요.

7 그들의 사악함을 보복해주세요!
노를 발하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 주세요!

8 주님은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셨잖아요.
주님의 병에 제 모든 눈물 담으시고
주님 책에 제 모든 아픔 기록하셨잖아요.

9 제가 소리치면
원수들이 허겁지겁 도망치게 해주세요.
그때 전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제 편이심을....

10-11 하나님을 찬양함은 나의 자랑
하나님을 찬양함은 나의 긍지
하나님을 신뢰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네.
한날 유한한 인간들이 내게 뭘 할 수 있으리?

12-13 하나님, 모든 약속을 이행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 주시고

제 발을 파멸의 벼랑에서 지키신 주님,
이제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한가로이 거닙니다.
햇빛 찬란한 생명의 들판을....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서 쓴 시

1-3 하나님, 절 좀 친절히 맞아주세요. 당장요!
제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왔어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 날개 아래 숨어 있고파서....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교욱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명을 내려 구원해 주시고
날 건너차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

4 제가 오만한 사자들 틈에 끼어 있어요.
사람고기에 굶주린 사자들 틈에 끼어 있다구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예리한 단검

5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세요!
온 땅을 덮어주세요, 주님 영광으로!

6 그들이 제 길에 지뢰를 설치했어요.
때문에 제가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절 잡으려고 파 놓은 함정에
되려 그들 자신이 빠지고 말았네요.

7-8 저는 준비했어요,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반의 준비가....
음악에 맞춰 노래할 준비가....
"깨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하프야! 깨어나라, 기타야!
일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9-10 거리로 뛰쳐나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도성에서, 시골에서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높아지네요.
주님 신실하심에 구름이 깃발처럼 나부끼네요.

11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세요!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어주세요!

58편

다윗의 시

1-2 나라꼴이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정직한 정치인은 정녕 없단 말인가?
배후에서 속임수의 거미줄을 짜고
문 뒤에서 마귀들과 거래하는 너희

3-5 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
그들이 모태에서 나와 맨 처음 한 말은? 거짓말!
그들의 갈라진 혀에서 독,
치명적인 방울뱀 독이 똑똑 떨어지네.
아무리 오르고 달래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들
그들 귀에는 수십년의 귀지가 쌓여 있나 봐.

6-9 하나님, 그들의 이를 박살내 주세요. (옥수수 털린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들의 삶, 엮질러진 물로 만들어 주세요.
 축축한 진흙 얼룩만 남게 해주세요.
 잔디를 짓밟듯 밟아 주세요.
 행인들의 발에 치이게 해주세요.
 달팽이 점액처럼 녹여 버리세요. (달팽이크림 원료로^^)
 세상 빛 한번 못 보고 죽은 사산아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들의 공든 탑 와르르 무너져
 쓰레기더미로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10-11 하지만 의인은 악인이 벌받는 걸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겠죠.
 악인의 피를 잔에 따라
 함께 건배하겠죠.
 건배사는? "규.세.트! - 규칙대로 경기한 보람이 있군.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트로피를 받았으니...!"

59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에 감시를 붙였을 때 다윗이 쓴 시

1-2 나의 하나님, 절 구원해주세요, 원수들에게서!
 절 보호해주세요, 폭도들로부터!
 절 건져주세요, 그 더러운 속임수에서!
 절 구해주세요, 이 암살자들로부터!

 3-4 무법자들이 무리지어 절 대적해요.
 매복해 있다 절 잡으려 해요.
 하나님, 전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제 뒤를 쫓고 있네요.
 절 잡으려 작정한 듯....

4-5 깨어나 직접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니....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서 손을 써 주세요. 악인들을 처리해주세요.

절대 봐 주지 마세요, 이 고약한 자들을....

6-7 해만 지면 돌아와

코요테처럼 울부짖으며 온 도성을 배회하는 저들,

그러다 갑자기 성문 앞에 모여

서슬 시퍼렇게 이를 가네요.

자기들은 절대 안 잡힐 거라 생각하면서....

8-10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이걸 보고 웃음을 터뜨리시죠.

불경건한 이 나라들을 우습게 여기시죠.

강하신 하나님, 저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지켜보며....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 적시에 나타나셔서

눈앞에서 원수들을 파멸시켜 주시리니....

11-13 하지만 그들을 너무 빨리 처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슬로우모션으로 처단해주세요.

그들을 끌어내려 갈기갈기 찢으시는 모습

내 백성들 뇌리에 깊숙이 박히도록....

비열하고 오만한 그들의 말에

자기들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세요.

그들이 읊조렸던 모든 저주와

그들이 내뿔었던 새빨간 거짓말에

자기들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세요.

그들을 보기 좋게 끝내 주세요!

그들을 영원히 끝장내 주세요!

그럼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대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신다는 걸....

14-15 해만 지면 돌아와
코요테처럼 울부짖으며 온 도성을 배회하는 저들
뼈다귀를 찾아 헤매다
먹이 주는 손까지 물어뜯는 그들

16-17 하지만 저는요? 주님의 기량을 노래하지요.
새벽마다 소리 높여 주님의 후한 은혜 노래하지요. (큰손 하나님^^)
저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 주신 주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주님
강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언제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튼튼한 내 사랑, 나의 하나님!

60편

아람 나하라임 및 아람 소바와의 전쟁 시, 요압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였을 때 다윗이 쓴 시

1-2 하나님! 우릴 떠나시면서
우리의 방어막을 무너뜨리신 주님,
찾김에 우릴 짓밟으신 주님,
하지만 이젠 돌아오세요. 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주님이 지축을 흔드시니
땅이 갈라져 거대한 틈이 생겨났어요.
갈라진 곳을 고쳐 주세요!
그 틈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3-5 비록 주의 백성들이 파멸을 목도하고
싸구려 와인으로 고통을 달래게 하셨지만
다시금 주의 백성의 소집 깃발을 세우신 주님,
'용기를 내라'며 깃발을 펼치신 주님,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즉시 응답해주세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릴 구해주세요.

6-8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겠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세겜을 선물해 주마.
숙곳 계곡을 선물로 주마.
길르앗은 내 주머니 안에 있단다.
므낏세는 말할 것도 없고....
에브라임은 내 안전모
유다는 내 망치란다.
하지만 모압은 내 걸레통이야.
난 모압으로 바닥을 밀지.
내가 에돔에게 침을 뱉아 주고
블레셋에게 불벼락을 내려 주마.”

9-10 저와 전장 한복판에 같이 가 주실 분 누군가요?

에돔으로 가는 길 동행해 주실 분 누군가요?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정해 주실 거죠?

11-12 주님의 도움으로 이 힘든 임무를 완수하게 해주세요. (미션 파싸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린 하나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싸울게요.

주님이 적군을 완전히 때려눕히실 걸 믿고....

61편

다윗의 시

1-2 하나님, 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먼 곳에서

숨을 헐떡이며 부르짖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 높은 바위산으로!”

3-5 언제나 제게 숨 돌릴 여지를 주셨던 주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셨던 주님
주님의 안전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평생입장권을 주셨던 주님
늘 저를 귀빈으로 환대해 주셨던 주님
언제나 저를 끔찍이 여겨 주셨던 주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환영받게 해 주셨던 주님

6-8 왕의 세월을 연장시켜 주세요.

선한 통치의 나날을 늘려주세요.

하나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 그의 왕좌를 배치해주세요.

왕의 호위병으로 견고한 사랑과 선한 믿음을 세워주세요.

저는 주님의 영광 노래하는 시인 되어

매일매일 그 노래대로 살아갈게요.

62편

다윗의 시

1-2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기다리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안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어?

주님은 나의 발 아래 견고한 반석

나의 영혼이 숨 쉬는 공간

난공불락 산성이신 주님 덕에

내 일생, 안전하구나!

3-4 너희는 언제까지 떼를 지어 내게 달려들 테냐?

언제까지 불량배랑 몰려다니며 날 괴롭힐 테냐?
도대체 내가 뭐라고,
썩은 마룻바닥, 벌레 먹은 서까래 같은 내가 뭐라고...?
산을 무너뜨리겠다고 음모를 꾸미는 개미들아,
그거, 너무 허황된 꿈 아니니?
너희가 말은 그럴싸하게 한다만
그 '축복'의 말을 통해 저주가 흘러나오니....

5-6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기다리네.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안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어?
주님은 내가 딛고 선 견고한 반석
내 영혼이 숨 쉬는 공간
난공불락 산성이신 주님 덕에
내 일생, 안전하구나!

7-8 나의 도움도, 영광도 하나님 안에 있네.
화강암처럼 견고하고, 항구처럼 안전하신 하나님 안에....
그러니 백성들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라.
주님께 너희 목숨을 걸어라.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9 연기처럼 없어지는 남자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여자들
그 둘을 합해 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2 X 0 = 0'이니까....

10 뜻밖의 횡재?
너무 좋아하지 마.

11 하나님께서 단호히 하신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듣고 또 들었던가?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단다."

12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열심히 일한 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해 주시는 주님!

63편

다윗이 유대광야에서 지낼 때 쓴 시

1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 가지고
건조하고 지친 사막 횡단합니다.

2-4 주님의 능력과 영광 들이마시려
두 눈 크게 뜨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마침내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살게 됐으니
입술에선 찬양이 샘처럼 솟아나네요.
호흡할 때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 향해 뻗은 두 팔, 찬양의 깃발처럼 나부깁니다.

5-8 최상급 한우갈비, 맛있는 양념갈비로 배부른 저,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목청껏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잠 못 이루노라면
감사의 제목들을 되새기며 시간을 보내죠.
늘 절 위해 나서주신 하나님 덕에
제가 자유롭게 달리며 뛰놀니다.
저는 제 목숨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말뚝처럼 저를 곳곳이 세워주시는 주님께....

9-11 저를 잡으러 나온 자들이 망하게 됐네요.

지옥행인 저들, 죽상을 하고 있네요.
세상 험한 꼴로 죽게 됐네요.
이리떼에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됐네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왕의 진실한 친구들은 그 기쁨을 전합니다.
비열한 뒷담화 수다쟁이들,
그들 입에 영원히 재갈을 물렸지요.

64편

다윗의 시

1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의 신음소리에....
'난 이제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리 흐느낍니다.

2-6 공모자들이 저를 잡으러 나왔어요.
저를 그들 눈에 띄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의 세 치 혀는
독포탄을 뿜어내는 대포
독화살을 쏘아 대는 활
매복해 있다가
아무 경고없이
무차별폭격을 해댁니다.
악한 의도로
몸을 단련하고
비밀리에 설치한 지뢰목록을
가지고 다니는 그들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
"아무도 우릴 못 잡을 걸?
이 완전범죄를 누가 눈치채겠어?"

하지만 명탐정 주님은
지하실 어두운 마음속 비밀까지 알아내시죠.

7-8 하나님이 화살을 발사하시니
그들이 고통에 겨워 데굴데굴 구르는구나.
땅에 얼굴을 처박은 채 완전히 매다 꽃혀
모든 이들의 비웃음을 사는구나.

9-10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모두가 보고
온 도성의 화제가 되었다네.
기뻐하여라, 선량한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날아오르거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백성이여! 찬양의 습관을 들이거라! (세 살 찬양 여든까지^^)

65편

다윗의 시

1-2 침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묵묵히 순종하며 사는 자
주님은 그런 이의 기도를 들으시죠.

2-8 머잖아 우리 모두 주님의 문간에 서게 되겠죠.
죄악의 짐을 지고....
우릴 짓누르는 무거운 죄짐
하지만 주님은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없애 주시죠. (기증기 하나님^^)
선택받은 이들, 얼마나 복된지....
주님 집에 귀빈으로 초대받은 이들,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하늘 저택에서
좋은 선물 한아름 받을 생각에 가슴이 뛰네요.
주님의 트로피 방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전시돼 있죠.

지구를 돌보시고, 대양을 채우시며,
산을 만드시고, 언덕을 가꾸시는 주님
몰아치는 바다폭풍, 거센 파도,
폭도들의 요란스런 함성
멀리에서 다가와 주님 앞에 멈춰서네.
경외심과 놀라움으로 응시하네.
새벽과 저녁이 번갈아 외치네.
“다 와서 경배하여라!”

9-13 오, 주님이 땅에게 다가와 청하시네.
같이 춤을 추자고....
봄비로 대지를 데우시고
생수로 하나님의 강을 채우시네.
황금빛 물감으로 보리밭을 채색하시네.
이를 위해 세상을 지으신 주님!
쟁기질한 들판에 물을 채우시네.
빗방울에 흙덩이가 물을 머금네.
빗줄기로 써레질, 호미질 하셔서
대지가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네.
화려한 흰 눈 왕관 쓴 산꼭대기
주님 가시는 길, 장미 꽃잎 흩날리네. (꽃길만 걸으소서^^)
야생의 초원마다 장미 꽃잎 흩날리네.
언덕들이 흥겨이 춤을 추네.
살아 있는 양들로 협곡의 벽 옷입히시네. (천연 모피코트^^)
모시발 주름치마, 계곡에 펼치시네. (천연 아마스커트^^)
그들로 하여금 외치고, 외치고, 또 외치게 하시네!
오, 오,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네!

66편

1-4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박수를!
주님 영광의 곡조에 맞춰 다 함께 노래를!
주님 찬양하는 리듬 따라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 "지금껏 이런 분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행동에 돌입하신 걸 보고
주님의 원수들, 혼쫓난 개처럼 슬그머니 달아납니다.
온 땅이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네요.
주님을 찬양하네요.
주님의 이름과 명성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네요.

5-6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아요.
바다를 육지로 바꿔 주신 덕분에
걸어서 강을 건넌 그들
어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7 높은 망대 위에서 통치하시며
불경건한 나라들을 지켜보시는 주님!
그런데 반역자들이 어찌 감히
주님께 손가락질하겠어요?

8-12 오 천하 만민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레 같은 박수로 주님을 환영합시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주신 주님을,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주님은 먼저 우릴 훈련시키셨지.
은처럼 용광로불에 우릴 집어넣으셨지.
우릴 험악한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
끝까지 우릴 밀어붙이셨지.
우리를 사지로 내몰아 테스트하시며

지옥까지 끌고 갔다 오셨지.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우릴
비옥한 땅으로 데려오셨지.

13-15 주님의 집에 상과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 약속을 이행하러 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서
진지하게 맹세한 걸 지키러 옵니다.
극상품 정육과
제사로 드릴 음식을,
구운 양고기 향만 맡아도
한 끼 식사처럼 느껴지시도록....
염소고기 곁들인
쇠고기구이 향기를 올려드리려고.... (모듬구이^^)

16-20 모든 믿는 자들이여, 이리 와서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해 주신 일,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입을 열어 주님을 불렀어요.
저의 혀로 음악 소리를 냈어요.
내가 만약 악이랑 한 편 먹었다면
주님은 내 소릴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정녕 내 애길 들어주셨죠.
내 기도를 듣고 기뻐 어쩔 줄 몰라하셨죠.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주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며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67편

1-7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을 내려 주세요. 우릴 향해 미소 지어 주세요!
온세상이 주님 일하시는 방식 볼 수 있도록

불경건한 나라들도 주님의 구원방식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모든 이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행복에 겨워,
 행복감에 겨워 외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심을,
 주님의 돌보심을 멀리서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모든 이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땅이여, 네 윤택함을 보여주렴!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세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동서남북 온 땅이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렴!

68편

다윗의 시

1-4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적들을 무찌르자!
 원수들아, 산으로 도망가거라!
 연기처럼 사라지거라!
 불붙은 촛농처럼 녹아 없어지거라!
 악인들이 하나님을 한번 바라만 보고도 깨끗이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환하게 웃으며 즐겁게 노래하리.
 기쁨에 겨워 웃음 지으며 노래하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하늘아, 큰소리로 찬양하거라.
 구름 타고 오시는 분께 길을 내 드려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라.
 주님을 보고 환호하거라!

5-6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영웅,
하나님이 거룩한 집에 계시네.
노숙자들에게 집을 지어 주시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네.
하지만 반역자들은? 지옥에서 썩게 내버려 두시지.

7-10 하나님, 주의 백성 앞장서 가실 때
주님이 광야로 행진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식은땀을 흘렸지요.
하나님이 행진하실 때
주님의 움직임을 보고 시내산마저 벌벌 떨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오 하나님, 주님이 양동으로 빗물을 쏟아주시니
가시밭과 선인장밭이 오아시스로 바뀌었네요.
주님의 백성들이 야영하며 즐기네요.
주님이 그들 사업 일으켜 주시니
빈털털이였던 그들이 부자가 되었네요.

11-14 주님이 하신 말씀, 그 기쁜 소식,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합니다.
“군대를 이끌던 왕들이
도망치는구나, 줄행랑을 치는구나!”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리품을 나누네요.
가난한 사람들의 금은보화를 나누네요.
전능하신 분(Shaddai)으로 인해 왕들이 뿔뿔이 흩어지네요.
살몬산(Black Mountain) 위에 훑날리는 눈처럼....

15-16 너 거대한 산맥아, 바산의 산들아,
웅대한 산맥아, 용의 산들아,
너희가 선택받지 못해

비탄에 젖었구나.
이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려 선택하신 곳
이 산에서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리.

17-18 하나님이 전차 수만 대를 이끄시고
수천 대의 전차들을 함께 이끄시고
앞장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네.
성소로 한걸음에 달려가시네.
포로들을 데리고 성소를 오르시네.
주님 품엔 반역자들의 약탈물이 가득
그 상태로 주님이 좌정하시네.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19-23 주님을 송축하여라!
매일의 삶에서 우릴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열씨구!
우리 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지화자!
주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네.
죽음의 속성까지도....
그래서 적군의 두개골을 부수신 후
그들의 머리를 굴러 버리시지.
하늘을 활보하시며 주님 하시는 말씀
"내가 용을 밧줄로 결박했단다.
깊고 푸른 바다를 재갈 물렸단다.
너희가 적군의 피바다를 헤치고 지나게 될 거란다.
개들이 너희 군화에 묻은 피를 핏게 될 거란다."

24-31 성소로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행진하신다!
앞에선 찬양대가, 뒤에선 군악대가
중간엔 처녀들이 캐스터네츠를 들고 있구나.
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송축하는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 향한 찬양의 물줄기가 솟아오르는구나.

보아라, 어린 베냐민을!

선두에서 이끄는 그를!

유다의 왕자들과 스불론 왕자들, 납달리 왕자들이

왕복 차림으로 그 뒤를 따르는구나.

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그 능력ைய요, 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왕들이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네요.

저 늙은 악어, 애굽을 혼내 주세요.

애굽의 들소들, 송아지들을 혼내 주세요.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전쟁에 미친 애굽을 혼내 주세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푸른 천을 바치라' 하세요.

구스인들에게 '두 팔 벌려 하나님께 달려오라' 하세요.

32-34 오, 땅의 왕들이여 노래하여라!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저기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늘을 타고 오시는 주님!

태고의 하늘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주님!

주님이 천둥 속에서 부르시는 소리

우르릉 광광 천둥 속 외침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브라보!'를 외쳐라.

이스라엘의 높으신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과 능력,

소나기구름처럼 거대하게 솟아오르는구나.

35 오 하나님, 주님의 성소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

오 주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69편

다윗의 시

1 하나님, 하나님, 절 좀 구해주세요!
제가 지금 죽을 맛이에요.

2 발 밑엔 미끄러운 모래, 머리 위엔 거센 파도
제가 죽기 일보직전이라구요.

3 도와달란 외침에 목이 다 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다 눈이 흐릿해졌어요.

4 적군이 제 머리털보다 더 많아요. (정상 머리털 갯수=10만개, ∴10만이 넘는 적군^^)
거짓말쟁이들과 사기꾼들이 제 등에 비수를 꼽으려 해요.

제가 흠치지도 않은 걸
왜 돌려줘야 하나요?

5 하나님, 내 죄를 소상히 아시는 주님,
내 삶은 주님 앞에 펼쳐진 책

6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자들이
제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천군천사의 하나님!

주님을 찾는 이들이
저를 따름으로써 죽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발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7 주님으로 인해 제가 바보 취급을 받아요.
얼굴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8 형제들은 저를 거리의 부랑자 취급하고
가족들은 저를 불청객 보듯 해요.

9 말로 다 표현 못할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제가 주님을 미친듯이 사랑하니 (crazy love^^)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단 이유로 비난하네요.

10 기도와 금식으로 내 속을 토로했건만
내게 돌아온 거라곤 경멸의 시선뿐.

11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어릿광대 취급할 뿐.

12 먹고 마시며 고주망태가 된 그들
날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는구나. (일명 조롱가^^)

13 그때마나 난 어떡할꼬? 난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절 좀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응답해주세요!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대답해주세요!

14 저를 영원히 이 아래 가라앉게 마시고
이 깊은 늪에서 구해주세요.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세요.
제가 이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구요!

15 이 늪이 제 무덤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블랙홀 아가리가 절 집어삼키지 못하게 해주세요.

16 하나님, 제게 응답해주세요. 주님은 절 사랑하시잖아요.
그 풍성한 자비의 진면목을 보여 주세요.

17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주의 종이 못 견디겠어요.
곤경에 처해 있는 제게 지금 바로 응답해주세요!

18 제게 다가와 주세요, 하나님! 절 여기서 꺼내 주세요.
이 죽음의 덫에서 절 구해주세요.

19 그들이 제게 발길질해대는 것,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제게 당나귀 귀를 붙이고 멍청이 모자를 씌워 놀려대고 있어요.

20 그들의 조롱에 제가 정말 못살겠어요.
코가 납작해진 채, 완전 바보가 됐다구요.

친절한 얼굴을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네요. 단 한 사람도....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 울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네요. 단 한 명도....

21 그들이 제 국에 독을 타고 (기미상궁 들라 하라!^^)
제 음료에 재를 뿌려요.

22 그들이 만찬을 나눌 때 미끼에 걸려들게 해주세요.
절친이 놓은 덫에 사로잡혀 살가죽이 벗겨지게 해주세요.

23 그들을 박쥐처럼 눈이 멀게 해주세요. (박쥐처럼 초음파로 소통^^)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떨게 해주세요.

24 폭발하는 진노로 그들을 날려 버리셔서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25 그들 집을 불태우셔서
그들이 가족을 잃은 채 혼자 남게 해주세요.

26 주님이 연단하신 자를 놓고 그들이 험담합니다.
하나님이 치신 자를 놓고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27 그들의 죄악이 쌓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28 그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의인 전용, 명예의 전당 돌비에 그들 이름이 오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29 상처받은 저, 너무 아파요.
숲의 맑은 공기 속 요양할 곳을 주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30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감사의 기도로 주의 위대하심을 알리게 해주세요.

31 하나님은 그걸 제단 위 수소보다 좋아하시잖아요.
극상품 한우고기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잖아요.

32 가난한 영혼들이 보고 기뻐하는구나.
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여, 용기를 내세요!

33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귀 기울이시니,
주님은 가련한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니....

34 너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서 헤엄치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플랑크톤까지!^^)

35 하나님이 시온을 도우러 나오셨다!
유다의 무너진 도성을 재건하러 오셨다!

거기에 누가 살게 될 지 알아맞혀 보렴!
교만한 땅 주인들?

36 천만에! 주님의 종의 후손들이 그 땅을 얻게 될 거란다.
주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거기에 살게 될 거란다!

70편

다윗의 기도

1-3 하나님! 빨리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당장 제 곁에 와 주세요!

절 잡으러 나온 자들이

자기 뒤통에 걸려들게 해주세요.

저의 몰락을 즐기는 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주세요.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게 해주세요.

혀를 놀려 내뱉는 험담대로, 자기들이 당하게 해주세요.

4 하지만 주님을 찾는 이들은

노래하며 환호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구원의 길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반복해 말하게 해주세요.

5 제가 맥이 다 풀렸어요.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빨리요, 제발 빨리요!

당장 제 곁에 와 주세요. 빨리 오셔서 절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1분도 지체하지 마세요.

71편

1-3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려가면

나,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

주님의 특기를 발휘해주세요.

제가 이 난장판에서 빠져나와 두 발로 곳곳이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땅을 향해 귀 기울여주세요.

제게 구원의 여지를 주세요.

제가 될 수 있는 별장이 되어 주세요.
주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하셨잖아요!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광활한 화강암 요새시니까요.

4-7 나의 하나님, 절 악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악당들과 불량배의 손아귀에서 구원해주세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게 버틸 힘을 주시는 주님
내 어린시절부터 나의 반석이셨던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부터, 주님이 절 요람에서 안으셨던 날부터,
전 줄곧 주님께만 매달려 살았어요.
전 결코 찬양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제 처지를 보고 기가 막혀 하지만
주님은 제게 당당함을 주시니까요.

8-11 매일같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넘쳐흐르듯
제 입에서 찬양이 넘쳐흘러요.
제가 나이 들었다고 절 내쫓지 마세요.
제 기력 쇠했다고 뒷방 늙은이로 살게 하지 마세요.
내 원수들이 제 뒤에서 제 욕을 해요.
호시탐탐 제게 칼 꽃을 기회만 노리죠.
그리고 이렇게 험담하네요. “하나님이 재를 버리셨어.
지금 습격해도 아무도 도와줄 이 없을 거야.”

12-16 하나님, 멀찌감치 서서 수수방관 마시고
제 곁에 달려와 주세요, 어서요!
절 고소한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절 잡으러 나온 자들이 바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손잡으려 손 내밀 때....
날마다 점점 더 찬양할 때....
전 주님의 의로우심에 관한 책을 쓸 거예요.
주님의 구원에 대해 하루 종일 얘기할 거예요.
글로든, 말로든, 주님의 좋은 점들을 끝없이 자랑할 거예요.
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아와

주님의 의로운 길을 안내할 거예요.

17-24 철모르던 시절, 날 붙들어 주신 주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제는 제가 주님의 경이로움을 세상에 알릴게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계속해서 알릴게요.
하나님 절 버리지 마세요. 절 떠나지 마세요.

제가 세상에 알리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대해....

주님의 권능에 대해 세상에 전하렵니다.

주님의 높은 명성과 정의로운 길에 대해

후세대에 전하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이 모든 걸 해내셨습니다!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어디 또 있을까요?

주님이 저를 이 곤경에 처하게 하셨으니

절 좀 돌아봐 주세요.

이제는 살 길을 보여 주세요.

제 인생이 바닥을 쳤으니

절 들어올리셔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바라보시고 따뜻이 맞아주세요.

그럼 제가 수금을 연주하며 주님께 감사할게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프를 뜯으며 주님 위한 음악을 연주할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 노래를 불러 드리며

목이 터져라 찬양할게요.

내 삶을 구원해 주셨음을 노래할게요.

주님과 주님의 의로우신 길에 대해

온종일 노래할게요.

그러면 날 죽이려 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슬그머니 달아나겠죠?

72편

솔로몬의 시

1-8 오 하나님, 왕에게 지혜로 통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왕세자에게 공정하게 통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주님의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함으로써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해주세요.

산들이 생생히 증언하게 해주세요.

언덕들이 정의를 빚어내게 해주세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어서는 왕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왕

잔혹한 압제자들을 혼내주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태양보다 오래, 달보다 오래,

오고 오는 세대에

베인 풀 위의 빗방울이 되게,

지구를 상쾌하게 하는 소나기가 되게 해주세요.

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공의가 꽃을 피우고 평화가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모든 바다를 통치하게 주세요.

모든 강과 땅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9-14 원수들이 왕 앞에 무릎 꿇게 되리.

적들이 진흙탕에 처박히게 되리.

먼 나라 왕들과 영웅들도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부와 명성을 떨치던 군주들도 왕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리.

모든 왕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불경건한 나라들도 왕을 섬기겠다고 서약하게 되리.

가난한 사람들, 불행당해 절박한 이들의

구조요청에 즉시 응답하는 왕께....

낮고 천한 자들에게 마음을 여는 왕에게,

이 땅의 비참한 이들을 회복시키는 왕에게....

독재와 고문에서 해방시켜 주고

그들이 피 흘릴 때 함께 피 흘리며
그들이 죽을 때 함께 죽어 주는 왕에게....

15-17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을 스바의 금으로 꾸며드려라.
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드려라.
온종일 왕을 축복하여라.
황금빛 곡식 들판
풍성한 야생의 산꼭대기에 올라
풍요한 찬양의 뿔로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비 온 뒤 죽순 올라오듯, 성읍에서 샘이 솟구치듯....
잊혀지지 않는 왕이 되기를,
왕의 명성이 해처럼 빛나기를!
불경건한 백성들도 왕의 축복의 반경 안에 들어오기를!
자기들을 축복하는 왕을 축복하기를!

18-20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빛나는 영광 길이길이 송축하여라!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구나.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제3권

73편

아삽의 시

1-5 하나님은 선하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해 주셔. 마음이 착한 사람을 선대하셔.
그런데 내가 하마터면 그걸 놓칠 뻔했지 뭐야?
주님의 선하심을 지나칠 뻔했지 뭐야?
내가 다른 쪽을 보고 있었지 뭐야?
내가 사람을 보고 있었지 뭐야?
그것도 모자라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했지 뭐야?
걱정 없는 사람들
뭐 하나 근심할 게 없는 사람들을 시기했지 뭐야?

6-10 오만함으로 허세를 부리며
폭력의 최신패션으로 꾸미고 다니는 자들
배가 터지도록 먹고 우쭐대는 자들
우스꽝스러운 나비넥타이로 멋부리는 자들
조롱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자들
괴롭히는 말로 다른 사람 길을 막는 자들
허세에 찼 입방아로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 기울이다니..., 이게 믿어지냐고?
굶주린 강아지처럼 그들의 말을 받아먹다니..., 이게 실화냐고?

11-14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점심 드시러 나가셨나?
가게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악인들이 들이닥쳐 모든 걸 가져가잖아?
그들이 가게를 털어 부를 쌓고 있잖아?
미련하게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한
내가 얻은 게 뭐지?
끊임없이 불행만 닥치는 걸?
문을 나설 때마다 뺨을 맞는 걸?

15-20 만약 제가 굴복하고 위와 같이 말했다면,
전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배신한 꼴이 됐겠지요.
무슨 영문인지 알아내려 했지만
머리만 깨질 듯 아파왔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거기에서 큰 그림을 보게 되었죠.
주님이 그들 앞에 미끄러운 길 배치하셔서
결국엔 그들이 미혹의 구렁이에 빠지게 될 거란 걸....
눈 깜짝할 사이에 재앙이 닥치리란 걸,
어둠 속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걸, 그게 바로 악몽이란 걸!
꿈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듯
그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요. 하긴, 원래부터 그들 것도 아니었지만....

21-24 제가 궁핍하고 괴로웠을 때
질투심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닐 때
전 멍청한 황소처럼 무지했었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는데도....
제가 여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니
주님이 제 손, 잡아주시네요.
지혜롭고 부드럽게 저를 인도하시네요.
그리고 제게 복을 내려주시네요.

25-28 제가 하늘에서 원하는 분도,
땅에서 원하는 분도 오직 주님뿐!
내 피부가 처지고 뼈가 약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야 말로 믿을 만한 든든한 반석!

보세요! 주님을 떠난 자들이 무너지고 있네요!
주님을 버린 자들 소식, 다시는 못 듣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
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주 하나님을 저의 집으로 삼고
온 세상에 주님 행하신 일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74편

아삽의 시

1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다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시다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주님의 양인 우리에게 어떻게,
어떻게 그리 화를 내시며 떠나실 수 있나요?

2-3 우리와의 추억을 회상해 보세요. 오래전 주님이 우릴 돈 주고 사셨던 그 일을....
주님이 애지중지하시는 민족인 우리를,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셨잖아요.
한때는 주님의 산-시온산에 주님이 거하셨는데....
여기 이 재앙의 현장에 한번 와 보세요.
저들이 성소를 어떻게 파괴해 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4-8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의 원수들이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며 낙서를 해 냈어요.
성소의 현관에 불을 지르고
도끼를 휘둘러 성소의 기물들을 박살냈어요.
쇠망치로 문을 부숴
조각조각 뺏아낸 후 불쏘시개로 썼어요.
그들이 주님의 성소를 다 태워 버렸어요.
예배 장소를 무단침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껄였죠. **"이곳을 다 쓸어버리자."**
그러면서 예배 장소를 몽땅 다 태워버렸어요.

9-17 하나님의 표징이나 상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 이 야만인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을 모독하게 놔 두실 건가요?

언제까지 이 원수들이 저주를 퍼붓고도 버젓이 잘 살게 놔 두실 건가요?

왜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멀리서 수수방관하고 계실 건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의 왕이셨는데....

주님은 지구의 모태 안에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주님이 숨을 한번 내쉬시면 바다가 둘로 갈라졌는데....

‘탄닌’이라는 용을 갈아서 떡갈비로 만드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잘라내 사골탕을 끓이신 후 (보양식^^)

동물들에게 사료로 주셨었는데....

주님의 손가락으로 샘들과 시냇물을 만드시고

거친 홍수물도 말라붙게 하셨는데....

낮도 주님의 것, 밤도 주님의 것,

해와 별들을 제자리에 놓으신 분도 주님

지구의 네 귀퉁이를 펼치시고

여름과 겨울, 계절이 바뀌게 하신 분도 주님

18-21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모든 원수들이 조롱했던 걸, 모든 바보들이 모독했던 걸!

늑대에게 던져주지 마세요, 주님의 어린양들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우리를 부디 잊지 마세요.

기억해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도시는 어둠에 빠졌고, 시골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희생자들이 거리에서 죽게 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주님 찬양하는 성가대로 만들어 주세요.

22-23 오 하나님, 일어서세요.

주님 자신을 위해 일어서세요!

그들이 주님께 대해 떠들어대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그 모든 사악하고 역겨운 말들이?

그들의 추악함을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내뿜는 욕설, 그 시끄러운 소리를....

75편

아삽의 시

1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주님의 이름!
우리의 가장 핫한 화제는 주님의 위대한 작품!

2-4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회의를 소집해 명을 내린다.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다 원상복구시켜 놓으려나.
그 헛똑똑이들에게 말하려나. ‘이제 그만 해라!’
그 깡패들에게 얘기하려나. ‘나대지 마라!’”

5-6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지 마.
영원한 반석을 향해 언성 높이지 마.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그분만이 주님이시니까.
광야에서든, 산에서든 그분만이 주님이시니까....

7-8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어떤 이는 무릎 꿇리시고, 다른 이는 세워주시지.
포도주가 가득한 잔과 대접을
하나님이 들고 계시네.
그리고 그것을 쏟아 부으시네.
찌꺼기까지 다 쏟아내시네.
땅의 악인들이 그걸 다 마시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네.

9-10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거야.

야곱의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거야.

악인들의 주먹은

잘려나가 피범벅이 된 그루터기라네.

하지만 의인들의 팔은

하늘 높이 뻗어오른 푸릇푸릇한 가지라네.

76편

아삽의 시

1-3 하나님은 유다에서 유명하셔.

주님은 이스라엘의 호주(戶主)이시지.

주님은 살렘에 집을 소유하시고

시온에 스위트룸을 갖고 계셔.

그곳에서 화살을 불쏘시개로 쓰시고

전쟁무기들을 불사르셨지.

4-6 오 주님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시는지...!

저들의 엄청난 전리품보다 훨씬 더 빛나신다네.

주님이 용사들을 약탈하시고

그들을 힘없이 쓰러지게 하셨다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의 자랑? 다 허풍이야. 그들의 험박? 다 허세일 뿐야.

야곱의 하나님-주님이 버럭 소리치시니

말과 기수의 기세 맥없이 꺾이네. (나 지금 떨고 있니?^^)

7-10 두렵고 무서우신 주님

주님이 발하시는 진노, 그 누가 견딜까?

하늘에서 내리시는 심판의 천둥

땅이 숨 멎을 듯 무릎을 꿇네.
하나님이 우뚝 서서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시네.
세상의 가련한 이들을 구원해 주시네.
하나님을 향한 분노, 찬양으로 바뀌고
폭발하던 분노, 하나님께 드리는 화환이 되었네!

11-12 하나님을 향한 서원, 다 이행하세요.
주님이 바로 그대의 하나님이니....
동네 사람들이여, 제물을 가져오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는 주님께....
주님 앞에서 으스스할 자 아무도 없고
그분 앞에서 갑죽달 자 하나도 없지.

77편

아삽의 시

1 부르짖습니다. 필사적으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부르짖습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

2-6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난 주님을 찾았죠.
그때 내 삶은 아물지 않는 상처였어요.
친구들은 말했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난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개를 가로젓죠.
고개를 숙인 채 내 손을 비틀어요.
밤을 꼬박 새우며 한 숨도 못 자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지나간 날들 돌아보며,
지난 세월 묵상하며,
밤새 하프를 뜯으며 생각에 잠겨요.
어떡하면 재기할 수 있을지....

7-10 주님은 우릴 영원히 떠나시려는 걸까?

우릴 향한 미소를 거두시려는 걸까?

주님의 사랑, 너털너털 누더기가 되었나?

주님의 구원 약속, 불타 없어진 걸까?

하나님이 자상함을 잊으신 걸까?

화가 나서 성큼성큼 떠나신 걸까?

“운도 지질이 없지!” 난 얘기했죠.

“내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지존자 하나님이 떠나시다니....”

11-12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

옛날 옛적 행하셨던 기적들을 책상 위에 꺼내놔야겠어.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깊이 묵상해 봐야겠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리며 찬찬히 관찰해야겠어.

13-15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은 없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셨으니까요.

주의 백성을 최악의 곤경에서 건져 주시고

야곱과 요셉의 자녀들을 구출해 주신 주님!

16-19 하나님, 주님의 활동을 바다가 보고,

바다가 주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름 속 빗물 양동이와 쏟아지고

하늘 속 천둥 주머니가 폭발하며

주님의 화살이 뻗적이며 날아오는 걸 보고....

우레 같은 주님 목소리와

땅에 내리 꽂히는 번개에

지구가 휘청이며 흔들립니다.

주님이 바다 사이를 활보하시고

포효하는 대양 사이를 거침없이 걸으시지만

주님이 오가시는 걸 본 이 아무도 없죠.

20 모세와 아론의 손 안에 몸을 숨기신 채
양떼를 이끌 듯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 주님

78편

아삽의 시

1-4 사랑하는 친구들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 봐.
나는 지금 격언 한 구절을 천천히 되새기며 음미하고 있거든....
너희에게도 들려줄까? 이 달콤하고 오래된 진리를?
우리 아버지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 무릎에 앉아 배운 교훈을?
이걸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선 안 되겠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줘야겠지. (MZ세대에게^^)
하나님의 명성과 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줘야겠지.

5-8 주님은 야곱 가운데 증거 하나를 심어 놓으셨어.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견고히 세우셨지.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명하셨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다음 세대가 알 수 있도록,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알고 그걸 전하도록,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잊지 않도록,
주님의 계명 한 자 한 자 다 지키도록....
하늘이 금하고 있잖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렸던
그들 부모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멍청하고 악하며 번덕스럽고 야비하면 안 된다고....

9-16 에브라임은 완전무장을 하고도
 전투가 시작되자 도망치기 바빴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겹쟁이들이었어.
 주의 말씀의 길로 걷기를 거부한 겹쟁이....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어.
 자신들 눈앞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망각했지.
 주님이 그 부모들 목전에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애굽의 소안 평야에서 기사를 행하셨는데....
 주님이 가르신 바다 속으로 그들이 걸어갔는데,
 주님이 그들 양쪽에 물을 쏟으셨는데,
 낮에는 그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활활 타는 횃불로 인도하셨는데....
 주님이 광야의 바위를 쪼개어
 광천수를 실컷 마시게 해 주셨는데 (시내광야표 예비양^^)
 바위에서 시냇물을 흘려보내
 강물처럼 팔팔 쏟아지게 해 주셨는데....

17-20 그런데도 그들이 행한 거라곤 죄밖에 없었어.
 광야에서 행한 거라곤 높으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밖에 없었지.
 자기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아우성쳤지.
 그들은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칭얼댔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왜 근사한 식탁을 차려주시지 않는 거야?
 그래, 주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신 건 사실이야.
 바위에서 시냇물을 흘려보내 주신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은 왜 안 주시는 거지?
 왜 맛있는 스테이크는 안 주시냐고?"

21-31 하나님은 그 말에 격노하셨어.
 야곱을 향한 진노가 불일 듯 일어났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대노하셨어.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애초에 주님의 도움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어.
구름에게 '하늘의 문을 열라'고 명하셨지.
그들이 먹을 만나, 비처럼 쏟아부어 주셨어.
천국의 빵을 내려 주셨지.
그렇게 그들은 천군천사의 빵을 먹은 거야.
질리도록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보내주신 거야. (무료배송^^)
주님은 또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셨어.
남풍이 세차게 불도록 만드셨어.
그러자 이번엔 새들이 비처럼 쏟아졌지 뭐야?
육즙 가득 맛있는 새고기, 엄청나게 많은 새를 보내주셨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로 새들을 겨냥하셔서
야영지 주변이 온통 새 천지가 되게 하셨다니깐?
그들은 새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어.
그들이 갈망하던 모든 걸 주님이 접시에 담아 주신 거야.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어.
입안 가득 새고기를 밀어넣고 욕여넣고....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못 참고 노를 발하셨어.
그래서 가장 밝고 빛나는 자들을 잘라내신 거야.
이스라엘의 가장 멋진 젊은이들을 쓰러뜨리신 거야.

32-37 그런데 이게 믿어지니?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들 목숨이 헛되이 낭비된 거야.
생명의 흔적 없는 유령도시가 된 거야.
주님이 그들을 쳐내시자, 그들이 달려와 도움을 청했어.
그제야 돌이키며 자비를 구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반석'이라고 증언했어.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 구속자'라고 증언했지.
하지만 한 마디도 진심이 아니었어.
내뱉는 말마다 온통 거짓뿐이었다니까...?
그들은 주님께 아무 신경도 안 썼어.
주님의 언약에 아무 관심도 없었지.

38-55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셨어!
 그 모든 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 거야.
 끊임없이 분을 참아가며
 복받쳐 오르는 진노를 억제하셨지.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 그들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그들에게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것도....
 그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광야생활동안 주님의 인내심을 얼마나 시험했는지....
 그들은 몇 번이고 하나님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발한 거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얼마나 빨리 잊었는지,
 적군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날을 얼마나 속히 잊었는지....
 주님이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신 걸,
 소안 평야에서 놀라운 일 행하신 걸....
 나일강과 강줄기들 다 피로 바꾸셔서
 물 한 방울 못 마시게 만드셨는데,
 파리떼를 보내셔서 적들을 산 채로 뜯어먹게 하셨는데,
 개구리떼를 보내셔서 적들을 미치게 만드셨는데,
 적들의 농작물을 벌레들에게 넘겨주셨는데,
 적들이 애써 가꾼 걸 메뚜기떼한테 넘겨주셨는데,
 적들의 포도원을 우박으로 박살내셨는데,
 살인적인 서리로 적들의 과수원을 망가뜨리셨는데,
 우박으로 그들의 소떼를 치셨는데,
 벼락으로 그들의 가축떼를 치셨는데,
 주님의 분노가 불일 듯 일어
 대혼란의 거친 화염폭풍 일으키셨는데,
 질병을 퍼뜨리는 천사들을 보내
 땅을 깨끗이 치우고 주님의 길 예비케 하셨는데,
 적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드셨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는데,
 건장한 아기들, 함의 정력의 자손들을 죽이셨는데,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이끌어내셨는데,

주님 양떼를 광야로 안전하게 데려오셨는데,
그들을 그리 잘 돌보셨는데, 두려워할 것 하나없이 만들어 주셨는데,
홍해가 원수들을 영원히 수장시켰는데,
당신의 거룩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셨는데,
이 산을 주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들을 가로막는 자들을 다 흘으시고,
유산으로 그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기 땅을 갖게 하셨는데....

56-64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힘들게 했지.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며
주님 말씀이라면 뭐든 다 거부했어.
그들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자기네 부모보다 더 나빴어.
포도주 따개처럼 배배 꼬인 배신자들이었다구!
이방의 난교파티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음란한 우상숭배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최후통첩을 하셨지.
실로를 텅 빈 채로 놔두시고 그들을 떠나신 거야.
이스라엘과 만나시던 성소를 버리고 떠나셨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자랑하시던 걸 개들에게 던져 주고 떠나셨어.
주님 삶의 금지였던 걸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셨지.
그들을 전쟁터에 풀어 놓으신 채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버려 두신 거야.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게,
젊은 여자들의 기다림을 헛되이 만드신 거야.
제사장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그 과부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

65-72 그러다 갑자기 주님이 우뚝 일어서셨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일어나듯 일어나셨지.
술 취한 전사가 소리치듯 외치셨어.
그리고 주님의 원수들을 힘껏 내리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지.

너무 무서워 뒤도 안 돌아보고 울부짖으며 도망가게 만드셨어.
 그리고 요셉의 리더자격을 박탈하셨어.
 에브라임에게 필요없다 말씀하셨지.
 대신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어.
 주님이 그리도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신 거야.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성소를 세우셨어.
 대지처럼 건재한 눈부신 성소를....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을 선택하셨어.
 양우리에서 일하던 그를 꼭 집어 택하셨지.
 암양과 새끼양을 돌보던 그에게
 어느 날 '야곱을 돌보라' 하신 거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랑,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하신 거야.
 그러자 선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선한 목자 되어
 백성을 지혜롭고 선하게 인도한 거야.

79편

아삽의 시

1-4 하나님! 야만인들이 주님 집에 무단침입했어요.
 주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다고요!
 그들이 주님 종들의 썩은 시체를
 독수리 밥으로 내어주고
 거룩한 백성의 유해를
 야생동물 먹이로 던져주네요.
 그들의 피, 물동이 물처럼
 왈칵 쏟아 버리네요.
 예루살렘 사방에 그들의 시체가
 묻히지도 못한 채 썩고 있어요.
 우린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성벽 낙서거리로 전락했어요.

5-7 하나님, 이 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영원히 이대로 끄고 계실 건가요?

주님의 이글거리는 진노를 삭일 수는 없는 건가요?

화를 내시려거든

주님에 대해 신경도 안 쓰는 저 이방인들에게 화를 내세요.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과 경쟁하는 적국들에게 화를 내시라구요.

그들이 바로 야곱을 파멸시킨 장본인들이니까요.

그들이 야곱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약탈했으니까요.

8-10 조상들의 죄로 우릴 벌하지 마세요.

어서 오셔서 우릴 구해주세요. 우린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예요.

주님은 본래 도움 주시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저희에게 쉼 주세요. 주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이 난장판에서 꺼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주세요.

주님은 원래 용서 잘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교도들의 이런 비아냥거림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점심 드시러 나갔나 보지?"

이 불경건한 세상에 공개적으로 보여주세요.

주님의 종들을 죽이고서는 무사할 수 없음을....

11-13 포로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형수들을 사면해주세요. 주님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우릴 조롱하는 이웃들이 도리어 조롱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조롱하던 게 부메랑 되어, 그들 자신을 쓰러뜨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이 사랑하고 돌보시는 우리가

주님께 거듭 거듭 거듭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찬양 받을 만한 분인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80편

아삽의 시

1-2 목자시여,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 기울여 주세요.

요셉의 양들을 다 불러 모아 주세요.

주님의 빛나는 보좌에서

빛줄기를 비취 주세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세요. 그 정도면 충분히 주무셨잖아요?

빨리 달려오세요. 더 늦기 전에....

3 하나님, 돌아오세요!

우리에게 축복의 미소를 지어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미소를 보여주세요.

4-6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불과 유향을 구하는데

주님은 언제까지 휴화산처럼 연기만 피우고 계실 건가요?

눈물을 저희 양식으로 삼게 하시니 (수분 과다섭취^^)

짠 눈물만 양동이째 들이키라 하시니 (염분 과다섭취^^)

우릴 친구들의 조롱거리로 만드시니

원수들이 날마다 우릴 조롱하잖아요.

7 천군천사의 하나님, 돌아오세요!

우리에게 축복의 미소를 지어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미소를 보여주세요.

8-18 기억해주세요, 주님이 애굽에서 갖고 나오신 어린 포도나무를....

잊지 마세요, 주님의 포도원에서

가시덤불과 찔레를 다 뽑으신 후 심으셨던 포도나무를....

기억해주세요, 옥토를 준비하신 후,

포도나무 뿌리 깊이 내리게 하시고
온 땅을 포도원으로 만드셨던 걸....
주님의 포도나무, 하늘높이 치솟아 온 산을 그늘지게 했던 걸,
그 앞에선 거대한 백향목조차 초라해 보였던 걸,
서쪽으론 대해까지, 동쪽으론 요단강까지
주님의 포도나무가 뻗어나갔던 걸 기억해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어찌 주님의 포도나무를 보호하지 않으시나요?
침략자들이 맘대로 포도를 따먹고,
멧돼지들이 포도원을 짓밟아 망치고 있는데,
그나마 남은 건 생쥐들이 다 갉아먹고 있는데....
천군천사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이 포도나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살피시고 관심 가져 주세요.
살펴주세요, 주님이 정성스레 심으셨던 이 포도나무를,
주님이 애지중지 싹 틔워 키우신 이 포도나무를....
이 포도나무를 감히 불에 던져 넣은 자들에게
'니들, 다 죽었어!'라고 으름장을 놓으세요.
그리고 손잡아주세요. 한때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녀의 손을,
주님이 키워주신 자녀의 손을....
앞으론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게요.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음껏 주님 이름 외치게 해주세요!

19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 돌아오세요!
우리에게 축복의 미소를 지어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미소를 보여주세요.

81편

아삽의 시

1-5 능력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야곱의 하나님께 환호를!

성가대 찬양과 악단의 음악으로!
손하프와 하프, 트럼펫, 트럼본과 호른의
감미로운 멜로디로!
오늘은 축제의 날, 하나님을 위한 잔칫날!
하나님이 명하신 날,
야곱의 하나님이 엄숙히 명하신 날,
애굽에서 주가 행하신 일 절대 잊지 말라며
요셉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날!

그분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리네.
상상치 못한 그분 목소리가 들려오네.

6-7 "난 너희 어깨에서 세상짐을 거두어 졌지.
내가 너희를 힘든 노역에서 해방시켜 졌어.
너희가 고통 중에 날 부를 때
너희를 그 험한 곳에서 꺼내 주었지.
난 천둥의 은신처에서 너희에게 대답했어.
므리바 샘에서 너희에게 증거를 보여줬어.

8-10 사랑하는 아이들아, 잘 듣고 깨달으렴.
오 이스라엘아, 허투루 듣지 말거라!
이상한 신들을 받아들이지도,
최신 유행 신들을 숭배하지도 말거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죽음의 땅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 낸 하나님,
너희를 실컷 먹여주고
너희의 주린 배를 한껏 채워준 하나님이란다.

11-12 하지만 내 백성들은 내 말을 안 들었어.
이스라엘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삐를 풀어주며 말했어.
'어디 한번 달아나 봐! 너희 맘대로 해 보라구!'

13-16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젠 내 말을 들으련?
 이스라엘아, 나의 네비게이션을 따르련?
 그럼 내가 네 원수들을 초전박살 내 주마.
 네 적들에게 망신살이 뽀얗게 해 주마.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을 겁먹은 강아지처럼 움츠러들게 해 주마.
 다시는 그들 소식 듣지 못하게 해 주마.
 하지만 너희에겐 갓 구운 빵을 먹여 주마.
 천연 꿀이랑 버터를 바른 따끈따끈한 빵을 먹여 주마.”

82편

아삽의 시

1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당신 법정으로 부르셔서
 모두 피고석에 앉히신 후 하시는 말씀

2-4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너희는 어쩔 그리 끊임없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악인들과 살인자들을 놓아줄 수 있단 말이나?
 내가 너희를 세운 건, 무력한 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공정히 재판하라는 거였는데....
 연약한 이들을 대변하고
 착취자들을 기소하라는 임무를 준 거였는데....

5 이 무지한 재판관들아! 이 무식한 판사들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는 전혀 감도 못 잡고 있구나.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세상이 와해되고 있는데도....

6-7 내가 너희를, 너희 각각을 판사로,
 높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건만...,
 너희는 이제 옷을 벗게 될 거다.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으니.... 니들 딱 걸렸어!”

8 오 하나님, 그들이 응당 받을 벌을 받게 해주세요!
온 세상이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83편

아삽의 시

1-5 하나님, 절 버리지 마세요.
오 하나님,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세요.
주님의 원수들이 꾀판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날뛰고 있다고요.
저들이 주님의 백성을 끌어들이려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주님한테서 소중한 이들을 앗아가려 수작부리고 있어요.
저들이 말해요. "이 나라를 지상에서 없애 버리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역사책에서 지워버리자."
그러더니 이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님까지 제거할 모의를 하고 있네요.

6-8 에돔과 이스마엘이,
모압과 하갈이,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
블레셋과 두로가,
거기에 이젠 앗수르까지 합세해
롯의 패거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네요.

9-12 저들에게 행해주세요,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엔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동산의 거름이 된 것처럼....
저들 지도자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오렙과 스넵에게 하셨듯이....
저들 왕들을 처치해주세요, 세바와 살문나를 처치하셨듯이....

저들이 이렇게 뺨을 치네요.
“다 우리 거야. 하나님 동산은 다 우리 차지라고!”

13-18 나의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들을 모조리 날려보내 주세요!
사막 황무지의 덩굴풀처럼,
불타버린 땅, 시커먼 숯덩이처럼....
저들의 숨통을 조여 주세요.
숨을 헐떡이며 '하나님'을 부르도록....
저들을 밧줄 끝에 매다세요.
밧줄 끝에 대롱대롱 매다세요.
그제서야 저들이 주님 이름 알게 되도록....
'하나님, 세상에 유일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84편

고라의 시

1-2 천군천사의 하나님! 주님의 집은 어쩔 그리 아름다운가요!
난 늘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드림하우스^^)
주님의 집에서 살 수 있기를,
거기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 드리길 꿈꿔왔는데....

3-4 새들도 주님 집에서 보금자리를 찾고
참새들, 제비들도 주님 집에 둥지를 트네요.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른 새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재잘거리며 노래하네요.
천군천사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님 집에서 살며 노래하는 이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5-7 자기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요!
그들의 삶은 주님이 걸으시는 길!

외로운 골짜기를 지난 그들, 시냇물을 만나고
빗물 가득 담긴 시원한 샘과 연못에 다다르네요.
하나님이 걸으시는 그 길, 산으로 굽이쳐 올라가
결국 시온에 이르네요! 하나님이 흰히 바라다보이는 시온에 이르네요.

8-9 천군천사의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열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햇빛 아래 반짝이는 우리 방패를 보세요.
주님 은혜로 기름부음 받아 빛나는 우리 얼굴을 보세요.

10-12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서 보내는 하루는
그리스 섬 지중해 해안가에서 보내는 1,000일과 비교도 안 된답니다.
저는 최악의 궁궐에서 VIP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마루를 닦겠습니다.
햇살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
온갖 선물과 영광, 아낌없이 나눠 주시고
함께 여행하는 동행들에게 막 퍼 주시는 주님 (막퍼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항해, 순풍에 돛 단 듯 순조롭지요.

85편

고라의 시

1-3 하나님, 주님의 좋은 땅을 향해 미소 지으신 주님!
야곱에게 다시 좋은 시절을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서 최악의 구름 거두시며
그들 죄를 까마득히 먼 곳으로 옮기신 주님!
죄로 인한 위협들을 거두시고
불 같은 의분(義憤)을 삭이신 주님!

4-7 우리의 도우미신 하나님, 한번만 더 도와주세요.
설마 우리에게 계속 양심을 품고 계실 건 아니죠?

계속 꿈하고 계실 건 아니죠, 그렇지요? (뒤끝 없으신 하나님^^)
 화난 채로 찌푸린 얼굴 계속하고 계실 건 아니죠? (쿨하신 하나님^^)
 우리가 새출발하도록, 부활의 삶 살도록 도와주실 순 없나요?
 그럼 주님의 백성들이 웃음 뽀 얼굴로 노래할 텐데....
 보여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우릴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8-9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간절히 듣고 싶구나.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선포하시려는 말씀,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살지 말라'며 선포하실 평안의 말씀!
 보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구원이?
 우리나라에 머물 찬란한 영광이?

10-13 사랑과 진리의 마주침 (사랑과 진실^^)
 바른 삶과 건전한 삶의 입맞춤 (슬기로운 성도생활^^)
 진리가 땅에서 파아란 싹을 틔우고
 정의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네!
 우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함과 아름다움에
 온 땅이 풍성함과 축복으로 화답하는구나.
 올바른 삶이 주님 앞에 활보하며
 주님 가실 길 깨끗이 치워 놓는구나.

86편

다윗의 시

1-7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세요.
 이토록 가련하고 불쌍한 저...,
 저를 지켜 주세요. 그동안 나를 착하게 살아왔잖아요?
 주의 종을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만 의지하니

나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한 몸 주님 손에 드리오니
주의 종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선함과 용서로 유명하신 주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배포 크게 받아 주시는 주님
하나님, 제 기도에 집중해주세요.
도와달란 호소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8-10 오 주님, 이 세상 신들 가운데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은 비교불가, 과연 독보적!
주님이 만드신 모든 나라들이 길을 나섰네요.
오 주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길을 가고 있네요.
주님의 아름다움 선포하고자
주님의 위대하심 자랑하고자
주님 행하시는 위대한 일 드러내고자....
하나님, 주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답니다!

11-17 하나님, 절 훈련시켜 주세요, 똑바로 걷도록....
주님의 진리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집중력 갑!^^)
온 맘 다해, 경외심과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 깊이 주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언제나 날 놀랍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큰 재난에서 날 건져주신 그 큰 사랑을!
하나님, 불량배들이 머리를 쳐들었어요.
조폭들이 절 쫓아와요.
주님에 대해선 일말의 관심도 없는 그들....
오 하나님, 온유하고 친절하신 주님
웬만해선 화를 안 내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그리고 절대, 절대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절 바라봐주세요. 절 친절히 대해주세요.
주의 종에게 나아갈 힘을 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를 구해주세요!
주님이 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절 미워하는 불량배들이 망연자실하도록....
하나님의 부드럽고 강한 힘으로
절 다시 세우시는 걸 저들이 볼 수 있도록....

87편

고라의 시

1-3 거룩한 산 위에 시온을 세우신 주님,
오, 하나님이 당신 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곱의 집안을 다 합한 것보다
시온을 훨씬 더 사랑하신단다.
오, 하나님의 고향,
너 시온은 장안의 화제거리!

4 나를 잘 아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볼까? (출석점검^^)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심지어 구스와 두로까지....
소문이 무성하구나.
"이 사람이 여기서 다시 태어났대!"

5 시온에 관한 소문이 퍼지고 있구나.
"남자들과 여자들, 사방의 모든 이들이
시온에서 거둬냈대!"

6 하나님은 주님 책에 그들 이름을 등재하셨죠. (천국의 호적등본^^)
"아무개, 아무개, 그리고 아무개도,

모두 다 여기 시온에서 거둬냈다.”

7 가수들과 무희들도 시온에게 말하네.
“나의 모든 샘, 나의 모든 근원이 너, 시온 안에 있다!”

88편

고라 자손 헤만의 기도

1-9 하나님, 저의 마지막 보루이신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의 구원계획에 절 넣어 달라고,
제가 당한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이만하면 저도 고생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안 보이세요? 지금 제가 지옥의 사선을 넘나드는 게...?
내 이름이 이렇게 패배자 명단에 올랐는데,
내 불행이 인류의 비극에 통계치 하나를 더했는데...?
시체더미 위, 또 하나의 시신처럼,
이미 숨진 자 같이 버려진 나,
그 흔한 비석 하나 없이
망각의 블랙홀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주님은 절 무저갱 속에 집어 던지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심연에 빠뜨리셨죠.
주님의 진노, 감각이 얼얼해질 정도로 절 세계 때렸고
주님의 분노의 물결, 절 무자비하게 내리쳤죠.
친구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게 하셨고
절 끔찍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신 주님,
미로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저는
고통과 좌절의 눈물로 눈이 멀 지경이에요.

9-12 하나님,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디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답디까?
유령들이 어디 성가대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답디까?
무덤가에서 주님 사랑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답디까?
지옥 복도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관심이나 끈답디까?
암흑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보이거나 한답디까?
망각의 땅이 주님의 의로운 길을 알아차리거나 한답디까?

13-18 하나님, 저 여기 서서 도와달라 외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며,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귀하 먹기라도 하신 건가요?
왜 스스로 모습을 감추시나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전 끊임없이 상처만 받았는데...?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징벌을 받았는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주님의 불붙는 진노가 제 삶을 강그리 태워버린 걸요?
이렇게 피가 철철 흐르고, 시퍼렇게 멍이 든 걸요?
주님이 사방에서 맹렬히 공격해
거반 죽을 정도로 절 때려 눕히신 걸요?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이웃들이 절 쓰레기처럼 버렸는 걸요?
제게 남은 친구라곤 오로지 어둠뿐인 걸요?

89편

에단의 기도

1-4 하나님, 제가 주의 사랑을 노래해요, 저의 주제곡은 주님의 사랑!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전할게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절대 멈추지 않을게요, 주님 사랑 전하는 일!
끊임없이 전할게요, 주님이 어떻게 우주를 지으셨고
우주만물을 어떻게 보증하셨는지! (하나님의 보증서 첨부^^)
주님의 사랑, 언제나 우리 삶의 토대가 되었고
주님의 성실하심, 세상의 지붕이 되었어요.
언젠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선택한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마.

나의 종, 다윗에게 이렇게 약조하마.
'네게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보장해주마.
너의 통치를 바위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주마.'"

5-18 하나님! 온 우주가 주님의 놀라운 길을 찬양하네요.
거룩한 천사 성가대가 주님의 신실한 길을 노래하네요.
높은 곳과 낮은 곳, 하늘과 땅, 살살이 살펴봐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네요.
거룩한 천사들조차 주님 앞에선 경외심에 휩싸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고 존엄하신 주님!
천군천사의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능력과 신실함으로 가득하신 주님!
오만한 바다도 제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큰 바다 거친 파도도 조용히 만드신 주님!
늪은 마녀 애굽을 부끄럽게 하시고
손 한번 까딱하는 걸로 가볍게 대적을 쓸어내신 주님!
온 우주도, 그 안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작품!
원자 하나부터 천사장까지,
북극점과 남극점도 다 주님의 솜씨!
다불산과 헤르몬산이 듀엣으로 주님께 노래하네요.
주님의 근육질 팔과 강철 주먹,
주님 상대할 자 아무도 없죠.
주님 통치의 뿌리는 정의와 공의!
주님 다스림의 열매는 사랑과 진리!
복이 있구나, 찬양의 비밀을 아는 이들이여!
주님의 찬란한 임재를 환호하는 이들이여!
온종일 기쁨에 겨워 신명나게 춤을 추네.
아무렴, '주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는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지.
주님의 생생한 아름다움, 우리 안에 들어왔네.
우리에게 어찌나 잘해 주셨는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해.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소유도 다 주님의 덕,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우리들의 왕이시여!

19-37 오랜 전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내가 한 영웅에게 왕관을 씌웠단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을 선택했단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발견하고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었단다.
 이제 내 손으로 그를 든든히 붙잡아주마.
 그래,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늘 그의 곁에 머무르마.
 어떤 대적도 그를 약탈치 못하도록,
 어떤 악당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맞서는 자, 내가 다 뽑아내고
 그를 미워하는 자, 내가 다 치워주마.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영원히 그를 사랑해주마.
 내가 그를 높이 세웠단다. 군계일학(群鷄一鶴)으로!
 그의 한 손엔 바다를 쥐어 주고, 다른 한 손엔 강을 맡겼으니
 그가 이렇게 외칠 거다. ‘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여!’
 그래, 내가 그를 세워 왕조를 열게 하마.
 이 세상 어떤 왕보다 높이 세워주마.
 그를 내 사랑 안에 영영토록 보호해주마.
 나의 진지한 약속, 빠짐없이 다 이루어주마.
 그의 대대손손을 보증하마.
 그의 통치를 승인하마.
 하지만 그의 자녀들이 내 말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이 내가 보여준 길로 가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가리키는 방향에 침을 뱉고,
 그들에게 게시한 규율을 찢어 버린다면,
 내가 그 반역의 오물로 그들 얼굴을 문질러
 자기 행동에 책임지게 만들어주마.
 하지만 결코 그들을 쫓아내진 않으마.
 절대 그들을 버리거나 의절하진 않으마.
 너희 생각엔 내가 나의 거룩한 약속을 저버릴 것 같니?
 아니면 내가 한번 뱉은 말을 철회할 것 같니?
 내가 저버릴 것 같니? 내가 이미 약속한 것을, 나의 온전하고 거룩한 약속을?

내가 다윗한테 거짓말할 것 같니?
천만에! 그의 후손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통치는 하늘의 해처럼 견고할 거다.
그의 다스림은 달의 주기처럼 불변하고
땅의 기후처럼 뚜렷할 거다.”

38-52 그런데 하나님, 그런 주님이 우릴 버리고 떠나시다니요?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화를 감추지 못하고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깨뜨리시다니요?

그의 왕관을 진창에 내던지시다니요?

그의 집을 부수어 이방 왕국에 넘기시다니요?

그의 성읍을 무너뜨려 잿더미로 만드시다니요?

그의 도성을 지나가는 행인 차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웃들의 조롱거리로 만드시다니요?

주님이 원수들에게 축제일을 선포하셔서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잔치를 벌이게 하시다니요?

주님이 화가 나서서 전쟁에서 그를 대적하시고

그의 편에 서서 싸우기를 거부하시다니요?

그에게서 영광을 빼앗으시고, 전사인 그를 모욕하시며,

왕인 그의 명예를 땅에 처박으시다니요?

그의 전성기를 무참히 끝내시고

무력한 모습으로, 쪼뼛 망한 빈 껍데기로 만드시다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영원히 우릴 떠나실 건가요? 우릴 향한 원한을 영원히 품고 계실 건가요?

제 슬픔을 기억해주세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도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내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나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 우리도 곧 죽음을 맞겠죠.

우린 어찌하면 좋나요, 지옥엔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텐데?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됐나요?

사랑하는 주님, 주의 종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다구요!

하나님, 제가 주의 원수들의 농담거리가 됐다구요!

그들이 조롱하고 있다구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따라다니며....

영원,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제4권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1-2 하나님, 산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내내 우리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구를 만드시기 훨씬 전부터
그 '옛날 옛적'부터 '다시 올 왕국'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11 그러니 우리를 진흙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참아 주세요!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시간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천년이나 하루나 주님께 다 똑같잖아요.
주님한테 우리는 흐릿한 한순간 꿈에 불과한가요?
그저 그런 한 줄기 풀에 지나지 않나요?
떠오르는 태양 아래 영광스럽게 싹을 틔우지만
어느새 가차없이 잘려지고 마는 한 줄기 풀에 불과한가요?
저희를 향한 주님의 진노가 너무 커
마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기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추적하시고
어린 시절 잘못부터 빠짐없이 주님 책에 다 기록하시다니....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곤 주님의 찌푸린 얼굴뿐....
언제까지 인상 쓴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기껏해야 70살 정도 살 텐데
(운 좋으면 80까지도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고난밖에 더 있나요?
수고와 고난 끝에 남는 거라곤 무덤가 비석이 전부인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다니,

이토록 무섭게 화를 내시다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12-17 오, 저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제 그만하시고 주의 종들을 친절히 대해주세요.

새벽에 사랑으로 우릴 놀래켜 주세요. (새벽중이 울렸네^^)

하루 종일 뛰놀며 춤 출 수 있도록....

험난했던 시절, 이젠 좋은 시절로 보상해주세요.

우리가 평생 봐온 거라곤 악박에 없잖아요.

종들에게 주님의 주특기를 보여주세요.

주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며 복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 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에 복 내려주세요.

오, 주님, 우리의 일을 형통케 해주세요.

91편

1-13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앉아 있는 그대,
엘 샤다이(전능하신 하나님-역자 주)의 그늘 아래 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은 제 피난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합니다!"

맞아요. 주님은 함정에 빠진 그대를 구해 주시고

치명적인 위험도 강력한 방패로 막아 주시죠.

쥌 뻘은,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니

그대, 그 팔 아래 더없이 안전하죠.

주님은 그대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 마세요.

밤에 달려드는 늑대도,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어둠 속을 헤집고 다니는 질병도,

대낮에 발생하는 재난도,

다른 사람들은 다 굴복한다 해도,
 파리떼처럼 후두둑 떨어진다 해도, (에프킬라^^)
 그대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채,
 멀리서 멀정한 몸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볼 거예요.
 악인들이 죽어 나가는 걸 가만히 지켜볼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대의 피난처시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대의 집이시니,
 악은 그대에게 접근불가,
 재난도 문을 통과조차 못하죠. (홍채인식^^)
 왜냐고요? 주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셨거든요.
 그대가 어딜 가든 지켜 주라고. (철통경호^^)
 그대가 비틀거릴 때 즉시 달려가 잡아주라고....
 그대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천사들의 임무!
 그대는 사자굴과 뱀 소굴도 무사히 지날 거예요.
 젊은 사자와 뱀을 길밖으로 걷어차 버릴 거예요.

14-16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온 힘 다해 날 붙들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벗어나게 해 주마.
 최선을 다해 널 돌봐 주마.
 날 알아가며, 날 믿어 준다면....
 언제든 날 부르렴! 내가 응답해줄게. 어려움 당할 때 네 곁에 있어줄게.
 내가 널 구해내 파티를 열어줄게.
 네가 오래 살게 해줄게.
 구원의 잔을 오랫동안 음미하게 해줄게.”

92편

안식일의 노래

1-3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새벽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새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찬양하는 것은...!
덜시머와 하프의 반주 곁들여
현악기의 웅장한 음악에 맞춰 찬양하는 것은...!



덜시머(dulcimer)
출처: 위키피디아

4-9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해요.
주님의 작품 보며 기쁨에 겨워 소리쳐요.
하나님, 주님의 작품은 얼마나 멋진가요!
주님의 생각은 얼마나 심오한지요!
바보들은 알아채지도 못할 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멍청이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걸요?
악인들이 잡초처럼 불쑥 튀어나왔을 때 (갑툭튀^^)
악한 남녀가 다들 한 자리씩 차지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속아내
단번에 말살시켜 버리셨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을 보세요!
주님의 원수들이 폭망한 걸 보세요!
악에게 매수된 자들, 바람에 흩어진 걸 보세요!

10-14 하지만 저는 돌진하는 들소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축제의 퍼레이드로 절 영예롭게 해 주셨지요.
절 비방하던 자들이 추락하는 꼴이란...!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악의적으로 비판하던 자들의 몰락을 보게 되다니...!
제 귀엔 약속의 소리가 가득해요.
“선한 사람들은 야자수처럼 번성한단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자라지.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 높이 자라난단다.
풋풋하고 푸르게, 늙어서도 여전히 기운이 넘친단다.”

15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올곧으신 증거!
태산같이 거룩하신 나의 주님!

93편

1-2 왕이신 하나님이 위엄을 두르고 다스리시네.
위엄과 능력의 왕복을 입고 통치하시네.

아무렴요! 이 세상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주님의 왕좌 늘 견고합니다!

3-4 하나님,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바다폭풍이 거칠게 포효하며
천둥과 함께 몰아치고 있어요. (기캐-기상캐스터^^)

하지만 바다폭풍보다 강한 분이 계셔.
바다폭풍, 거센 파도보다 힘센 분이 계시지.
능력의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셔.

5 늘 그래왔듯, 주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지죠.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주님 통치의 상징!
영원, 영원히!

94편

1-2 하나님, 악을 끝장내 주세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세요!

세상의 심판자 하나님, 일어나셔서
오만한 자들을 꾸짖어 주세요.

3-4 하나님, 악인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저리 잘도 빠져나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두시렵니까?
저들이 으쓱해서는 저리 자랑질을 해대는데,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저리 떠벌리고 다니는데....

5-7 하나님, 저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있어요.
주의 소중한 백성을 착취하고 학대해요.
자기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다 제거하고,
이용가치 없으면 그대로 죽여 버려요. (토사구팽 兎死狗烹^^)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셔.
야곱의 하나님은 점심 드시러 나가셨거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8-11 과연 그럴까? 이 멍청이들아, 다시 생각해 봐!
바보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굴래?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들으실 것 같니?
눈을 빚으신 분이 못 보실 것 같냐고?
너희 생각엔 만국의 코치님이 가만 놔두실 것 같아?
아담의 스승님이 모르실 것 같난 말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뭐든 다 아신단다.
너희의 어리석음도,
너희의 천박함까지도....

12-15 주께 훈련받는 남자,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여자, 얼마나 복된지요!
악인들을 수용할 감옥을 짓는 동안에도,
악이 아우성치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리는 그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저버리지도,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결코 내치지도 않으신다네.
안심하세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으니,
마음이 선한 자들이 그 길을 따를 테니....

16-19 악인들에 맞서 날 옹호해 준 분이 누구였지?

악한들에 대항해 내 편에 서 준 분이 누구였나?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다면

난 절대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제가 미끄러져요, 제가 넘어진다고요!'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주의 사랑이 절 잡아주셨죠. 주의 사랑이 절 꼭 안아주셨죠.

너무 속상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주님이 절 다독이며 격려해 주셨죠.

20-23 악정(惡政)과 주님, 공통점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악당과 하나님, 같은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작당해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자 등뒤에서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어 주셨다네.

깊은 산속 내 휴양지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 쩌션^^)

그들이 던진 악의 부메랑,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의 악랄한 행위, 여지없이 소탕하셨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없애 주셨지.

95편

1-2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큰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붕이 들썩이도록....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계신 곳에 행진해 들어갑시다.

우리의 찬송으로 대들보가 들썩이게 합시다!

3-5 웬지 아세요? 하나님은 최고시니까요.

그 어떤 신보다 높으신 왕이니까요...!

한 손엔 크고 깊은 동굴을,

다른 한 손엔 높은 산들을 잡고 계신 주님!

바다의 창조자도, 대양의 소유주도,
손수 지구를 조각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시니까요!

6-7 그러니 다 와서 예배합시다. 주님께 절하며,
우릴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얼씨구, 그분은 우리 하나님,
지화자,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백성, 주님이 먹이시는 양떼!

7-11 하던 일을 멈추고 들어보세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너희 귀를 틀어막지 말거라. 끔찍한 반역을 저지르던 때처럼....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날 시험하던 날,
날 배신하고 시험하던 때처럼 그러지 말거라.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내가 그들을 위해 일하는 걸 보고도
끊임없이 내 인내심을 테스트했지.
거기에 결국 난 폭발하고 말았어, 맞아, 내가 폭발했다고!
‘단 5분만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순 없는 거니?
내 길 걷기를 무작정 거부하는 거야?’ (이유 없는 반항^^)
그래, 난 너무 화가 나서 말했어.
‘그들은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거다.
거기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할 거라고!’”

96편

1-2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지구여,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이여, 노래하세요!
하나님께 노래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2-3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님의 승전보를 외치세요.
낙오된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소식을 전하세요.
세상 모든 이에게 주님의 경이로운 소식을 전하세요!

4-5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할렐루야를 수천 번 외쳐도 모자라죠.
주님의 강렬한 아름다움에 다른 신들이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네요.
너덜너덜 누더기에 불과한 이방신들이....

5-6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주님에게서 왕의 광채가 흘러나오네요.
강력한 아름다움이 주님을 돋보이게 하네요.

7 브라보, 하나님, 브라보!
모두 다 함성을 외치세요. 앙코르! (썩튼썩^^)
그 아름다움에, 그 전능하심에 압도되어....

8-9 선물을 드리며 축하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엎드립시다.
무릎 꿇고.... 모두 예배합시다!

10 이 소식을 널리 전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건고한 기초 위에 세상을 세우신 주님!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시는 주님!

11 하늘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땅도 함께 소리치네요.
바다도 큰소리로 박수치네요.

12 광야야, 재주를 넘거라.
동물들아, 와서 춤추거라.
숲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 모아 찬양하거라.

13 하나님 오실 때, 그분 앞에서 화려한 쇼를 선보이거라.
이 땅의 일들을 바로잡으러 오실 때,
모든 걸 바로잡으시고, 모든 이를 공정하게 대하실 때....

97편

1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모두가 큰소리로 환호하네.

대륙과 섬들이 맘껏 축하하네.

2 흰구름과 먹구름이 주님을 에워싸고
정의와 공의가 주님 통치 아래 닳을 내리네.

3 주님 앞에 불꽃이 타오르네.
높은 산들 위로 화염이 치솟네.

4 주님의 번개, 세상을 밝히니
땅이 놀라 눈을 번쩍 뜨네. (스마일, 찡긐!^^)

5 산들이 하나님을 보고
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좇듯처럼 녹아내리네.

6 하늘이 선포하네. "주님이 모든 걸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 선포가 실현되는 걸 우리 함께 보니 영광이로다!"

7-8 후회하게 되리, 사람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자들,
싸구려 신을 자랑으로 삼던 그들....

너희 모든 신들아,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거라!
시온아, 주님 말씀 듣고 용기를 내거라!

시온의 딸들아, 온 마음으로 찬양하거라.
모든 걸 성취하신 하나님을, 모든 걸 바로잡으신 주님을!

9 하나님, 높으신 주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신보다 훨씬 더 높으신 주님!

10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안전을 지켜주셔.
악인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낚아채 올리셔.

11 하나님 백성의 영혼에 빛의 씨앗이 심겨졌네.
그 선한 마음밭에 기쁨의 씨앗이 뿌려졌네.

12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98편

1 새로 지은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세요. (따끈따끈 신곡^^)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신 주님께!

2 구원의 역사를 쓰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신 주님께!

3 거기에 보너스로, 우릴 사랑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지.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지.

온 땅이 주목하고 있구나.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4 우리 모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음을 열고 노래해요! 악단을 모아요!

5 하나님을 위해 연주할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요! (왕립 관현악단^^)

100명의 성가대도 함께해요!

6 트럼펫과 큰 트럼본을 연주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하늘 가득 찬양을 올려드려요.

7 바다와 그 안의 물고기도 박수를 올려드리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도 함께 환호하렴!

8 바다의 파도가 '앙코르!'를 외치면
산들이 화음을 넣어 피날레를 장식하렴!

9 주님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세상을 바로잡으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온 세상을 바로잡으실 테니,
세상 모든 이들을 바로 세우실 테니....

99편

1-3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들의 왕좌에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위엄 있게 나타나셔서
세상 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끝이 다름^^)
지극히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모두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 오, 거룩!

4-5 능력의 왕, 정의의 연인,
공명과 정의로 세상을 지으신 주님,
야곱 안에 터전을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의 초석을 놓으신 주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주님의 통치!

거룩, 오, 거룩!

6-9 주님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와 아론
주님께 기도했던 사무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셨죠.
구름기둥 안에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주신 율법을 청종하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렇다고 주님이 그들 죄를 가볍게 여기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합시다!
거룩, 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100편

감사의 시

- 1-2 다 일어나 하나님을 환호하세요!
주님께 웃음을 선물로 드리세요.
자신을 노래로 드리세요.
- 3 잘 알아 두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걸,
주님이 우릴 만드셨지, 우리가 주님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이 정성껏 돌보시는 양이라는 걸....
- 4 '감사'라는 암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세요.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께 찬사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을 경배하세요.
- 5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시니까요.
주님은, 사랑 그 자체시니까요.
변치않는 신실함 그 자체시니까요.

101편

다윗의 시

1-8 나의 주제가(18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 이걸 주님께 노래로 불러드립니다.
전 지금 올바르게 사는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실는지....
전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집-진짜 중요한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지요.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
타락한 자들과 부패한 일들?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으려 하고요,
가나안산(産) 신들? 거들떠도 안 보고요,
더러운 건 멀리하려 하고요. (근묵자흑近墨者黑^^)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 가까이도 안 가고요,
악을 꾀하는 자들? 악수조차 안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험담하는 자들 틈에 섞이지 않으려
제 입에 재갈까지 물렸고요,
오만한 자들은
절대 안 봐주죠.
반면 세상의 소금인 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고요.
좁은 길, 바른 길을 걷는 이들
그들을 제 곁에 두고 싶어하죠.
거짓말쟁이들은 질색팔색,
상종도 안 하고요,
악인들은 개 끌 듯 끌고 가
국외로 추방했지요.
악을 업으로 삼는 자들도
하나님의 도성에서 다 쫓아냈답니다.

102편

벼랑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1-2 하나님, 들어보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가 주님을 이토록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제게서 등 돌리지 마세요.
주목해주세요! 도와달라는 이 외침에!
빨리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3-11 피골이 상접한 채 (종이인형 몸매^^)
열이 펄펄 끓고 있어요.
저 자신은 사라지고 유령이 된 느낌이에요.
죽을 날을 받아 놓은, 산 송장이 된 것 같아요. (기분탓인가?^^)
이를 하도 악물어 턱이 아플 지경,
마를 대로 마른 이 몸, 살가죽만 남았네.
사막의 외로운 독수리처럼,
쓰레기더미에 앉아 있는 까마귀처럼,
시궁창에 빠진 참새처럼,
애처로이 밤새 잠 못 이루며 중얼중얼....
그런데도 원수들은 온종일 날 조롱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온통 저주뿐이구나.
그들이 갖다 주는 음식이라곤 재로 만든 나물,
나의 음료는 눈물샘에서 길어 올린 눈물 한 바가지.
이게 다 주님의 무서운 진노 때문이에요.
주님이 절 쓸어버리시고, 절 내쫓으셨기 때문이라고요.
이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길에서 쓸려나가 시들어버린 잡초 신세....

12-17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주권자시죠.
주님의 통치는 영원무궁하니
시온을 도우시려 보좌에서 일어서신 주님,

지금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 폐허로 변한 이 도성을,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너진 잔해 위에서 슬프게 울고 있네요!
불경건한 나라들, 똑바로 앉아 보게 되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이름 경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시온을 재건하실 때,
큰 영광 중에 주님 나타나실 때,
가련한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때,
주님이 그들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실 때....

18-22 이걸 기록으로 남겨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 훗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 높고 거룩한 곳에서 굽어보셨대.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셨대.
죽어가는 자들 신음소리 들어 주셨대.
사형수의 감방문을 열어 주셨대."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시온에게 전해주세요.
백성들과 통치자들 주님 경배하러
모이는 곳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23-28 하나님이 저를 그 주권 아래 무릎 꿇리셨죠.
제 최고 전성기때 저를 치셨죠.
하지만 전 기도했어요. "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절 죽게 놔두지 마세요.
영원무궁한 시간을 가지신 주님,
오래전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손수 하늘을 빚으신 주님,
땅과 하늘이 낡아 누더기로 사라져도
여전히 살아 계신 주님,
그것들이 헤어진 외투처럼 버려진 이후에도, (의류수거함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새로우신 주님!
주의 종의 후손들, 좋은 곳을 차지해 살고
대대손손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거예요."

103편

다윗의 시

1-2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송축하여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네가 받은 축복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3-5 주님은 너의 죄,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단다.
주님은 너의 병, 네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단다.
주님은 너를 지옥에서 구해 주신단다, 네 목숨을 건져 주신단다!
사랑과 자비의 관, 천국의 면류관을 네 머리에 씌우시고,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널 영원히 감싸 주신단다.
네 젊음을 회복시켜 주신단다. 주님 앞에서 늘 젊음을 유지하게 해 주신단다.

6-18 하나님은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신단다.
피해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단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당신의 계획 온 이스라엘에게 공개하셨단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 그 자체시란다.
여간해선 화내지 않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란다.
끝없는 잔소리로 꾸짖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원한을 품지 않는 분이시란다.
우리의 죄값을 받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잘못을 곧이곧대로 응징하지 않는 분이시란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사랑,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크고 크단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떨어뜨려 놓으신 간격,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만큼 멀고 멀단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모가 자녀 대하듯 대하신단다.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신단다.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잊지 않으신단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일장춘몽!
제아무리 싹 틔우고 꽃 피워도
단 한번 폭풍우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들꽃 같은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무궁하시단다.
주님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
자녀들과 함께 주님 언약의 길 따르면,
주님의 모든 말씀 기억하기만 한다면,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신단다.

19-22 하늘 왕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왕이시란다!
그러니 너희 천사들아, 하나님을 송축하거라.
주님의 명 받아 언제든 날아오를 준비를 하거라.
주님 말씀 떨어지면 속히 행할 준비를 하거라. (1분 대기조^^)
너희 모든 천군천사들아, 하나님을 송축하거라.
주님 뜻이라면 뭐든 즉시 응답하거라.
모든 피조물들아,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거라.
하나님께 지음 받은 만물들아, 만인들아!

그리고 너, 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104편

1-14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옷 입으시고
햇빛으로 단장하셨네요.
온 하늘을 펼쳐 주님 장막 삼으셨네요.

깊은 바다 위에 주님 궁전 지으시고
 구름전차 만들어 바람날개 타고 날아오르신 주님!
 바람을 전령으로 임명하시고
 불과 화염을 대사로 지명하신 주님!
 견고한 터 위에 땅을 세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만드신 주님!
 바다로 지구의 이불을 삼으시고
 깊은 물로 산을 덮으신 주님!
 주님이 고함치시니 물이 도망가고
 천둥을 발하시니 물이 날아갔네.
 주님 정하신 그곳에
 산들이 솟아나고 계곡이 펼쳐졌네.
 땅과 바다 사이, 경계를 만드셔서
 다시는 물이 땅을 침범치 못하게 하셨네.
 샘과 강을 만드신 후
 언덕 사이사이에 흘러보내셨네.
 모든 야생동물들 실컷 그 물 마시라고,
 목마른 들나귀들 맘껏 해갈하라고,
 강둑 따라 새들 둥지 틀고
 까마귀들 목청껏 노래하라고....
 하늘 저수지 물을 산에 흘리시니 (산천수, 아니 천천수^^)
 땅이 충분한 물을 공급받네.
 가축들 먹을 풀을 자라게 하시고
 밭 가는 동물들 위해 건초를 준비하셨네.

14-23 아무럼,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네.
 그렇지, 포도주로 사람들 즐겁게 하시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니
 그들 얼굴에 건강미가 넘치네.
 나무들에게 물을 흠뻑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에 물을 주시니
 새들이 나무에 둥지를 트네.
 보아라, 나무꼭대기집에 사는 황새를!

산양들이 절벽을 오르고
 오소리가 바위틈에 기어드네.
 달을 따라 변화하는 계절
 해를 따라 움직이는 하루
 밤이 되어 날 어두우니
 숲 속 모든 생물이 얼굴을 내미네.
 젊은 사자들, 먹잇감을 찾아 포효하며
 저녁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치네.
 그러다 태양이 떠오르면 슬금슬금 들어가
 자기 굴 속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네.
 그 사이 사람들은 일하러 나와
 저녁까지 분주히 움직이네.

24-30 하나님,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요! (What a wonderful world!^^)

깊은 지혜로 만물을 만드신 주님!
 온 지구가 주님의 놀라운 창조물로 가득하네요.
 오, 보아라. 저 깊고 넓은 바다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로 넘쳐나는,
 정어리와 상어와 연어들이 가득한 바다를!
 바닷물을 가르며 지나가는 배들,
 그 속에서 뛰노는 주님의 애완동물, 리워야단 용!
 모든 생물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네요.
 때맞춰 식사를 달라 졸라대네요.
 주님 오심 보고 웅기종기 모여들어
 주님의 펼친 손에서 먹이를 받아먹네요.
 주님이 그들을 저버리시면
 그들은 1분도 못 살고 죽고 말죠.
 주님의 영을 거두시면 당장 죽어
 그들의 본질인 진흙으로 돌아가죠.
 주님의 영을 보내주세요. 그들의 생명 피어나도록,
 온 땅에 생명이 만발하도록....

31-32 하나님의 영광, 영원무궁히!

하나님, 맘껏 즐기세요, 친히 지으신 창조물들을!
주님이 땅 한번 쏘아보시니 지진이 일어나고
산 한번 가리키시니 화산이 폭발하네요.

33-35 오, 내 평생 하나님께 노래하리.
내가 사는 내내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
오, 내 노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
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죄인들은 이 땅에서 치워버리세요.
불경건한 사람들을 더 이상 남겨두지 마세요.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105편

1-6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만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세요!
주님께 노래를 불러 드리세요. 힘찬 찬송을 올려드리세요.
주님의 경이로움을 음악으로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외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드리세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목하세요.
주님의 임재의 신호에 주의하세요.
주님이 만드신 경이로운 세상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 주님이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세요.
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의 씨여!
오 주님이 택하신 야곱의 자녀여!

7-15 그분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약속하신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는 분!
 천 세대 동안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 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주신 동일한 맹세,
 야곱과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내가 네게 땅을 주마.
 유산으로 가나안 산지를 주마.”
 당시엔 그들 수가 많지 않았는데도,
 한줌도 안 되는 나그네로 살고 있었는데도,
 이 나라 저 나라를 방랑하며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았는데도,
 주님은 아무도 그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하셨죠.
 다른 나라 왕들이 손도 못 대게 하셨죠.
 “내가 기름 부은 자에게 감히 손 댈 생각 말거라.
 내 선지자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거라.”

16-22 그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내리셨죠.
 마지막 밀이삭까지 부러뜨리셨죠.
 하지만 그에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가 바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들은 요셉의 발목에 잔인한 족쇄를,
 그의 목에 쇠고랑을 채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이 왕을 보내셔서 요셉을 풀어주게 하시니
 바로가 요셉을 석방시켜줬죠.
 바로는 요셉을 왕궁 책임자로 임명하고
 자기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죠.
 자기의 신하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치게 하고
 자기의 참모들을 지혜롭게 훈련하게 했죠.

23-42 그후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죠.
 야곱이 함의 땅으로 이민을 갔죠.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많은 아기들을 주시니
 곧 그들 수가 많아져 적에게 위협이 됐죠.
 그리고 애굽인들이 주님 백성을 등지게 하셨죠.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하고 속였죠.
 그때 주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셨죠.
 또한 함께 택한 아론도 보내셨죠.
 그들은 영적 황무지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죠.
 함의 땅에서 기적들을 행했죠.
 주님이 '어두워져라!'고 말씀하시자 온세상이 어두워졌고
 애굽인들은 자신의 손조차 볼 수 없었죠.
 주님이 모든 물을 피로 만드시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죠.
 온나라를 개구리 천지로 만드시자,
 왕의 침실까지 개구리로 가득했죠.
 주님이 명을 내리시자, 파리떼가 몰려들고
 공중에 이들이 가득 찼죠.
 또 비 대신 우박을 내리셔서
 애굽 땅을 번개로 파괴하셨죠.
 애굽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말라죽고
 그들의 나무 숲이 초토화됐죠.
 주님의 말씀 한 마디에 메뚜기떼가 들이닥쳤죠.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들, 거대한 메뚜기 군단이....
 메뚜기들은 전국의 풀잎을 다 먹어치웠죠.
 모든 농작물을 싸그리 해치웠죠.
 그리고 주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죽이셨죠.
 그들 정력의 첫 열매를 모조리 죽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셨죠. 그들 손에 전리품을 가득 쥐어 준 채....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비틀거리지 않았죠.
 애굽은 기꺼이 그들을 보내줬죠.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더위를 식힐 구름을 펼쳐 주셨고

밤에는 그들 길을 인도할 불빛을 밝혀 주셨죠.
그들이 기도하자 주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하늘나라 빵으로 배불리 먹여 주셨죠. (made in Heaven^^)
주님은 또 바위를 열어 물이 쏟아지게 하셨죠.
그 물로 사막에 흐르는 강이 되게 하셨죠.
이 모든 건 다 주님이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

43-45 잊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 백성이 기쁨에 겨워 노래하게 하신다는 걸,
당신이 택한 백성이 가슴 터져라 노래하며 행진하게 하신다는 걸....
주님은 그들이 들어간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 나라들 재산이 그들 차지이 되게 하셨죠.
그들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계명 토씨 하나까지 다 지킬 수 있도록....

할렐루야!

106편

1-3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고요?
주님은 선하시니까요. 그 사랑 영원하니까요.
이 세상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의 선포, 주님 찬양소리를 다 전하는 방송을...? (수퍼 유튜버^^)
그대가 만약 옳은 일을 한다면 그대는 행복한 남자입니다.
그대가 만약 공의로운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대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4-5 하나님, 절 기억해주세요, 주님의 백성을 즐거워하실 때....
저도 잊지 말고 께 주세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저는 주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주님의 자량과 기쁨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도 있고 싶어요!

6-12 우리 조상들과 우리는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부족함이 많은 우리,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죠.
출애굽 후 우리 조상들은
주님의 기적들을 당연시했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까맣게 잊은 거죠.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마터면 홍해도 못 건널 뻔했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놀라운 능력 행하신 바로 그곳에서!
하지만 주님이 홍해를 꾸짖으시자 홍해가 그 자리에서 말라붙었죠.
주님은 그들이 홍해를 행진하게 하셨죠.
아무도 발이 젖지 않은 채.... (발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주님은 그들을 억압받던 삶에서 구해내셨죠.
원수의 손아귀에서 끌어내셨죠.
그런 다음, 물이 압제자들에게 덮쳤죠.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죠.
그제야 그들은 주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죠.
찬양의 노래가 그들 입에서 터져 나왔죠.

13-18 하지만 그들은 오래잖아 모든 걸 잊었죠.
주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죠.
그들이 유일하게 신경 쓴 거라곤, 광야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뿐...,
그들은 끈질긴 요구로 하나님을 자극했죠.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족족 다 들어주셨죠.
하지만 그걸 받고도 그들 마음은 공허했죠.
그러다 진영에서 몇몇이 모세를 질투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아론을 질투했죠.
그러자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켰죠.
그렇게 아비람 일당을 물어버렸죠.
반역의 무리에게 불길이 치솟았고
그들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었죠.

19-22 그들은 호렙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기들이 만든 신상을 예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싸구려 조각품-풀이나 뜯는 수소-과 바꾸다니...!

그들은 하나님, 바로 자기네 구원자를 잊었죠.

애굽에서 상황을 반전시킨 분을 잊은 거죠.

함의 땅에서 경이로운 일들을 벌이신 분,

홍해에서 그 멋진 공연을 펼치신 분을 잊었다구요!

23-27 거기에 질리신 하나님은 그들을 얹애기로 마음먹으셨죠.

주님이 택하신, 주님이 아끼시는 모세만 빼고....

하지만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죠.

주님의 진노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걸 막았죠.

그들은 계속해서 축복의 땅을 거부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눈곱만큼도 안 믿었죠.

눈앞의 현실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 버렸죠.

그러자 하나님은 화가 나 맹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치겠다.

그들 자손을 뿔뿔이 흩어 놓겠다.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 놓겠다.”

28-31 그후 그들은 바알 브올에게 마음을 빼앗겨

장례식 연회에 참석해 우상의 음식을 먹었죠.

그 일로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서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비느하스가 일어나 ‘이 일을 끝장내겠다’고 맹세했죠.

그래서 전염병이 멈췄죠.

이 일로 비느하스의 공로가 치하된 사실을

그의 후손들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32-33 그들은 므리바 샘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화를 돋우었죠.

이번엔 모세도 그들의 악에 말려들었죠.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자
모세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만 거예요.

34-39 그들은 '불경건한 문화를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도리어 이교도들과 결혼했고
점차 그들과 똑같이 되어갔죠.
이교도의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우상의 멍에 걸려들고 만 거죠.
마귀의 신들 제단에
아들딸을 희생제물로 바쳤죠.
자기 아기의 목을 베고,
갓난아이를 살해해,
자기 아기를 가나안의 신들에게 바쳤죠.
그렇게 아기들의 피로 그 땅이 오염됐고
그들의 삶엔 악취가 진동했죠.
그들이 창녀처럼 살았으니까요.

40-43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들불처럼 진노가 타오르셨죠.
당신 백성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어
그들을 이교도에게 넘기셨죠.
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의 압제를 받게 하신 거죠.
그들은 원수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았죠.
원수의 폭정 아래 고통을 겪었죠.
하나님이 수없이 그들을 구해 주셨건만, 그들은 끝내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자기네 죄로 인해 파멸당하고 말았죠.

44-4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의 구조요청에 귀 기울이셨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 손을 잡아 주셨고,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쏟아부어 주셨죠.
그러자 그들의 포획자들이 놀라서 바라봤죠.

47-48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릴 구원해주세요!
포로로 끌려온 우리를 다시 한 데로 모아 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고
주님 찬양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세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오, 모두 다 '아멘!'이라고 외치세요!
할렐루야!

제5권

107편

1-3 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주님 사랑은 절대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알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압제당하던 여러분을 주님이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모아 주셨는지....

동서남북, 5대양 6대주에서 어떻게 불러모아 주셨는지....

4-9 여러분 중에는 광야에서 수년간 방황한 사람도 있죠.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진 못한 채

굶주림과 타는 갈증에 시달려

기진맥진 비틀비틀 휘청거렸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고

주님은 아슬아슬, 적시에 여러분을 구해 주셨죠.

놀라운 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살기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곧장 데려가셨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푸신 기적 같은 자비에....

바싹 마른 목구멍에 물을 콰콰 부어 주시고

주리고 허기진 배, 배불리 먹여 주신 주님께....

10-16 여러분 중에는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었던 사람도 있죠.

끔찍한 철창에 갇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징벌로,

높으신 하나님 조언을 등진 것에 대한 채벌로....

무거운 선고에 무거워진 마음....

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었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고
주님은 아슬아슬, 적시에 여러분을 구해 주셨죠.
칠흑같이 어두운 감방에서 꺼내 주셨죠.
감옥문을 부수고 여러분을 끌어내 주셨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푸신 기적 같은 자비에....
육중한 감옥문 깨뜨리시고
철창을 성냥개비처럼 부숴뜨리신 주님께!

17-22 여러분 중에는 개떡 같이 산 것에 대한 징벌로 아팠던 사람들이 있죠.
몸이 죄의 파장에 시달렸던 거죠.
음식만 쳐다봐도 구역질이 나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만큼 비참했었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고
주님은 아슬아슬, 적시에 여러분을 구해 주셨죠.
주님이 치유의 말씀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던 여러분을 끄집어 내셨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자비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세요.
세상에 알리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큰소리로 노래하세요, 주님의 업적을!

23-32 여러분 중에는 사업차 큰 배에 돛을 달아
머나먼 항구로 항해를 떠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기가 막히게 바다를 다루시는 주님의 기술을 보았죠.
말씀 한 마디로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바다 폭풍과 솟구치는 파도를 일으키시자,
여러분은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바닥까지 내동댕이쳐졌죠.
여러분의 심장은 목구멍에 걸렸고,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면서,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죠. (위아래를 몰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고

주님은 아슬아슬, 적시에 여러분을 구해 주셨죠.
바람을 휘파람처럼 잠잠케 하시고
큰 파도에게 재갈을 물리셨죠.
그렇게 폭풍이 잦아드는 걸 보고 여러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주님은 여러분을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푸신 기적 같은 자비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큰소리로 찬양하세요.
장로들이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당회 소집^^)

33-41 하나님이 강을 황무지로 바꾸시고
햇빛으로 샘을 말려 진흙으로 만드신 건,
아름다운 과수원을 알칼리토양으로 바꾸신 것도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황무지를 다시 맑은 연못으로 바꾸셨죠.
진흙탕을 맑은 샘으로 만드신 후
굶주린 자들을 데려다 정착시키셨죠.
그들이 이주해 온 그곳은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는지...!
그들은 밭에 씨도 뿌리고 포도원도 가꾸었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죠.
주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번창한 거예요.
가축떼도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었죠.
반면 학대와 악과 고난은 줄어들었죠.
주님이 그 땅의 왕들을 조롱하며 쫓아내신 덕에....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주셨죠.
정성껏 돌보는 양떼처럼 그들 가족을 대하셨죠.

42-43 선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기뻐하지만
악인들은 가던 길을 멈춘 채 할 말을 잃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현명하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해야 할 때라는 걸....

108편

다윗의 기도

1-2 저는 준비됐어요. 하나님, 만반의 준비가 됐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준비돼 있어요.

소리 높여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깨어나라,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일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3-6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리로 뛰쳐나가,

도시에서, 시골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깊어질수록 더 높아집니다. (뭔가 심오한^^)

주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구름들이 깃발처럼 펄럭입니다.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세요!

주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어주세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

저를 위해 손 뻗어 도와주세요. 제게 응답해주세요!

7-9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 가운데 말씀하셨죠.

“내가 기쁨에 겨워

세겔을 선물로 주고,

숙곳 계곡을 선뜻 내 주마.

길르앗이 내 손 안에 있단다.

므낏세는 말할 것도 없고....

에브라임은 내 안전모,

유다는 나의 망치,

하지만 모압은 청소용 양동이,

난 모압으로 바닥을 닦지.

에돔엔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역에 불을 퍼붓지.”

10-11 누가 절 치열한 싸움터로 데려다 줄까요?

누가 제게 에돔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까요?
하나님, 설마 우릴 포기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길 거부하시는 건 아니죠?

12-13 도와주세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모없어요.
주님이 원수들을 영원히 처단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109편

다윗의 기도

1-5 나의 하나님, 저의 할렐루야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들이 제게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그들이 개떼처럼 절 쫓아다니며 거짓의 혀로 증오를 쏟아내고
제 발꿈치를 물어뜯어요. 아무런 이유없이....
전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절 비방하네요. 네, 바로 저를요!
내가 기도하는 걸 무슨 범죄나 저지르는 것처럼 여기며,
내가 베푼 사랑을 증오로 갚다니...!
어쩔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죠? (머리 검은 짐승^^)

6-20 악인을 보내셔서, 절 고소한 법관을 고발하게 하세요.
사탄을 파견하셔서, 그 법관을 기소하게 하세요.
그 법관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세요.
그의 기도마다 다 죄악이 되게 하세요.
그가 요절하여
다른 사람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세요.
그의 아이들을 고아로 만드세요.
그의 아내에게 과부의 상복을 입히세요.
그의 자녀들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만드세요.
집에서 쫓겨난 노숙자로 만드세요.

은행의 압류로 그가 파산하게 하세요.
 생면부지 사람들이 독수리처럼 그를 남김없이 쪼아먹게 하세요.
 주변에 그를 도울 이, 아무도 없게 하세요.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 아무도 돌봐 줄 사람 없게 하세요.
 그의 족보가 끊기게 하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 아무도 없게 하세요.
 그들 아버지의 죄악을 기념비로 세우세요.
 그들 어머니의 이름도 그 비에 새기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 죄악이 영구기록 되게 하세요. (구글 클라우드에^^)
 반면 그들 자신은 망각의 늪에 가라앉게 하세요.
 그래도 싸지요, 그 사람은 한번도 친절을 베푼 적이 없었으니....
 고통받는 자, 상심한 자들을 무덤 끝까지 쫓아다녔으니,
 그렇게 저주하길 좋아했으니,
 그렇게 좋아하던 저주를 그에게 쏟아부으세요.
 그가 남을 축복하는 데에는 전혀 취미가 없었으니
 그에게서도 축복이 멀리 달아나게 하세요.
 그가 저주의 옷을 차려 입고 다니며,
 저주의 잔을 마시고, 저주의 물로 목욕했으니
 그에게 저주의 의상을 선물하셔서
 일주일 내내 그 옷만 입고 다니게 하세요. (단별신사^^)
 그럼 날 잡으러 나온 그들이 얻게 될 건
 '하나님이 보내신 정의의 쓰나미'뿐일 테니....

21-25 오, 하나님, 나의 주님, 개입해주세요.
 절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절 여기서 꺼내 주세요, 크디 큰 주님 사랑으로!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제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요!
 제가 꺼져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내 청춘이 가버렸어요. 전성기를 맞기도 전에 늙어버렸다구요. (내 청춘 돌리도~!^^)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요.
 피골이 상접해 양상한 뼈다귀만 남았고
 사람들이 절 썰렁한 농담거리로 여겨요. (아재개그^^)
 그들이 절 힐끔 보고는 고개를 가로젓네요.

26-29 도와주세요, 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절 구해주세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럼 그들도 주님이 손쓰고 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들더러 실컷 절 저주하라 하세요.
 주님이 절 축복하시면 그만이니깐요.
 그들이 일어설 때, 군중의 야유를 받게 하세요.
 하지만 주의 종인 제가 일어설 땐 환호를 받게 해주세요.
 저를 고소하는 자들에게 더러운 수치의 옷을 입히세요.
 낚아서 내다 버린 누추한 누더기를.... (재활용 의류함에서 건진^^)

30-31 내 입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하답니다.
 군중에 둘러싸여 할렐루야를 노래하죠.
 늘 가난한 사람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
 불공정한 재판관에게서 목숨을 구해주시는 주님께!

110편

다윗의 기도

1-3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보좌 옆에 나란히 앉자꾸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신발땀이 매트로 만들어주마.”
 원수에게 둘러싸여 계신 주님, 이제 통치하소서!
 시온의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통치의 홀로!
 주님의 승리의 날, 그 위대한 날에,
 거룩함에 빛나는 갑옷 입은 주의 백성,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쾌한 하루가 시작될 때,
 힘찬 젊음의 활기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4-7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주님!
 하나님은 주의 편에 서셔서
 불 같은 진노로 왕들을 무너뜨리시죠.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죠.
 '유죄판결'을 도매값으로 싸게 넘기셔서 (골라 골라! 유죄판결 덤핑처리^^)
 저 멀리 있는 원수들까지 다 박살내시죠.
 킹메이커이신 하나님이 주님을 왕좌에 앉히셨네요.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고개를 치켜들고 통치하시네요.

111편

1-10 할렐루야!
 제가 가진 모든 걸 총동원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회중이 있는 곳, 어디서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
 일평생 공부해도 늘 즐겁기만 한 걸요?
 장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
 다함이 없는 그분의 너그러움,
 기념비적인 주님의 기적들,
 그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주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오래 전 약속을 기억해 지키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능력, 백성들에게 증명하셨네.
 다른 나라들을 접시에 담아, 당신 백성에게 대접해 주셨네.
 진리와 공의를 생산해 내시는 공장장 (하 공장장님^^)
 품질보증이 영원한 주님의 제품들
 낡지도, 녹슬지도 않고, 유행도 안 타지.
 주님이 만드신 것, 행하신 것 다 순수하고 진실해.
 당신 백성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신 주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 주님!
 너무나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주님, 지극히 존경스러운 주님!

복된 삶의 출발점이 뭐냐고요? 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일단 한번 해 보시라니깐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테니....
주님 향한 할렐루야, 영원하여라!

112편

1-10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주님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즐거워하는 복받은 자들,
자녀들도 이 땅에서 건장하게 자라나니
정직한 자의 가정이 받는 복은 얼마나 큰지...!
가산이 넘쳐나고
배푸는 삶 끊임없네.
선한 이들에게는 어둠을 물리치는 해가 떠오르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의 해가!
선한 이들은 베풀길 좋아하고 아낌없이 빌려주니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일 없어.
높은 명성 또한 흔들림없이 지속된다네.
헛소리나 뒷담화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늘 갖춰져 있지.
영혼이 확고해 흔들리지 않아.
늘 축복 안에 사니, 원수들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가난한 자들과 좋은 걸 아낌없이 나누는
베풀의 삶이 끝없이 끝없이 계속된다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사악한 자가 보고 화가 나 못 견딜 걸?
시비 걸고자 달려들지만 결국 말문이 막힐 걸?
그렇게 악인들의 꿈은 허망하게 끝나지. 아무 꿈도 못 이룬 채....

113편

1-3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대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찬양이 된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된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동쪽에서 서쪽까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4-9 하나님은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
하늘의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나시는 분!
그 누구 감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위엄 있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장엄한 하늘, 드넓은 땅을
친히 살피시는 주님
가난한 자 진창에서 건져 내시고
버려져 잊혀진 자 쓰레기더미에서 구출하셔서
VIP들 사이, 가장 빛나고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영예의 자리에 앉혀 주시네.
자녀 없는 부부에게 가족을 주셔서 (하 불임클리닉^^)
부모가 되는 기쁨을 알게 해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114편

1-8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난 후,
야곱 자손들이 그 야만인들을 떠난 후,
유다가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었지.
이스라엘이 주님의 거룩한 통치 영역이 되었지.
바다가 그들을 보고 놀라 도망쳤어.

요단강이 물러나 저 멀리 달아났어.
 산들이 숫양처럼 즐겁게 강총강총 뛰고
 언덕들이 봄날 어린양처럼 폴짝폴짝 뛰놀았어.
 바다야, 네가 도망가다니, 어떻게 된 거야?
 너, 요단강아, 네가 달아나다니, 어떻게 된 거니?
 산들아, 넌 어쩌다 숫양처럼 즐겁게 뛰고,
 너, 언덕들아, 넌 또 왜 봄날 어린양들처럼 뛰는 거니?
 땅아, 두려워 떨어라! 주님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반석을 시원한 연못으로 바꾸셨네.
 주님이 바위에서 신선한 샘물을 만드셨네.

115편

1-2 우릴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렴요, 하나님, 우릴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이름을 위해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해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어떤 나라도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3-8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단다.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면 뭐든 다 하시지.
 저들의 신들은 쇠덩이와 나무로 만든 걸?
 지하 공방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조각도로 판 입, 말을 못하고
 붓으로 그린 눈, 보지 못해.
 주석으로 만든 귀, 듣지 못하고
 빔어서 붙인 코, 냄새도 못 맡아.
 손이 있어도 움켜잡을 수 없고, 발이 있어도 걷거나 뛰지 못해.
 목구멍이 있어도 목소리 한번 못 내.

우상을 만든 자들 역시 이 우상처럼 되고 말았어.
자기들이 의지하는 우상이랑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지.

9-11 하지만 너, 이스라엘아, 넌 하나님을 신뢰하렴!
넌 도우시는 분, 널 다스리시는 분을!
아론의 후예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렴!
넌 도우시는 분, 널 다스리시는 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렴!
넌 도우시는 분, 널 다스리시는 분을!

12-16 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세요.
이스라엘과 아론 집안에 복을 내려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내려 주세요.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복 내려 주세요.
아무렴,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을 창대케 해 주시길!
번성시켜 주시길! 너희 자녀들을 번성시켜 주시길!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길!
모든 하늘들 위의 하늘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만
지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네.

17-18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땅에 묻힌 자의 소리, 한 마디도 안 들리죠.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한답니다. 아무렴요!
지금도 주님을 송축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송축한답니다!
할렐루야!

116편

1-6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때, 주님 내 간구 들어주셨지.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내 형편을 아를 때
얼마나 열심히 들어주셨는지...!
죽음이 날 정면으로 쏘아볼 때,
지옥이 내 발꿈치 바짝 쫓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절규하며 도움을 청했네.
“제발요, 하나님!” 내가 목놓아 외쳤지.
“제 목숨을 구해주세요!”

그러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걸 바로잡아 주셨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편이 돼 주시네.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날 구해 주셨네.

7-8 난 속으로 말했어. “걱정 말고 맘 편히 가지렴.
하나님이 네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으니까.
내 영혼아, 넌 사망에서 구조됐단다.
내 눈아, 넌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단다.
그리고 너, 내 발아, 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단다.”

9-11 하나님 앞에서 내 걸음걸이 당당해졌네.
생명의 땅에서 내가 활기를 되찾았네.
내가 상황에 압도당할 때에도,
불운이 때로 몰려올 때에도, 난 끝내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켰어.
인간이란 종자에 대해 실망하고 포기할 때에도,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라 생각될 때도, 난 끝내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켰어.

12-19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내게 쏟아부어 주신 축복, 무엇으로 갚을까?
나, 높이 들리라, 하나님께 구원의 축배를!
나,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한 약속 이행하리라.
그 약속, 주의 백성과 함께 이행하리라.
언젠가 죽어 하늘문에 이를 때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리, 주님을 사랑한 자들을....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의 종이 여기 있어요.
 해방시켜 주세요,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전 감사의 제물을 드릴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나, 하나님께 한 약속 이행하리라.
 그 약속, 주의 백성과 함께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117편

1-2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쳐 드리세요, 다 함께!
 주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하시죠!
 할렐루야!

118편

1-4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주님의 사랑, 절대 끝이 없죠.
 이스라엘이여, 온 세상에 전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여러분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도 함께 전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5-16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내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탁 트인 넓은 곳에서....
 난 두렵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막강한 챔피언!
 내가 파리 쫓듯 원수들을 쫓아버렸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품으로 피신하는 게 천만 배 낫지요.
 유명인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게 수억 배 낫지요.
 내가 야만인들에게 포위됐지만,
 그들 얼굴을 진창에 처박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면초가에 처했지만,
 그들 얼굴을 진창에 처박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벌떼처럼, 들불처럼 달려들어 날 에워쌌지만
 그들 얼굴을 진창에 처박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벼랑 끝에 서 있던 나, 추락하기 일보직전이었지만
 하나님이 날 잡아 주시고 안아주셨죠.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지금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랍니다.
 들어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진영에서 들려오는 함성을,
 승리의 개가를....
 "하나님의 손에 전세가 뒤집혔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승리를 거두셨다!
 하나님의 손에 전세가 뒤집혔다!" (사글세도^^)

17-20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다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다니!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시느라, 강하게 밀어붙이신 건 사실이지만,
 날 죽음에 넘겨주진 않으셨지요.
 성문을 활짝 열어라! 정의의 문을 열어 젖혀라!
 나 곧장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 성전문은 하나님 것,

승리자들이 들어가 찬양한다네!

21-25 제게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 주님!

석공들이 '흠이 있다'고 버린 돌이

건물의 기초석이 되었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믿어지지 않네요.

오늘은 하나님이 행동하신 날!

다 같이 축제를 벌이며 축하합시다!

지금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구원해주세요!

네, 그래요, 하나님, 자유롭게 충만한 삶을 주세요!

26-29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씻어 주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화환으로 사당을 장식하세요.

제단에 총천연색 현수막을 다세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

오 나의 하나님, 제가 주님께 찬양을 높이 올려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119편

1-8 그대, 가야 할 길 따라 걷노라면 복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꾸준히 걷노라면,

주님의 지시 따르노라면,

주님 찾는 데 최선을 다하노라면....

맞아요. 바른 길 벗어나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정해 놓으신 길만 따라가세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바른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죠.
오, 주님 정하신 길을 따라갔더라면
내 발걸음 휘청거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늘 주님 조언에 비취 살았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었을 텐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주의 의로운 길 본받게 하시니....
주님, 절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주의 말씀대로 행할 터이니....

* * *

9-16 어떻게 하면 젊은이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의 지도를 주의 깊게 읽으면 되죠.
제가 온 맘 다해 주님 따르리니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게시하신 도로표지판....
주님 약속, 제 마음금고에 보관하니 (마음금고? 마음금고!^^)
제가 죄를 지어 파산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슬기롭게 사는 법을 깨우쳐 주세요. (슬기로운 이 땅 생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조언들,
제 입으로 그대로 선포할게요. (복붙^^)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쌓는 것보다
주님 교훈에 귀 기울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하나 묵상합니다, 주님에게서 나온 지혜....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삶에 관해 들려주신 말씀이 너무 좋아
한 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 * *

17-24 절 너그럽게 봐 주세요.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한 순간도 주님 길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 볼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한낱 나그네에 불과한 이 몸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세요. (4D 네비게이션^^)
제 영혼이 쫄쫄 굶어 배가 고파요.
영양 듬뿍 주님 계명에 주려 있어요!
끝장내 주세요! 뭐 좀 안다 생각하며
주님 말씀 무조건 무시하는 자들을....
절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행하려 애써온 저를....
못된 이웃들, 악의적으로 절 험담할 동안
전 주님의 지혜로운 조언에 침잠합니다.
그럼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삶의 지혜가 제 기쁨의 원천이기에,
선한 이웃이 하는 말처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답니다.

* * *

25-32 전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완전 최악이라구요!
절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주님께 제 애길 들려드릴 때, 주님 응답하셨잖아요.
주님의 깊은 지혜로 절 깨우쳐 주세요.
속속들이 이해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혜!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기적!
저의 슬픈 삶, 무너진 헛간처럼 황폐해졌으니
절 다시 세워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잘못된 길은 폐쇄시켜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명확한 계시로!
저는 목적지가 뚜렷한 진리의 길을 택해
골목마다, 거리마다, 주님의 표지판 계시해 뵈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뭐든 붙잡고 매달릴 테니
하나님, 절 방치하지 마세요!

절 위해 마련해 놓으신 길로 달려갈 테니
어떻게 가야 하는지만 알려주세요.

* * *

33-40 하나님, 제게 인생교훈을 주세요.
제가 따를 만한 교훈을....
통찰력을 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제 평생 순종하며 끝까지 따르도록....
주님 계명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그 고속도로로 여행하는 게 전 정말 좋아요! (아우토판^^)
주의 지혜의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주세요.
하지만 헛된 전리품에 대한 탐욕은 제어해주세요.
제가 헛된 장난감이나 장신구에 한눈팔지 않게 해주세요.
제게 힘을 더해주세요, 순례의 길 가도록....
주님 약속을 거둬 확인시켜 주세요.
주님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 약속을....
제거해주세요, 절 비판하는 자들의 매몰찬 말들을....
하지만 주님이 해 주시는 말씀은 정말 좋아요.
보세요, 주님의 조언을 제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주의 의로운 길로 제 생명을 보존해주세요!

* * *

41-48 하나님, 제 삶을 빚어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구원으로 제 인생을 빚어주세요.
사람들 조롱에 맞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게서 진리가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영원히.
제가 의지하는 건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오,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목숨 걸고 지킬게요.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지킬게요.
제가 주님의 진리와 지혜를 찾고 나면,

넌따랏게 탁 트인 곳을 자유롭게 활보하겠죠.
그렇게 찾은 걸 온 세상에 전할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공개적으로 전할게요.
제겐 주님의 계명들이 너무나 소중한요. 오, 제가 그걸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충고라면 뭐든 다 즐겁답니다.

* * *

49-56 기억해주세요, 주의 종인 제게 하신 말씀을!
저는 그 말씀들에 필사적으로 매달린답니다.
삶이 고달플 때 그 말씀들이 절 붙잡아주니까요.
네, 주의 약속들이 제게 활기를 주니까요.
절 미워하는 자들이 증오심에 무자비하게 굴어도
전 주님의 계시를 절대 떠나지 않는답니다.
오래전 주님이 해 주신 확고한 말씀 바라보며
제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죠.
하지만 악인들이 주님의 지시를 무시하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나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전 주님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만들어
순례자의 길을 가며 읊조린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밤새도록 묵상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계시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죠.
제가 이렇게 조롱이 쏟아지는 길을 걷는 것도
다 주님의 말씀과 조언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 * *

57-64 하나님, 주님이 절 이리 만족시켜 주셨으니
저도 '주의 말씀 지키리라' 약속합니다.
주님께 간청합니다. 약속대로 절 향해 미소 지어 주세요.
부디 절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주님의 길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피본 후 (주님의 둘다리, 두드려 보고^^)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이 비취 주신 길로....

주님 명령에 즉시 순종했지요.
미적미적 꾸물거리지 않고....
악인들이 절 가두어, 독 안에 든 쥐 신세였을 때에도
한 순간도 잊지 않았죠, 날 향한 주님의 계획....
한밤중에 일어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침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기에....
주님의 결정이 너무나 옳고 완전하기에....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의 친구입니다.
주님 통치받으며 살아가기로 헌신한 이들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절 훈련시켜 주세요.

* * *

65-72 하나님, 주의 종을 선대해주세요.
그러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방식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저,
고결하고 건전하게 키워주세요.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몰라 방황하던 저,
이젠 주님 말씀에 보조 맞추니,
착하신 주님이, 선의 근원이신 주님이,
주님의 선으로 절 훈련시켜 주세요.
악인들이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지만,
저는 주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비계덩어리처럼 우둔하지만,
저는 주의 계시의 선율에 맞춰 춤을 춥니다.
제가 당한 화(禍)가 다 복으로 변한 걸 보면,
결국 제가 '주님의 교과서' 되어 그들을 공부시킨 격이 됐네요. (일타강사^^)
주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은 로또 맞은 인생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 * *

73-80 주님이 손수 빛으신 제게
 주의 지혜 불어넣어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걸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용기와 기쁨을 얻네요.
 하나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주님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시험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신 주님!
 오, 저를 사랑해주세요. 절 꼭 안아주세요, 지금요!
 그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절 위로해주세요, 제가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계시의 선율에 맞추어 제가 춤을 춥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기꾼들의 실체를 드러내주세요.
 그들이 제게 사기치려 했지만 (보이스피싱^^)
 제 마음, 주님의 조언에만 집중했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제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로써 주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보여주세요.
 제 영혼과 몸, 건전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늘 고개를 치켜들고 당당히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 * *

81-88 주님 구원을 갈망하다 상사병에 걸렸어요.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고대하다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약속의 싸인이 나타나길....
 얼마나 더 기다려야 얻을 수 있나요, 주님의 위로를?
 연기로 눈이 매워 눈물이 나도
 주님 계시하신 교훈만 곳곳이 바라볼래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절 고문하는 자들을 법정에서 세우실 건가요?
 오만한 무신론자들이 절 궤도에서 이탈시키려 해요.
 하나님도, 주님의 길도 알지 못하는 그들!
 주님의 계명, 이토록 뚜렷한데
 그들은 거짓말로 절 괴롭히네요. 도와주세요!
 그들이 아무리 끈덕지게 압박해와도

전 주님 조언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죠.
절 소생시켜 주세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제가 늘 깨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 *

89-96 하나님, 주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주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지구의 움직임을 명하시고 설계하신 것처럼
영원불변한 주님의 말씀과 진리!
주님 계시로 그렇게 큰 기쁨을 얻지 못했더라면
전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절대 잊지 않을게요, 주님이 주신 충고!
제 삶을 구원하신 지혜의 말씀!
절 구원해주세요!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니....
위아래로 자세히 살핍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
악인들이 매복해 저를 치려 해도
전 여전히 저를 향한 주님 계획에만 관심을 둡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게 한계가 있지만
주님 계명은 저 넓은 지평선에조차 담을 수 없으니까요.

* * *

97-104 오, 주님의 계시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종일 목상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은 시대에 뒤쳐지는 법이 없으니
그 계명으로 원수들을 거뜰히 앞섭니다.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똑똑해진 이유도 (청출어람靑出於藍!^^)
주님의 조언을 묵상하며 그 안에 침잠했기 때문.
내가 지혜롭고 나이 많은 현자들보다 더 지혜로워진 것도
주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

악의 도랑, 불의의 흔적을 피해 조심스레 걷습니다.
주의 말씀 지키는 데 올인하고자....
주님이 깔아 놓으신 길, 벗어날 염려 전혀 없네요.
주님의 완벽한 가이드 덕에....
주님의 말씀은 최상급 요리, 너무 맛있어요! (미슐랭 3스타^^)
잘 차린 집밥보다 훨씬 더 맛깔나죠. (집밥 주 선생^^)
거짓선전에 제가 휘둘리지 않는 것도
주님 교훈으로 인생을 바로 이해한 덕분이랍니다.

* * *

105-112 주의 말씀은 캄캄한 길의 한 줄기 빛,
지금 가는 길도 주의 말씀 통해 볼 수 있지요.
주님께 헌신한 이 몸, 절대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의로운 명령 따라 살아갈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절 치장해주세요, 주님의 아름다운 명언들로,
하나님! 절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통치로!
사지(死地)에 몰린 이 순간에도
주님의 계시를 기억합니다.
악인들은 절 궤도 이탈 시키려 수단방법 안 가리지만
전 주님의 길에서 1cm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간직할래요, 주님이 제게 물려주신 '인생교훈'이란 책! (국립박물관 소장^^)
그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그게 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전 주님 말씀이라면 토씨 하나까지 집중해 분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늘 그럴 거예요.

* * *

113-120 전 걸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정말 싫어요. (걸다속다^^)
하지만 투명한 주님 계시는 정말 좋아하는답니다.
주님은 제가 조용히 쉴 수 있는 휴양지!

주의 말씀으로 제가 새롭게 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꺼지거라, 악인들아!
 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
 약속대로 제 편이 되어 주세요. 절 확실하게 살려주세요.
 제 원대한 소망들을 저버리지 마세요.
 제 곁에서 평안을 지켜주세요.
 주님이 정해주신 삶에 올인할게요. (몰빵^^)
 폭로하세요, 주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을!
 죽을 줄 모르고 우상숭배를 밥 먹듯 하는 그들을!
 제가 주의 모든 말씀에 사랑스럽게 안기는 건
 주님이 이 땅의 악인들을 쓰레기처럼 버리셨기 때문....
 전 주님 앞에 서면 경외심에 덜덜 떨려요.
 주님 결정 앞에 경외심으로 할 말을 잃지요.

* * *

121-128 공의와 정의를 위해 제가 일어섰으니
 절 압제자의 수하에 놔두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 주의 종의 편을 들어주세요.
 불경건한 자들이 절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젠 눈 뜰 힘조차 없어요.
 모든 걸 바로잡으시겠다던 주님 약속 기다리다 지쳐....
 주의 사랑으로 절 대해주세요.
 주님의 '인생교과서'로 절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종인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주님 교훈의 깊은 뜻을 이해시켜 주세요.
 저들이 주님 계시를 영광으로 만들었으니
 저들을 손봐주세요,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 주님 계명을 사랑해요.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비트코인보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귀히 여겨요.
 하지만 거짓된 길은 다 멸시한답니다.

* * *

129-136 주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기적의 말씀인데,
제가 어찌 순종하지 않고 배기겠어요?
주님 말씀을 공개해, 빛을 발하게 하세요.
평범한 사람들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계명을 사모하다 못해
입을 벌린 채로 헐떡입니다. (과호흡^^)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늘 그러셨듯
제게도 오셔서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약속의 말씀으로 제 발걸음을 붙잡아주세요.
제가 어떤 악에도 사로잡히지 않도록....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절 구출해주세요.
제가 주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인 저에게 미소 지어 주세요.
올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책을 따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요.

* * *

137-144 하나님,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의 행동 또한 다 옳으시죠.
주님 결정은 늘 과녁을 적중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의리를 지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시죠.
하마터면 원수들한테 낚일 뻔했어요.
주님 계명을 완전 무시하는 그들에게....
철저히 검증된 주님의 약속
주의 종인 저는 그 약속 진심으로 사랑한답니다.
제 나이 너무 어려 별 존재감은 없지만
주님이 해 주신 말씀은 잊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정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계시만이 진리라는 걸....

제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늘 주님 계명으로 기쁨을 얻었죠.
주님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언제나 옳으니
충만한 삶 살도록 깨우쳐 주세요.

* * *

145-152 목청이 터져라 외칩니다.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뭐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명, 받잡겠습니다!^^)
주님께 외칩니다.
"절 구원해주세요! 주님 계명 하나하나 다 지키도록!"
해 뜨기 전 일어나 도와달라 외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소망하며....
주의 약속 목상합니다.
온 밤 지새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제 목소릴 들어주세요.
공의로 제 목숨을 지켜주세요.
절 잡으러 나온 자들, 제게 점점 다가올수록
주님 계시하신 진리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가장 가까이 계시죠.
주님의 심판은 다 옳습니다.
전 늘 알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이 진리임을,
그 말씀 영원함을....

* * *

153-160 제 어려움을 굽어살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의 계시, 결코 잊은 적 없으니
제 편이 되어 절 여기서 꺼내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제 삶을 돌려주세요. (돌리도~!^^)
주님의 사전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찾아본 적 없는 악인들
그들에게 '구원'은 한낱 뜯구름 잡는 얘기겠지만,
하나님,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주님의 지침대로!

수십억 명에게 흘러 보내주시는 주님의 자비로!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조차 없지만
 전 제게 주신 주의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중도포기자들을 보니 혐오감이 밀려드네요. (계포자-계명포기자^^)
 주님과 약속을 그리 쉽게 어기다니!
 잘 보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을 모아보면 딱 한 가지-진리로 귀결되고
 주님의 의로우신 판단, 영원히 지속되죠.

* * *

161-168 제가 정치꾼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당했지만
 주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주님 말씀만 들으면 전 너무 황홀해요.
 로또 맞은 것처럼....
 거짓말은 너무 싫어요. 정말 참을 수 없죠.
 하지만 주님의 계시의 말씀은 정말 좋아요.
 하루에 일곱 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큰소리로 찬양해요.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 계시를 사랑하는 이들은 만사형통!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발을 헛딛지 않죠.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전 주님 말씀대로 행한답니다.
 제 영혼이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수호하고 따릅니다.
 오, 제가 그 교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지시를 따르고, 주님 조언을 준수하는
 나의 인생은 주님 앞에 펼쳐진 한 권의 책! (회고록^^)

* * *

169-176 저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기 원해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만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세요.

제 요청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약속하신 대로 절 구출해주세요.
 제 입술에서 찬양이 쏟아지게 해주세요.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 약속이 제 혀에서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신 모든 명령은 옳으니깐요.
 주님 조언대로 살기로 한 이 몸,
 손 내밀어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병이 날 지경이에요. 주님의 구원이 너무 그리워....
 주님 모습 보여 주실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제 영혼에 각인시켜 주세요. 주님의 율례를!
 주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주님 목소리 알아챌 테니....

120편

순례자의 노래

1-2 하나님! 간절히 외칩니다. 큰일났어요!
 주님 응답 기다립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 사기꾼들로부터 절 구해주세요!
 온화한 미소 뒤에 거짓을 감추고 있는 그들에게서....” (양두구육 羊頭狗肉^^)

3-4 이 뻔뻔한 거짓말쟁이들아,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
 날카로운 화살과 이글거리는 솟불!
 그게 바로 너희가 받을 상이란다.

5-7 메섹에 살고 있는 이 불행한 몸,
 게달에 정착한 이 저주받은 몸,
 호전적인 이웃들 사이에서

평생을 떠돌이로 살아왔어요.
전 늘 평화롭게 지내자고 제안했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121편

순례자의 노래

1-2 저 멀리 산을 바라보네.
내 능력이 산에서 오는 걸까?
아니야, 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3-4 주님은 널 비틀거리게 놔두시지 않아.
너의 수호자이신 하나님은 잠 들지 않으시는 분이거든.
아무렴, 그렇고 말고!
이스라엘의 수호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단다.

5-6 하나님의 너의 보디가드,
바로 네 곁에서 널 보호해주셔.
낮의 햇빛으로부터,
밤의 달빛으로부터....

7-8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네 생명을 보호해 주신단다.
네가 집을 나설 때, 집으로 돌아올 때,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널 지켜 주신단다.

122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1-2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라고 할 때
난 너무 기뻐서 가슴이 뛰었네.
오 예루살렘아, 우리가 왔단다.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단다. (꿀인!^^)

3-5 예루살렘은 잘 지어진 성읍,
예배를 위한 장소로 건설되었지.
모든 지파들이 올라오는 성읍,
하나님의 지파들이 예배하러 올라오는 성읍!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존재의 의미!
정의로운 재판의 왕좌가 거기 있다네.
그 유명한 다윗의 왕좌가....

6-9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번영하길!
사이좋은 우리들, 함께 잘 지내요! (인싸-insider^^)
하지만 외부의 적들은 얼씬도 마! (아싸-outsider^^)
내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축복합니다.

“평화롭게 사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123편

순례자의 노래

1-4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우리러보며 도움을 구합니다.
주인님의 명령을 받드는 종들처럼,
마님의 수종을 드는 여종처럼,
숨죽이고 주님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자비의 말씀 기다립니다.
하나님, 자비를,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오랜 세월,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온 우리에게,
세상 부자들의 먹잇감이 된 우리에게,
오만한 악인들에게 견어차인 우리에게....

124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1-5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모든 이스라엘아, 다 함께 노래하자!-
사방에서 우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불타오르는 분노에
우린 산 채로 먹혔겠지.
격노의 급류에 휩쓸려
그 속에 빠져 죽었겠지.
거칠고 사나운 물살에 쓸려
우리 모두 목숨을 잃었겠지.

6 오, 하나님을 송축하자!
주님은 우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네.

으르렁거리는 들개 사이 벌벌 떠는 토끼처럼
우릴 무방비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네.

7 그들의 날카로운 송곳니에서 우린 빠져나왔지.
그들의 텃에서 새처럼 자유롭게 빠져나왔지.
그들의 손아귀에 힘이 풀려
우리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올랐지.

8 하나님의 막강한 이름은 우리의 도움!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란다.

125편

순례자의 노래

1-5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꼭 시온산 같아요.
그 어떤 것에도 꿈쩍 않는 바위산,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바위산 같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듯
하나님도 당신 백성들을 에워싸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거예요.
의인의 땅에서 악인의 주먹은
결코 힘을 쓰지 못할 거예요.
의인은 악인의 부당한 폭력에
맥없이 당하지 않죠.
하나님, 주님의 선량한 백성들을 선대해 주세요.
마음이 울곤은 이들을 잘 대해주세요.
하나님이 구제불능, 타락한 자들을 싸잡아
한 울타리에 처넣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126편

순례자의 노래

1-3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린 너무 기뻐서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어.
우린 웃으며 노래했지.
우리에게 이런 행운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
다른 나라들도 온통 우리 얘기뿐이었지.
“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릴 위해 놀라운 일 행하셨으니
우린 더할 나위없이 행복한 백성이라네!

4-6 하나님, 다시 한번 행해주세요.
우리의 메마른 삶에 단비를 내려주세요.
절망 가운데 씨를 뿌린 자들이
추수 때 ‘대박!’을 외칠 수 있도록,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선 자들이
입에는 함박웃음을, 마음엔 한아름 축복을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127편

솔로몬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1-2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가들이 지을 수 있는 거라곤 허접한 헛간뿐....
하나님께서 성읍을 지키지 않으시면
굳이 보초 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는 게 나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소용없어요.
‘새 빠지게’ 열심히 일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대, 모르나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휴식 주시길 좋아하신다는 걸?

3-5 그대, 모르나요? 자녀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란 걸?
 태의 열매야 말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산이란 걸?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얻은 자녀야 말로
 전사의 손에 쥐어진 화살과 같다는 걸?
 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화살통 가득한 화살 같은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그대의 원수들이 어디, 언감생심 당신을 대적할 마음이나 갖겠어요?
 문지방도 못 넘고 바로 쏠려나갈 텐데요?

128편

순례자의 노래

1-2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요, 곧고 평탄한 주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은!
 열심히 일한 그대, 보상 받을 자격 충분하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축복을 누리세요! 주님의 선하심에 푹 빠지세요!

3-4 그대의 아내도 주렁주렁 포도나무처럼 많은 자녀 낳아
 집안이 포도원처럼 번성할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올리브 새싹처럼 파릇파릇, 앞날이 창창!
 하나님의 응답에 경외심을 가지세요.
 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5-6 예루살렘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세요.
 매일매일 평생토록....
 손주들 재롱 보며 즐겁게 보내세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129편

순례자의 노래

1-4 “난 어릴 때부터 늘 걷어차였어.” (라떼는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

“난 어릴 때부터 늘 걷어차였어.

하지만 한번도 쓰러지진 않았지.

내 등은 위아래로 쟁기질 당해

길다란 고랑이 패였어. (한마디로 등골 빼먹었던 얘기^^)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셨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셨어.

사악한 자들의 쟁기를 박살내셨어.”

5-8 오, 망신 톡톡이 당하게 해주세요.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추수도 하기 전에 시들게 해주세요,

얕팍한 땅에 심겨진 풀처럼....

시들게 해주세요.

농장 일꾼들이 거두어 들이기도 전에,

추수꾼들이 수확하기도 전에,

“풍성한 수확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들이 이렇게 외치기도 전에....

130편

순례자의 노래

1-2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바닥을 쳤어요!

주님, 도와달란 제 외침 들어주세요!

경청해주세요! 귀를 여시고....

자비를 구하는 이 외침 들어주세요!

3-4 하나님,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잘못 낱알이 기억하시면...?

용서가 습관이 되신 듯 우릴 늘 용서해 주시는 주님!

주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5-6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사실 제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과 행동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님, 전 하나님께 목숨 걸었습니다.

아침이 오길 고대하며 지켜봅니다.

아침이 오길 고대하며 지켜봅니다.

7-8 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고대하며 지켜보아라.

하나님이 오셔야 사랑도 오고

하나님이 오셔야 은혜의 구원도 오리니....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 의심할 여지없이....

죄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값 주고 도로 사 오시리.

131편

순례자의 노래

1 하나님, 저는 지금 이곳을 통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산지의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구요.

전 저랑 상관없는 일에 끼어든 적도 없고

헛된 야망을 품어본 적도 없어요.

2 허황된 꿈 꾸지 않고

평화로이 살아온 이 몸,

엄마 품속 아기처럼

제 영혼, 지극히 만족스럽습니다.

3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잃지 말아라!

132편

순례자의 노래

1-5 하나님, 다윗을 기억해주세요.
그가 당한 모든 환난을 기억해주세요!
그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기억해주세요.
능력이 많으신 야곱의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기억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마련하기 전엔,
능력이 많으신, 야곱의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기 전엔,
내가 집에 들어가거나
잠자리에 들지 않을 거야.
잠을 자거나
쉬지도 않을 거야.”

6-7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들은 그 소식, 기억해주세요.
야알의 목초지에서 들은 그 소식,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린 이렇게 외쳤죠. “성소를 봉헌하러 가자!
하나님의 발 아래 예배드리자!”

8-10 일어나세요, 하나님, 새로운 안식처를 즐기세요.
그곳을 누리세요, 주님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주의 제사장들에게 정의의 옷을 입혀 주세요.
주님 예배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노래하라 하세요.
“주님의 종 다윗을 높이 주세요.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잊지 마세요.”

11-18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실 주님!
 “네 아들들 중 하나를
 네 왕좌에 앉혀 주마.
 네 아들들이 내 언약을 진실하게 지킨다면,
 내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이 자자손손 왕권을 잇게 해주마.
 너의 후손이 늘 네 왕좌에 앉게 해주마.
 그래, 나 하나님은 시온을 택했단다.
 시온에 내 성소를 두면 좋겠구나.
 그것이 영원히 내 집이 되면 좋겠구나.
 그게 내 바람이란다. 내가 영원히 이곳을 떠나지 않으마.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이곳에 오는 배고픈 이들에게 저녁을 대접해주마.
 내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슴 벅찬 노래를 하게 해 주마.
 오, 이곳을 빛내 주마, 다윗을 위해....
 이곳을 빛으로 채워주마,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위해....
 다윗의 왕관을 화려하게 빛내 주마.
 하지만 그 원수들에게는 더러운 누더기를 입혀 주마.”

133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1-3 형제자매가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건 마치 아론의 머리와 턱수염에 흘러내리는
 진귀한 관유와 같지.
 그의 턱수염에 흘러내리는 관유,
 제사장복 옷깃에 흘러내리는 관유와 같아.
 시온 비탈에 흘러내리는

혈몬산 이슬 같아.
아무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리시니까....

134편

순례자의 노래

1-3 다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너희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너희 하나님의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성소에서 야간보초를 서는 자들아, (근무 중 이상무!^^)
성소를 향해 찬양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그럼 시온의 하나님도 너희에게 복 주실 테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도 너희에게 복 주실 테니....

135편

1-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제사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배로 삼으셨기 때문이지요.

5-12 저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할게요.

다른 어떤 신보다 높으신 우리 주님!
 어찌 됐든, 어디서든, 언제든
 당신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
 날씨도 주님이 만드시죠. 구름과 천둥,
 번개와 비, 그리고 북풍한설까지....
 애굽의 첫 소생들도 주님이 다 치셨죠.
 사람이건 짐승이건 가리지 않고....
 주님은 애굽을 일으켜 앗히신 후, 정신 번쩍 들게 하셨죠.
 기적을 일으켜 바로 및 그 신하들과 정면승부하셨죠.
 아무렴요, 주님은 그 큰 강대국을 무너뜨리시고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 최후의 한 사람까지!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죠.
 그 좋은 땅을 주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죠.

13-18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늘 새로우십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위해 일어서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불경건한 국가의 신들은 한낱 장식품
 시장에서 급히 팔아 치우는 덤핑 상품
 새겨 넣은 입이라 말도 못하고
 그려 넣은 눈이라 보지도 못해.
 파 넣은 귀라서 듣지도 못하고
 죽은 나무, 차가운 금속에 불과한 걸?
 그것들을 만들고 믿는 자들 역시
 결국 그것들처럼 되고 말 걸?

19-21 이스라엘 가족이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아론 집안이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레위 가문이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 시온의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누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거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136편

1-3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은 감사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시니까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모든 신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모든 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4-22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놀라운 솜씨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바다의 기초 위에 땅을 펼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빛으로 하늘을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태양으로 낮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수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져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홍해 정중앙을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갈라진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홍해 안에 바로와 그 군대를 처넣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광야 한가운데로 당신 백성들을 행군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사방의 강대국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명성이 자자했던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바산 왕 옥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 땅을 전리품으로 나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23-26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릴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우릴 짓밟던 발길에서 우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궁핍에 처한 모든 이들을 돌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137편

1-3 바벨론 강가, 독에 앉아
우린 울고 또 울었네.
그 좋았던 시온 시절 회상하면서....
흔들리는 사시나무 옆에 하프를 놔뒀네.
오랫동안 연주하지 않은 하프를....
우릴 사로잡은 자들이 노래를 청하더군.
비웃음과 조롱 섞인 말로....
“흥겨운 시온 노래 한 곡 불러 보거라!”

4-6 오, 우리가 어찌 이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예루살렘아, 내가 널 한번이라도 잊은 적이 있다면
내 손가락이 낙엽처럼 시들게 해다오.
내가 널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널 가장 위대한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시커멓게 부풀게 해다오.
오 사랑하는 예루살렘아!

7-9 하나님, 저 에돔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예루살렘이 패망하던 날
그들이 이렇게 소리쳤죠.
“예루살렘을 부숴버리자, 풍비박산으로 만들자!”
너희 바벨론 사람들아, 이 파괴자들아!
너희에게 복수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을 거다!
우리한테 한 짓에 대해 복수하는 사람에게는,
너희 아기들 머리를 바위에 박살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이 있을 거다!

138편

다윗의 시

1-3 감사합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감사를 외칩니다.

천사들이 듣습니다, 내 감사 노래를....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리에 감사합니다.

최고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최고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부르짖는 순간, 즉시 손씨 주신 주님!

크신 능력으로 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

4-6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온 땅의 왕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놀라운가!"

저 높이높은 곳에서 이 낮디낮은 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7-8 살려주세요! 깊은 곤경에 빠진 저를,

성난 소용돌이 속에 있는 저를....

한 손으로는

제 원수들을 공격하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해주세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거두지 마세요.

139편

다윗의 시

1-6 하나님, 제 인생을 굽어살펴 주세요.
모든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팩트체크^^)
주님 앞에 있는 이 몸, 펼쳐진 책과 같아
멀리서도 주님은 제 생각을 아시죠.
제가 언제 집을 나서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다 아시는 주님
저는 주님의 시야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답니다.
첫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아시는 주님 (이심전심以心傳心^^)
뒤를 돌아봐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위를 올려봐도 주님이 거기 계시죠.
내가 어딜 가건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멋지네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7-12 제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딘들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시야를 벗어나 어딘들 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땅 밑에 들어가도 주님이 거기 계신 걸요?
내가 아침의 날개를 타고
저 멀리 서쪽 지평선까지 날아간다 해도
즉시 날 찾아내시고
어느새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무소부재=순간이동^^)
그때 저의 혼잣말 "오, 주님은 어둠 속에서도 날 보실 수 있구나!
한밤중에도 날 빛 가운데 보시는구나!"
주님께는 어둠도 전혀 어둡지 않으니까요.
낮이든 밤이든, 빛이든 어둠이든, 주님께는 다 똑같으니까요.

13-16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제 속을 먼저 빚으신 후, 제 겉을 빚으신 주님,
제 어머니의 태 안에서 저를 만드신 주님,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숨막힐 정도로 놀라우신 주님!

제 몸과 영혼을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는지...!

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물인지! 제가 경외감에 싸여 예배합니다.

저를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제 몸 안의 모든 뼈마디까지 다 아시는 주님, (X-ray 투시안^^)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살이 아시는 주님,

무(無)에서 유(有)로 날 어떻게 빚으셨는지 정확히 아시는 주님,

펼쳐진 책처럼 제 잉태와 출생,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신 주님!

제 인생의 모든 단계, 주님 앞에 펼쳐져 있었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 모든 날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

17-22 주님의 생각은 어쩔 그리도 귀하고 아름다우신가요!

하나님, 전 그 생각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생각들을 셀 엄두조차 못 내겠어요.

주님의 생각은 바닷가 모래알들보다 많으니까요.

오, 아침에 일어난 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악은 영원히 내쫓아 주세요!

너희 살인자들아,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나님, 그들은 싸구려 짝퉁 신들에게 빠져

주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제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들의 불경건함과 오만함을 제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전 그걸 완전 증오합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곧 저의 원수들이니까요!

23-24 오 하나님, 제 삶을 굽어살펴 보세요.

저의 모든 걸 찾아보세요.

2중, 3중으로 절 검사하고 조사해 보세요. (CT, MRI 총동원^^)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보세요.

제가 잘못된 게 있다면 뭐든 직접 찾아내시고

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140편

다윗의 시

1-5 하나님, 절 여기서 꺼내 주세요. 이 악에서 건져 주세요.
이 악랄한 자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그들이 하는 거라곤 악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는 것뿐이에요. (신모델 출시^^)
그들은 전쟁을 도모하는 데 세월을 다 보낸답니다.
그들이 증오와 상처를 줄 신랄한 욕설을 연구하며 (욕설연구소^^)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독설을 퍼뜨려요. (독설 물류회사^^)
하나님, 이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절 구해주세요.
이 악랄한 자들로부터 절 지켜 주세요.
거만하게 으스대는 자들이
절 무너뜨리기로 작정하고 계락을 꾸미고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 절 잡으려고 함정을 팠어요.
절 고소하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6-8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게 귀 기울여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님, 능력의 구원자시여,
싸움이 일어날 때 절 보호해주세요.
악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한 치도 양보하지 마세요!"

9-11 절 에워싼 이 시비꾼들,
자기 독설에 자기가 빠져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 위에 지옥불을 쌓아 주세요.
빙하가 갈라진 깊은 틈에 그들을 산 채로 묻어 주세요. (냉동인간^^)
그 시끄러운 입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이 야만인들,
악마의 사냥감이 되게 해 주세요.

12-13 하나님, 저는 알아요, 주님은 희생자 편이시라는 걸....
주님은 가난한 이들의 권익에 관심 가지신다는 것도,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다는 것도,
선한 이들이 주님 앞에 안전하다는 것도 잘 알지요.

141편

다윗의 시

1-2 하나님, 제 곁에 와 주세요. 빨리 와 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 게 바로 제 목소리예요!
제 기도를 하늘 향한 향기로운 향불로 여겨주세요. (향향향^^)
저의 들어올린 두 손을 제 저녁기도로 여겨주세요.

3-7 제 입에 보초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의 문에 경비를 세워주세요.
악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주세요.
경솔하게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로지 악행만 저지르는 자들-
그들의 달콤한 말에 낚이지 않게 해주세요.
공의로우신 주님이 절 올바르게 인도해주세요.
인자하신 주님이 절 바로잡아 주세요.
제 머리에 죄로 기름 붓지 말아주세요.
그들의 악에 강력히 맞서 기도하오니,
오, 그 지도자들을 높은 바위 절벽에서 밀어 버리세요.
그들을 인과응보, 자업자득으로 처리해주세요.
다이너마이트에 부쉬진 바위처럼
그들 뼈가 지옥문에 흩어지게 해주세요.

8-10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제 관심은 온통 주님께만 쏠려 있으니,
제가 주님께 필사적으로 달려왔으니,

저만큼은 잘 돌봐 주세요.
절 보호해주세요, 그들의 악랄한 계략으로부터....
절 지켜주세요, 그들의 사악한 속임수로부터....
악인들을 완전히 고꾸라뜨려 주세요.
하지만 저는 털끝 하나 안 다친 채 벗어나게 해주세요.

142편

다윗이 동굴에 머물 당시 드린 기도

1-2 내가 하나님께 큰소리로 외치네.
큰소리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네.
주님 앞에 모든 억울함을 토로하며
내 문제를 소상히 말씀드리네.

3-7 "절망에 빠져 내 영혼 사그라들 때,
주님 아시잖아요, 제 기분이 어떨지....
지금 제가 처한 위험을 봐 주세요.
제 길에 숨겨진 덫을 봐 주세요.
제 좌우를 살피주세요.
지금 벌어지는 일에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출구가 없는 벽에 부딪힌 느낌
제겐 아무도 없어요. 완전 혼자라구요.
제가 외칩니다, 하나님, 큰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이 제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살아날 유일한 희망이에요!'
오, 귀 기울여 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제 인생, 이렇게까지 바닥을 친 적은 없었다구요!
저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절 구해주세요.
저는 그들의 적수가 못 된다구요!
이 지하감옥에서 절 좀 꺼내 주세요.
만인 앞에서 제가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이 저를 빙 둘러쌀 때

제게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주세요!" (샤워 파티 ^^)

143편

다윗의 시

1-2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제 간구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게 응답해주세요. 주님은 응답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하지만 제발, 제발 절 법정으로 끌고 가진 마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무죄선고를 받진 못하니까요.

3-6 원수가 저를 사냥해서는 발로 걷어차어요.

짓밟아 거반 죽여 댔어요.

그가 저를 블랙홀에 처넣었어요.

저를 시체처럼 지하감옥에 가두었어요.

제가 여기 절망 가운데 앉아 있을 때,

내 영혼 메마르고, 내 마음 납덩이처럼 무거울 때,

전 옛적 일을 기억했어요.

주님 행하신 일을 회상하며, 주님 일하시던 방식을 목상했어요.

주님 향해 제 손을 뻗었어요.

뜨거운 사막에서 단비를 갈망하듯 주님을 갈망했어요.

7-10 빨리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전 지금 한계에 다다랐어요.

절 외면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저 죽어요!

내가 밤마다 제가 주님 믿고 잠들 수 있는 것은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날 깨워주시기 때문....

주님께만 귀 기울이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니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원수들로부터 절 구해주세요, 하나님!
주님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시니....
주님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알려 주세요.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니....
님의 복된 영으로 절 인도해주세요.
고요하고 평탄한 목초지로 절 이끌어주세요.

11-12 절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 명성 실추되지 않도록....
주님의 공의로 절 이 고난에서 꺼내주세요!
주님의 큰 사랑으로 원수들을 물리쳐주세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쓸어 없애주세요.
왜냐고요? 전 주님의 종이니까요!

144편

다윗의 시

1-2 나의 든든한 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디딤돌 반석
내가 들어가 거하는 성채
내 목숨을 구해주시는 기사(奇士) (나는 라폰젤^^)
내 목숨 위태할 때 달려갈 높은 바위
그 사이 주님이 내 원수들을 때려 눕히시지.

3-4 하나님, 전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왜 이토록 마음을 써 주시는지....
우린 그저 한 줌 바람에 지나지 않은데,
우리 한낱 모닥불 속 그림자에 불과한데....

5-8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산 한가운데 분화구에 불을 지르세요.

주님의 번개를 사방에 던지세요.
주님의 화살을 이리저리 쏘세요.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 내밀어
이 증오의 바다에서 절 건져주세요.
저 야만인들의 손아귀에서 절 꺼내주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들,
앞에선 악수하면서
뒤에선 비수를 꼽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9-10 오 하나님, 신곡으로 주님을 찬양할게요.
12줄 기타를 연주해 드릴게요.
노래를 올려드릴게요, 왕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주의 종 다윗을 구출하신 하나님께....

11 절 구해주세요, 저 원수들의 서슬 퍼런 칼에서....
절 풀어주세요, 저 야만인들의 손아귀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들
앞에선 악수하면서
뒤에선 비수를 꼽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12-14 우리 아들이 건실한 참나무처럼
전성기를 맞게 하시고
우리 딸들이 들판의 야생화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세요.
우리 창고를 풍성한 수확물로 채워주세요.
우리 들판을 거대한 양무리로 채워주세요.
침략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 없게 하세요.
길거리 범죄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범죄와의 전쟁^^)

15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나요, 이 모든 걸 다 가진 백성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나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145편

다윗의 찬양

1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제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요!
전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거예요.

2 전 지금부터 영원히,
매일 매일 주님을 송축할 거예요.

3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떤 찬양으로도 표현할 수 없지요.
주님의 위대하심은 무한하니까요.

4 대대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업적에 경외심을 갖고
입을 모아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얘기하네요.

5 모두들 주님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얘기하네요.
저 역시 주님의 경이로움에 대한 노래들을 짓는답니다.

6 주님의 놀라운 업적은 톱뉴스!
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낱알이 책에 가득 쓸 수 있지요.

7 주님의 선하심, 온 나라에 명성이 자자하고
주님의 의로우심, 모든 사람의 화제거리랍니다.

8 주님은 자비와 은혜 그 자체!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 또한 풍성하시죠.

9 모든 이에게 잘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하시는 일엔 늘 은혜가 가득!

10-11 하나님, 주님의 창조세계와 온 피조물이 주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얘기하고
주님의 영화로움에 감탄합니다.

12 영원히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며
주님 왕국의 찬란한 영광을 자랑합니다.

13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
주님이 파면당하실 일은 결코 없지요.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은혜가 넘치시죠.

14 불행당한 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포기하려는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15 주님만 바라보는, 기대에 찬 모든 시선에게
때맞춰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주님

16 잘못을 저질러도 관대히 봐 주시고
모든 생명체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주님

17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공의!'
주님 작품에 찍힌 상표마다 '사랑!'

18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예 귀 기울이시는 주님

19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20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시는 주님
하지만 자기를 사랑치 않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네.

21 내 입은 하나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생명체들이여, 주님을 송축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시다, 지금부터 영원히!

146편

1-2 할렐루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리.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 드리리.

3-9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들 손에 목숨을 맡기지 마세요.
그들은 생명에 대해,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한날 인간에 불과한 그들은 아무 도움도 못 주죠.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프로젝트도 함께 사장될 뿐.....
대신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참 축복을 누리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와 그 안의 모든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죠.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주시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죠.
하나님은 선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해 주시죠.
고아와 과부들 편을 들어주시지만
악인들은 단번에 망하게 하시죠.

10 모든 걸, 영원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니 얼마나 좋은가요!
찬양은 아름다워요. 찬양은 마땅해요.

2-6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흩어졌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 주시고
그들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 주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각각의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위대하세요. 능력이 무한하세요.
주님의 지식과 업적,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지만
악인들은 구덩이에 처넣으시는 하나님

7-11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러드리세요.
악기를 동원해 음악을 연주해 드리세요.
하늘을 구름으로 채우시고
땅을 위해 비를 비축하시는 하나님께....
산들을 풀로 푸르게 하시고
소떼와 까마귀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명마(名馬)의 힘자랑에 눈도 꿈적 안 하시고
초콜릿 복근도 우습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관심가져 주시니
그분의 능력, 의지해도 된답니다.

12-18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성읍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신 주님!
 네 국경선에 평화를 주시고,
 네 식탁에 최고의 빵을 올려 주시는 주님!
 땅을 향해 언약을 맺으시고
 신속정확하게 이루시는 주님!
 흰 양털처럼 눈을 뿌리시고
 잿가루처럼 서리를 날리시며
 새 모이처럼 우박을 내리시니
 엄동설한에 살아남을 자, 그 누구일까?
 하지만 다시 명을 내리시니 그 모든 게 녹는구나.
 겨울에 온기를 뿜으시니 돌연 봄이 되는구나.

19-20 그렇게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네.
 다른 나라들에겐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지.
 그들은 그런 계명 받아본 적 없지.
 할렐루야!

148편

1-5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산꼭대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주님의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새벽별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비구름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 말씀으로 인해 너희가 생겨났단다!

6 주님이 너희를 제자리에 배치하셨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명을 내리시면
그걸로 끝!

7-12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바다 용들아,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의 심연들아,
불과 우박아, 눈과 얼음아,
주님 명령에 복종하는 허리케인아,
높은 산들아, 낮은 동산들아,
사과 과수원들아, 백향목 숲들아,
들짐승들아, 집짐승들아,
땅에 기는 뱀들아, 하늘을 나는 새들아,
땅의 왕들아, 모든 종족들아,
리더들아, 고위직들아,
한창 때인 이팔청춘 남녀들아,
아무렵, 은발의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도!

13-14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유일하게 찬양 받을 자격이 있으신 이름을!
하늘과 땅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광채와는 비교가 안 돼.
주님이 세우신 기념비, 그건 바로 주님의 백성!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아,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절친들아!
할렐루야!

149편

1-4 할렐루야!

최신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요.

모든 이스라엘이여, 그대들의 통치자-창조주를 경축하세요.

시온의 자녀들이여, 그대들의 왕께 환호하세요.

모두들 춤을 추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악단을 조직해 멋진 음악을 연주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기뻐하시니까요.

보잘것없는 자들을 구원의 화환으로 꾸며 주시니까요.

5-9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찬양을 터뜨리세요.

지금 앉아 있는 곳에서 노래하세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힘찬 검무(劍舞)로 검을 휘두르며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한 복수의 징조로,

징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저들 왕들은 사슬에 묶인 감옥 신세

저들 지도자들은 영원한 철창 신세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문자 그대로 집행되었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다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네!

할렐루야!

150편

1-6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집-주의 거룩한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광활한 하늘 아래!

찬양하세요, 주님이 권능으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세요, 주님의 장엄함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세요, 힘차게 트럼펫을 불며!
찬양하세요, 부드럽게 현악기를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세요, 캐스터네츠에 맞춰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세요, 밴조와 플루트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심벌즈와 큰 베이스드럼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바이올린과 만돌린으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